

제주

갈옷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 일시 2023년 7월 10일(월) 13시
- 장소 제주 라마다호텔 8층 연회장

문화재청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 제주 갈옷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 일시 2023년 7월 10일(월요일) 13시
- 장소 제주 라마다호텔 8층 연회장

목 차

■ 기조 강연

■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고부자(전 단국대학교 교수) 5

■ 주제 발표

■ 1부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좌장: 현승환(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18
홍희숙(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지식 65
-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91
허복구(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국장)
-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 112
고광민(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 2부 종합토론

좌장: 현진숙(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장)

- 토론 1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124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 토론 2 갈옷은 제주인의 삶 127
이애순(제주천연염색협회장)
- 토론 3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128
박지혜(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장)
- 토론 4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제주 갈옷 131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 학술대회 세부 일정

13:00-13:30	등록	
개회식 (사회: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3:30-13:40	개회사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격려사 현진숙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장	
13:40-13:50	영상 시청 미래무형유산 제주 갈옷의 재발견	
13:50-14:30	기조강연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고부자 전 단국대학교 교수	
14:30-14:40	휴식	
1부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좌장: 현승환 제주대학교 교수)		
14:40-15:05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홍희숙 제주대학교 교수
15:05-15:30	제주 갈옷에 담긴 제주인의 전승지식 -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장
15:30-15:55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허복구 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국장
15:55-16:20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16:20-16:30	휴식	
2부 종합 토론 (좌장: 현진숙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장)		
16:30-17:40	황경숙(부경대학교 외래교수) 이애순(제주천연염색협회장) 박지혜(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장) 조정현(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17:40~17:50	휴식	
17:50~18:10	제주 갈옷 패션쇼	

4_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 기조 강연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고 부 자 (전 단국대학교 교수)

제주 갈옷의 전통과 계승 발전 방향

1. 들어가는 말

전통은 지역이나 시대의 특성과 요구에 따라 발생하고 변형되지만, 고유의 틀을 지니면서 이어간다. 자연환경 및 생활상을 반영하는 첫 얼굴인 입성(衣服, 服飾)도 그중 하나이다. 제주에는 특히 제주만이 가진 독특한 유산(遺産)으로 입성거리 갈옷이 있다.

이 갈옷은 뚝고 잘고 씨 많은 제주 ‘뽕(뽕)감’으로 제주의 자연기상(氣象)과 사람의 땀, 지혜와 정성을 함께 모아 만들어 낸 작품이다. ‘대땀이(머리통)가 벌러지는(깨지는)’ 더운 한 여름에 미리 만들어 놓은 옷에다 방망이로 바수고 짚이긴 감을 넣고 어깻죽지가 빠지게 치댄 다음 햇볕에 앞뒤 골고루 바래서 얻어 낸 걸작이다. 경제적이고 위생적일 뿐만 아니라 자연 친화적인 우수한 자원이며, 제주의 자랑거리 중 하나이다.

갈옷의 원형은 한복(韓服)인 윗옷[上衣:저고리]과 아래옷[下衣:바지]이며 홑옷이다. 여기에 감물을 들여서 입는 윗옷을 남녀공통으로 갈적삼(赤紗)이라고 했다. 아래 입는 것 중에서 남성 것은 갈중이, 여성 것은 갈굴중이다. 한복은 펴 놓으면 평면이라 갈옷 거리로 합리적이다.

현재까지 전통 갈옷은 누가 언제 어떻게 왜 만들었는지 정확한 자료는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유물은 반세기를 넘는 것도 구하기 어렵다. 그러나 갈옷은 1960년대까지도 제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애용했던 노동복이자 생활복이었다. 기록에 의하면 조선시대 영조(英祖) 39년(1763) 안덕면 창천리 사람姜渭聘(姜渭聘)이 한양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을 때 입고 갔던 갈옷 덕으로 특별히 사면(赦免)을 받았고,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1765)에도 감물을 들인 옷을 농가에서 입었다고 한 것을 보면 그 실용성이 어땠는지 알 수 있다. 일제강점기에도 문헌이나 신문 기행문 등에도 나오고 있어 계속 입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0년대부터는 감물공예기법(工藝技法)이 개발되면서 옷과 각종 생활용품에 이르기까지 제주를 상징하는 대표 상품들로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요즘은 생산공정의 변화 등 다방면으로 변신하면서 더욱 발전하고 있다. 손으로 바수던 감은 기계가 대신하고, 시간이 지나면 쓸 수 없었던 감즙(梅汁 원액(原液))을 물 섞인 감물로 만들어 병에 담아 냉장고에 두었다가 일 년 내내 쓰고 있다. 색을 내는 바래기도 한여름 피약별일 때만이 아닌, 쾌청한 날이면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2023년 현재는 혼합염료의 개발과, 옷 외에 모자, 신, 가방, 침구류 소품 및 장식거리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염직물공예품까지 개발되고 있고 다양한 섬유에도 염색이 가능해졌다.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갈옷의 장점 살리기와, 고유의 색상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특히 정통 기법(正統技法)으로 완성된 한복(韓服) 갈옷, 정통감물 제품은 찾아보기 힘들다. 세탁도 주의사항으로 기계세탁(드라이크리닝) 하라고 제시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왜 제주 갈옷이 보존·전승되어야 할 미래무형유산으로 거론되

는 걸까? 이는 그 귀한 가치와 함께 본연의 원형을 되살리면서 더 바르게, 더 다양하게 계승 발전시켜 가야 할 책무와 과제가 중요시되기 때문이다.

2. 어릴 적 갈옷 생활상

1) 어린 시절 잔상(殘像)

1944년생인 나는 1950년부터 제주시 오라일동(吾羅一洞) 속칭 ‘남새’라는 동네에서 살았다. 지금 제주시외버스터미널 서쪽이다. 여덟 집이 모여 사는 작은 농촌 마을이었는데 집 뒷밭에는 고인돌도 있었고, 넓은 ‘우영팻(텃밭)’과 뒷뜨락에 크고 작은 감나무가 여럿 심어져 있었다.

우리 집에서 갈옷 만들기는 1962년 내가 제주를 떠나기 전에는 해마다, 그 후 몇 차례 더 했다. 그때 노동복은 새로운 것들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주로 윗옷은 마고자 꼴(模樣.形態)로 변한 것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개량한복(改良韓服)이라 했다. 이 옷은 전통 적삼과 서양 옷인 윗옷(上衣) 블라우스를 절충한 것으로 등길이는 허리까지 길게, 깃은 목을 둥글게 파고, 단추는 여러 개 달았다. 남성들도 입었는데 특히 외출용에는 대부분 주머니를 달기도 했다. 여성옷으로 아래는 주로 일제강점기 말에 나온 몸빼를 입었다.

어머님(1914년생)은 적삼과 개량한복도 직접 만들어 입으셨다. 옷은 어머님이 재봉틀로 만들고, 감물들일 때는 어머님과 딸들이 같이 했다. 바래기부터는 딸들 몫이었다. 갈옷 만들기는 주로 제주 여성들의 여름철 큰 과제이며, 일거리 중 하나였다. 어머님 갈옷은 평생 농꾼이어서 해마다 마련했지만, 아버님(1911년생) 깃은 공무원이었으므로 해를 거르기도 했다. 자식들은 낡은 옷에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옷감은 주로 쓰던 미녕(木綿. 무명) 대신에 1940년대부터 기계로 짠 폭이 넓은 광목(廣木)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감 따기는 감씨가 여물기 전에, 새벽에 그 날 날씨를 보고 했다. 감물들이기는 하늘이 도와야 되는 일이었다. 짙하게 맑은 날이라야 태갈 좋은 갈옷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냇(木)도구리에 탄 감을 놓고 덩드렁막개로 잘게 비수어 으갠 다음 미리 뒤집어 둔 옷을 냇도구리에 펴 놓고 으갠 감물(糊)과 함께 치댄다. 감물이 옷감의 윗과 윗 사이와 시접까지 골고루 배도록 어깨죽지가 빠지게 주물렀다. 다음은 옷에 달라붙은 감쭈시(감찌꺼기)를 깨끗이 털어내고 겉으로 뒤집는다. 뒤집은 옷은 구겨진 곳을 반듯하게 펴서 손으로 두드리고 발로 밟은 다음 한 면(面)이 하늘을 보도록 명석 위에 편편하게 널어 햇볕에 바랜다. 한복은 펴놓으면 편편해서 바래기에 알맞고 고르게 물(色)이 난다. 갈옷이 가진 최상의 질은 바래기에서 결정된다. 밤에 ‘노릇’(이슬)을 맞으면 최상의 작품이 나온다. 이슬이 내리는 쾌청한 밤에 주로 ‘눌’(난가리) 위에 편편하게 널었다. 일손이 귀할 때나, 밭이나 들일을 갈 때도 가지고 가서 잔디나 돌 위에서 말렸다. 물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물허벅을 지고 갔다.

바래기는 앞면이 햇볕에 완전히 마르면 뒷면으로 뒤집어 낸다. 이때 앞면과 뒷면이 완전히 마르면 물에 폭 적시면서 바래는데, 앞과 뒤 뒤집기는 마르는 대로 계속 반복해야 한다. 바래는 과정이 더해 갈수록 흰색이 점차 발갛게 붉은 벽돌색으로 변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날씨나 시간, 장소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일주일쯤 걸린다. 이때 비가 계속 오거나 장마가 끼면 한

해 갈옷 농사를 망치게 되고 만다. 감즙의 탄닌 성분은 제때에 제대로 배리지 못하면 갈옷 본연의 상큼하고 칼칼한 맛과 빛깔을 잃고 거무튀튀하고 칙칙한 불품없는 태깅이 되어버린다. 내가 직접 만들고, 완성한 갈옷 중에서 마음에 든 것은 매우 드물다.

내가 제주에서 갈옷만들기 실습을 여러 번 육지 학생들에게 정통방식으로 시도했다. 배래기 시간이 부족하므로 마무리가 덜된 상태로 가져가서 완성하도록 했다. 완성된 것 중에 촉감이나 색 등 제대로 된 것은 한 점도 없었다. 이는 햇볕 아래서 제 때, 제대로 해야 하는 배래기과정의 미숙함이 원인이었을 것이다. 감물 들이는 날은 동네 아이들과 함께 기대감이 컸다. 바순 감을 옷에 치댄 다음에 나오는 투명하고 쫄득한 감씨를 주워 먹을 수 있는 날이었기 때문이다.

2) 어머니의 갈옷에 얹힌 추억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1년 전 여름 1998년 8월 10일. 우리 집에서 갈옷을 만들었다. 남성 것은 갈적삼에 갈중이, 여성용은 갈적삼에 갈굴중이었다. 바느질부터 배래기까지 열흘쯤 걸렸다. 그 때 어머니는 편찮으셨지만, 내가 어머니의 재간(才幹)을 익히고 물려받고 싶은 욕심에 부탁드려 시작된 것이다.

바느질은 어머니는 재봉틀로, 나는 손바느질로 했다. 옷감은 시중에 파는 광목(廣木)으로 하였다. 그런데 어머니가 만드신 옷들은 어딘가 웅색한 느낌이 들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용 갈적삼이 더 그랬다. 길이는 짧고 소매통도 좁은데, 품도 여유가 없었다. 어머니 작품을 잔뜩 기대했는데 뭔가 상상 밖이었다. 어머니께 옷감을 아꼈다고 투덜댔다. 나는 유물정리와 출토현장에 민속조사까지 많이 해서 제법 이 정도는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게다가 누구보다도 큰 스승으로 존경하는 어머니 곁에서 많은 것을 보고 배우고 익혀서 그런대로 자신과 긍지도 컸었다.

어머니 답변은 “갈옷은 노동복이기 때문에 넓거나 크면 걸리적거려서 불편했고, 또 이전에는 옷감이 귀해서 이렇게 만들어 입었다”는 것이다. 그 말씀에 갑자기 갈옷의 민낯들, 한 올타리 안에서 산 두 세대가 다르게 만들 수밖에 없는 이유 등, 그제야 제주 갈옷의 본색을 제대로 깨닫게 되었다. 한 치도 낭비하지 않고 한 올까지도 소중했던 시절, 조녕(節約) 정신이 땀 그 명작(名作)의 속내를 알아내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어머니가 만드신 적삼은 당신이 한창 일하던 시절 일꾼 옷, 제주 노동복이었던 것이다. 나는 갈적삼 아닌 일반 적삼을 만든 셈이니 그리 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다. 내가 어렸을 때 특히 가난하고 늙은 할머니들의 등판 허리 잔등이에 가로로 띠처럼 까맣게 탄 것을 본 일이 있다. “준 등띠”라고 했다. 속옷 없이 길이가 짧은 갈적삼만 입고 일하기 때문에 드러난 허리 부분만 햇볕에 타서 검게 그을린 자국이었다. 얼마나 따갑고 아리고 가려우셨겠는가?

3) 재생(再生) 재활용거리 갈옷

갈옷은 실용, 위생, 경제, 재생, 재활용, 친환경 등 효용 가치가 탁월한 옷이다. 그중에서도 입던 옷이 낡으면 다시 감물을 물들여서 배래 입었다. 이 옷들이 낡으면 재활용거리로, 또는 살림살이 도구들을 재생시키는 보수용으로, 마지막엔 아궁이 불쏘시개로 끝났다. 갈옷은 마지막까지 천연무공해자원으로 마감되었다.

(1) 초생아 첫 싸개 : 아버지 갈증이

아버지가 입다가 낡은 갈증이는 재활용거리로 초생아의 몸을 싸는 첫 싸개로 쓰였다. 아기 배꼽 정리를 마치면 갈증이를 바닥에 펴놓고 아기 머리를 갈증이 가랑이 밑 사이에 눕힌 다음 두 가랑이로 몸을 엮갈려 덮고 싼다. 다음으로 아기 발 쪽에 있는 허리말기는 아래서 위로 올려 덮고 감싸면 몸과 자세를 바르게 하면서 어깨에 바람도 들지 않는 완벽한 싸개이자 옷이 되었다.

제주에서 초생아의 목욕은 3일 만에 시켰다. 물이 귀하고 산모의 산(産) 처리나 산바라지는 물론이고, 아기만을 돌볼 여가가 없었기 때문이다. 부드럽게 갈색으로 변한 낡은 갈옷은 아기의 연한 살갗에 닿았을 때 상큼하면서도 부드러운 촉감이라 잘 맞으며, 목욕을 시키지 않은 채 피와 자궁 안의 오물이 엉킨 아기(“핏덩이”이라 했다)를 싸두기에는 안성맞춤이었다.

초생아 싸개는 물론 특히 남아(男兒)에게 사용되는 물건들은 철저히 남성 것으로만 했다. 남존여비 사상으로 여자는 반쪽짜리이기 때문이라 했다. 특히 갈증이는 생후 첫피복거리이므로 더 각별했다.

(2) 헌 갈옷 일상복 재생 : 감물

감물들이기는 낡은 옷을 살리는 재생의 연금술이기도 했다. 갈옷은 여름이면 해마다 거르지 않고 새 옷을 장만했다. 일 년쯤 입으면 색은 칙칙해지고, 촉감이나 강도도 뻣뻣하고 상큼했던 것이 후줄근해진다. 이 낡은 옷은 새 옷에 감물을 들이고 낡은 감찌꺼기에 다시 물을 부어 걸쭉한 감물을 만들고 주물러서 바래면 색이나 강도가 좋아져서 다시 입을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말부터 입기 시작한 몸빼는 해방과 전쟁으로 삶이 어려웠던 시절 노동과 일상복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물을 들여서 갈몸빼로, 입다가 낡은 삼베나 모시옷 특히 적삼이나 고의(袴衣) 치마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모든 서양복에도 응용된다. 운동복에서부터 런닝셔츠 등 메리야스 제품, 와이셔츠, 향토예비군복 등 입다가 낡은 면(綿) 류는 모두 감물로 재생되었다.

(3) 무공해자원

입다가 낡은 것 중에서 성한 갈옷으로는 아기 첫 싸개를 시작으로 아기 포대기나 지성귀(기저귀)로 제일 많이 이용되었다. 바구니나 명석 가재도구 등 오래 써서 낡은 것들이나 특히 가장자리[邊]는 조금 더 성한 부분을 오래내어 보수하였다. 짐을 짊어지는 질빵이나 가는 끈 거리로 발라내어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낡아 더 효용가치가 없는 것은 청소걸레로 썼다. 낡은 것은 색이 흐려지고 탁하게 변했지만 더러움이 덜 타 보이고 까슬하면서도 부드러워서 걸레로 쓰기에 매우 합리적이었다.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궁이 불쏘시개로 마감했다. 갈옷은 완벽하고 확실한 최상의 재활용 무공해자원이었다.

갈옷 → 첫 싸개 → 포대기, 지성귀 → 보수, 끈거리 → 청소걸레 → 불쏘시개

4) 상쾌한 촉감 : 위생, 경제, 실용성

갈옷은 일하기에는 어떤 날 어디서 입어도 편하고 만만한 옷이다. 새 옷일 때는 풀을 세게 먹인 옷처럼 뽀뽀하여 살이 닿는 목이나 겨드랑이 쪽은 까칠하다. 그러나 몇 번 입고 빨면 살가워진다. 느낌은 차츰 약해지지만 낡아도 유지된다.

비나 땀에 젖어도 살에 달라붙지 않고 촉감이 좋다. 땀이나 비에 젖은 옷을 빨지 못하고 두어도 썩지 않으며 나쁜 냄새도 덜 난다. 보리까끄라기나 오물도 잘 묻지 않는다. 오물이 덜 묻으니 매일 입고 일해도 한 벌이면 2~3년 정도 견딘다. 쇠파리나 모기 같은 독충의 피해도 덜하다. 더운 여름 일하고 집으로 돌아올 때 냇가나 마을에 있는 물구덩이에서 목욕을 하였다. 갈옷을 입은 채로 물에 들어가서 몸을 씻고, 옷은 비누 없이 대충 주물러서 빨아 입었다. 비누는 귀하기도 하였으나 옷에 더러움 등 오염물이 다른 옷에 비해 덜 묻고 묻어도 눈에 잘 띄지 않으며 베인 땀이나 오염이 물에 잘 빠지기 때문에 덜 써도 되었다.

갈굴중이는 굴중이에 감물을 들인 것이다. 굴중이는 단속곳으로 조선시대 여성용 속옷 중 한 가지이며 지금의 팬티나 속치마와 같은 것이다. 옷감은 많이 들지만, 가랑이가 넓고 커서 발일을 할 때나 앉아있을 때 편하다. 대소변을 볼 때는 허리를 내리지 않고 넓은 부리 한쪽을 걷어 올렸다. 갈굴중이의 넓은 부리는 일할 때 간편하게 무릎 아래 독대님(끈)으로 졸라맸다.

한편 갈몸빼는 옷감이 적게 들어 경제적이고, 허리와 부리에 주름을 잡거나 고무줄을 넣어서 입고 벗거나 활동하기에 간편하다. 해방 후 1950년대부터 산업화과정에 들어서면서 일반여성들도 일거리가 많아지자 몸빼를 여러 가지 옷감이나 색으로 만들어 입기 시작하였다.

5) 기능성 변화

갈옷은 차츰 노동복으로서의 기능과 시대성이 반영되면서 변하기 시작한다. 크기는 다른 옷에 비해 몸에 맞게, 부속도 간편하게 처리되기 시작한다. 갈적삼은 길 소매 깃 동정 옷고름으로 구성된다. 옷고름은 매듭(들마귀) 단추로 달았다. 옷의 크기나 모양은 시대에 따라 남성 것으 큰 변화가 없으나, 여성 것은 1900년대 후반부터 달라진다.

여성 갈적삼은 1900년대 중반까지 등길이가 짧아서 허리가 노출되고 목은 깃이 감싸므로 답답했다. 단추는 앞여밈으로 하나만 달기 때문에 일 할 때는 앞이 벌어져서 불편했다. 남성 갈중이는 대님이나 허리끈 등 부품들은 짧고 가늘게 만들거나 특별히 따로 마련하지 않고 다른 끈을 쓰거나 없으면 새끼줄을 이용하기도 했다. 옷감이 귀하니 아껴야 했고 또한 간편해야 했기 때문이다. 차츰 길이를 짧게 잡아 부리에 끈 사용을 하지 않게 된다.

1960년대 이후 사회활동이 바뀌면서 마고자가 이용된다. 마고자는 감물을 들인 노동복 갈옷과, 색이나 옷감을 달리한 외출용이 같이 유행한다. 특히 남성용 외출복에는 포켓을 단 것이 특징이다.

제주 사람들은 아버지의 갈중이로 만든 포대기에 싸여 세상 삶이 시작되고, 커서는 죽을 때까지 갈옷을 벗지 못했다. 특히 여성들은 ‘먹씰일’(慶弔事) 즉, 먹고 돈과 시간 쓰는 일이나 먼 이웃에 방문할 때도 겉에는 외출복을, 안에는 갈옷을 입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위에 갈적삼, 아래는 갈굴중이에 겉에는 미녕치매(무명치마) 하나를 덧입었다. 일터에 가서 일할 땐 겉치마만 벗으

면 된다. 또 집으로 올 때 물을 길고 올 물허벅을 지기도 했다. 일거리는 많은데 시간이 없으므로 방문처에서 일터로 바로 가야 했기 때문이다. .

3. 1900년대 중후반 갈옷 실태

복식사(服飾史) 분야 연구는 1960년대만 해도 주로 유물과 문헌자료 중심이었다. 특정 지역의 민속의생활사에 관한 현장연구는 매우 드물었다. 나는 변화하고 사라져가는 민속 현장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가치 있고 중요하다고 여겼다. 제주도는 특히 관련 문헌이나 유물 등의 자료가 드물고 귀하었으므로 민속학적 접근으로 현장연구를 택하였다.

1) 1960년대 후반 : 제주 민속의생활 연구 시작

1963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경상남도 산청, 통영에서 근무하면서 그곳에서의 의생활상은 제주와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다. 1968년부터 1971년 11월 석사학위논문 준비하면서 제주도 의생활 연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다.

1971년에는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주관 제주도 지방의 민속종합조사 의식주 분야에(『韓國民俗綜合調査報告書』濟州道篇, 1974.12.), 1973년에는 제주도 주관 제주도문화재 및 유적종합조사에 참여했다(『濟州道文化財及遺蹟綜合調査報告書』, 濟州道, 1973).

그 후 제주도 현지조사는 박사학위 논문(『濟州島 衣生活의 民俗學的 研究』 1994. 12월.) 등을 쓰면서 계속 이어졌다. 1968년부터 1994년까지 26년 동안 제주도 민속의생활사 연구의 자료를 제공해 준 면담자들은 1886년생부터 1943년생까지 제주시 36명, 북제주군 34명, 남제주군 54명으로 총 124명이다.

2) 1970년대 : 개량한복, 재활용 갈옷 등장

갈옷은 1970년대까지도 시골에서 일하는 노인들이 입은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보릿고개를 넘기면서 차츰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성용으로 위(上衣)는 개량한복이, 아래(下衣)는 갈몸빼가 주류를 이루면서 이어간다. 한편 남성들은 입다가 낡은 와이셔츠나 체육복, 향토예비군복 등 주로 면(綿)류로 만든 것들에 감물을 들인 재활용 갈옷이 노동복으로 대체되기 시작한다.

3) 1980~90년대 : 다시 살아나는 갈옷

1980년대는 환경과 향토성을 살리면서 내 것을 찾고 이어가기에 눈을 뜨기 시작한다. 1995년 8월 2일 여름방학 때 오일시장에서 “갈옷을 판다”하여 찾아갔다. 제주시 사라봉 근처였다. 기대를 걸었던 옛 갈옷은 아니었지만, 감물 염색한 옷들이 눈에 띄었다. 갈적삼은 남녀 것들 모두 거의 다 개량한복으로 변했으나, 남자 아래옷인 갈중이는 그런대로 옛날 모습이었다.

이 중에서 갈중이가 맘에 들었다. 현장에서 갈중이 안을 살펴보니 감쭈시가 붙어 있었다. 고맙고 반가움에 옛것을 상상하면서 믿고 샀다. 한여름 무더위에 아래 잠옷거리로, 또 연구자료로 활

용할 만하다는 생각에서였다. 집에 와서 물에 넣고 빠는데 붉은 물이 나오고, 촉감도 무명을 만지던 맛과는 달랐다. 후에 알게 된 일이지만 당시 작업복으로 화학섬유인 데드론에 염색한 옷이 인기였고, 감쭈시는 속임수(僞裝)로 문혀놓은 것이었다. 상상 이외의 일이었다.

1980년대는 그런대로 옛것 잇기에서, 90년대는 산업화 공업화하면서 실용과 간편함이 요구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화학섬유로 된 서양식 작업복에 옛 갈옷의 정통을 모방하여 감물을 이용한 새 얼굴로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4) 1990년대 : 재활용 갈옷 지속, 문화상품 새 갈옷 등장

1990년대도 1970년대부터 시작된 낡은 와이셔츠나 체육복, 향토예비군복 등에 감물을 들인 재활용 갈옷들이 계속 쓰인다. 또한 감물염 옷들이 생활한복 형태로 상품화하여 보급되면서 안정기에 접어든다.

1990년대 후반부터 친환경, 웰빙, 환경지킴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 시작하면서 갈옷류가 제주의 상징상품으로 부각된다. 이때 천연(자연)염색 연구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단체나 개인 여러 곳에서 강습 또는 체험활동을 통해 각기 취향에 맞는 새로운 갈옷과 문화상품들을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4. 2000년대 새롭게 주목되는 갈옷

환경과 건강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자연친화적인 갈옷의 우수성과 필요성을 자각하기 시작한다. 국가에서도 갈옷의 전승 보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이 시작된다.

1) 전통기능전승자 선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전통기능의 보존과 계승 발전을 위해 전통기능전승자를 지원하는 사업이 실시되었다. 1차년도 사업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 31개 종목, 2차년도에는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년간 28개 종목이 선정되었다.

갈옷만들기는 2차년도 사업이었다. 갈옷 전반에 대한 현장 실사(實事)에 의해 2001년 감물염 기능전승자로 이인선(1932년생. 서귀포시 강정동), 계승자로는 오운자와 송연심이 지정되었다(『우리의 슬기와 기능 이렇게 이어간다』 한국산업인력공단 .2006.2.). 이로써 감물염은 염색분야로 전국에서 쪽염과 함께 두 번째로 선정된 것이다.

2) 제주10대문화상징 선정

제주도는 제주 및 제주문화를 형성하는 문화적 원형질을 드러낼 수 있는 자연, 역사, 사회생활, 신앙·언어·예술분야별로 선정된 99대 문화상징물 중 제주문화의 핵심집약체로 10대 문화상징을 선정한다. 그 중에서 제주도 갈옷이 ‘사회 및 생활유산분야’에서 ‘풋감즙을 들인 노동복으로 제주인의 생활의 지혜가 엿보이는 복식유산’으로 선정되었다.(『제주민속사전』 갈옷)

3) 2023년 현재 학술연구 및 현황

염색에 대한 연구논문이나 연구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감물염색과 직물과의 관계, 응용분야, 염색기법, 신체에 미치는 영향 등 다각적인 방향의 연구가 심도 있게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결과는 학위논문으로 1970년대를 시작으로 석·박사 합 40여 편, 일반 학술지에도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130여 편에 달하고 있다.

5. 2023년 현재 갈옷이 나아가야 할 방향

이제는 갈옷의 정체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정비할 때다. 갈옷이 가진 특성인 내구·방오·방수·발수·항균·경제·친환경성 등 갈옷의 탁월한 장점을 알리고, 가치를 올바르게 계승 발전시켜 각광 받는 영원한 유산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일들은 도민과 단체, 전문가, 행정기관 등이 상호협력하고 이끌어가야 할 과제이다.

이에 제주 갈옷이 미래무형유산으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지향해야 할 세 가지 과제와 방향을 제안해본다.

1) 도민의 인식 고취 및 체험 기회 확산

(1) 도민들을 위한 무료강좌 개설

- 갈옷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안목을 키우고,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기회의 장 마련
- 위장물 상품개발 막기 등 교육

(2) 상설체험관 운영

- 도민 스스로 쉽게 접근하고 체험하며 배울 수 있는 기관 운영

(3) 지역, 사회단체 연계 강화

- 교육기관, 마을 단체 등 찾아가는 체험교육 강화(교육전문가 활용)

2) 인재양성

(1) 전문가 양성

- 전통갈옷 경험자 발굴과 함께 전승교육 실시

(2) 도 차원의 관리부서 조직

- 감물염색과 갈옷 만들기 체험, 감물염색천을 활용한 제품만들기 등을 지도할 수 있는 교육전문가집단을 체계적으로 모집 관리

(3) 교육기관 내 갈옷 관련 특화교육의 장소 설치 및 운영

- 전통 체험의 기회 제공
- 특별활동과 체험학습의 날 : 감물들이기 및 작품만들기 등을 할 수 있도록 연중 계획 수립 시행

- 일인일기(一人一技) 교육을 제도적으로 추진
- 최근 중국에서 '경극(京劇)'을 초등학교 필수과목으로 넣은 예는 좋은 본보기임.

3) 정책수립 및 행정지원

(1) 전시관 및 상설체험교육관 건립 운영

- 갈옷, 염색제품 등 감물 관련 자료를 전시
- 갈옷 만들기, 감물 들이기, 갈옷 입어보기, 감물천 소품 만들기, 체험담 발표정리 등 배움의 장으로 활용

(2) 관광달력 제작 및 배포

- 갈옷 관련 행사 안내 및 홍보

(3) 학술발표 개최 및 지원

- 갈옷과 감염 등 다양한 연구 활동비 지원

(4) 감나무 가로수길 조성 및 감동산 만들기

- 감물 실습자원 확충, 가로수길 조성을 통한 관광효과 기대, 목가구 등 목공예자료 활용

(5) 관광사업 연계

- 감물염색옷감으로 이불 방석 베개 등 침구류와 잠옷 등을 만들어 관광업소 및 병원 등에 보급
- 감물염색천의 우수성 홍보 효과 탁월

6. 나가는 말

1950년대 전후까지도 남아있던 제주 전통입성 양식들은 지금은 찾아볼 수 없다. 더구나 제주 농·산·어촌 생업인들의 노동복이자 일상복이었던 정통(正統)갈옷은 1970년대를 하한으로 거의 사라졌다.

1970년대에는 개량복 재활용 감물 옷이 등장하고, 1980~90년대에는 옷감과 감물 이용 방법이 변하면서 새로운 갈옷류가 나온다. 화학섬유와 혼합천연염색재들을 사용한 변형된 상품들이 등장하여 널리 보급되었다.

2000년대에는 국가 차원에서 전통기능지원자 선정, 제주10대문화상징 선정 등 갈옷 관련 지원 사업이 이루어졌다. 요즘에는 옷 외에 모자, 가방, 신발, 지갑 등 감물염색 일상용품에서부터 장식거리까지 다양한 관광상품으로 각광 받고 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병과 재해(災害) 공해(公害) 등 심각한 문제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건강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천연감물염색에 대한 가치를 재인식하게 되었다.

갈옷은 건강한 삶을 추구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가장 알맞은 옷이다. 노동복으로, 일상복으로 활용하기에도 그 어느 옷보다 탁월하다. 또한 감물염은 다양한 생활용품이나 실내장치물에도 무한한 무공해자원으로 활용성을 가진 자원이다. 제 명(命)이 다할 때까지 새 시대 새 사람과 지구

를 지켜갈 무공해 노동복 갈옷의 바른 행적과 바른 쓰임은 물론 정통으로 바로 이어가야 한다.

갈옷은 제주 사람의 한(恨)이 서린 옷이자, 자존심이며 긍지이다. 또한 제주 사람과 제주의 감[栴], 제주의 물, 제주의 태양, 거기에 한더위 피약별 아래서 고달픈 삶의 품을 판 댓가(對價)로 하늘이 제주 사람에게 내린 최적(最適)의 선물이다. 이제는 갈옷을 제주의 살길과 후손에게 물려줄 영원무궁한 유산으로 계승발전시켜 나아가는 데 정성과 온 힘을 모아야 한다.

서양 광부의 노동복이었던 ‘진(jean)’은 1970년대 이후 세계가 ‘진 패션’의 절정을 이루었고, 아직도 그 기세가 대단하다. 그러나 그 염액은 공해거리인 화학염료이다. 제주 갈옷, 이에 대적해 볼 만하지 않은가?

■ 주제 발표

제1부 제주 갈옷의 전승양상과 문화유산적 가치

(좌장: 현승환 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홍희숙(제주대학교 교수)
- 제주 갈옷에 담긴 제주인의 전승지식-구술자료를 중심으로
김순자(제주학연구센터장)
-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허복구(한국천연염색박물관 운영국장)
-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
고광민(제주섬문화연구소 선임연구원)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홍 희 숙 (제주대학교 교수)

I. 제주 갈옷의 정의와 연구 개요

갈옷은 감물염색한 옷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제주 갈옷은 제주지역에서 생산된 감을 원료로 이용하여 감물들인 옷으로 정의한다. 제주 갈옷은 크게 전통적인 갈옷과 현대적인 갈옷으로 분류될 수 있다. 전통 갈옷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자급자족으로 감물들여 입었던 옷으로 한국복식에 기본 토대를 두고 있다. 현대 갈옷은 서양복식 형태에 기본 토대를 둔 감물들인 옷을 말하며 상품화된 갈옷과 스스로 만들어 입는 갈옷 모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갈옷의 역사를 일제강점기까지에 제한하여 고찰하였으며, 해방 이후부터 2000년 이후까지의 제주 갈옷의 특성은 제주 갈옷의 변천 양상 부분에서 다루었다.

현재까지는 제주 갈옷의 기원과 역사는 물론 갈옷의 변천 양상을 정리한 문헌이나 논문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히 밝힐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또한 매우 부족하다. 제주 갈옷의 역사는 제주에서 감물들인 옷이 입혀졌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시하였으며, 확보된 자료 내에서 감물들인 옷의 종류와 형태 및 감물들이기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제주 갈옷의 변천 양상 또한 이러한 점들에 초점을 맞추면서 이전 연대와 다른 특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이를 위하여 첫째, 고문헌, 한시, 서적, 논문, 정기간행물 등의 문헌을 검토하였다. 특히, 제주를 방문하였던 행정관리자, 학자, 유배인 등이 작성한 고문헌과 한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제주에 관해 기록한 다양한 문헌들을 검토하였다. 제주의 갈옷이나 감물염색과 연관 가능성이 있는 한국복식, 제주 갈옷과의 관련성이 추측된 몽고복식과 아시아 민속복식 연구들 또한 검토하였다.

둘째, 1920년 이후 조선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경향신문, 제주일보, 제주환경일보, 미디어 제주 등에 게재된 기사와 글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감물염색을 표현하는 한글과 한자의 표기(시염, 시자염, 시삽염, 시칠, 柿染, 柿子染, 柿澁染, 柿汁 등), 갈옷의 명칭(갈옷, 갈적삼, 갈중이, 갈굴중이, 갈몸빼 등), 기존 연구들에서 갈옷으로 해석된 ‘갈의’와 관련한 한글과 한자 표기(갈, 갈의, 단갈, 褐, 葛衣, 褐衣, 短褐 등)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셋째, 제주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촬영한 사진들을 검토하였다. 특히, 시대별 갈옷 형태나 갈옷 차림새는 사진집 서문이나 사진 설명에 표기된 촬영 연대에 근거하였다. 자료의 구체적인 출처는 본문에 표기하였다.

II. 제주 갈옷의 역사

1. 제주 갈옷의 기원과 용어의 구분

1) 제주 ‘갈옷’에 대한 전설과 추측

제주 ‘갈옷’의 기원이나 감물염색이 시작된 시기는 명확하지 않다. 우리나라 남국의 세시풍속을 소개하는 저서에는 약 700여년 전에 고기잡이 할아버지가 낚시줄이 자주 끊어짐에 낚시 줄에 감물을 들였더니 낚시줄이 더 질겨지고 고기는 더 잘 잡혔다는 하나의 전설이 등장한다.¹⁾ 조선시대²⁾와 1935년 일제강점기³⁾에 어망이나 그물을 감물(澁柿)을 들였고, 특정한 물건, 선박, 건축물에 감물을 칠하면 내구성이 높아진다는 시칠(柿漆)에 관한 기록이 있다.⁴⁾ 그러나 낚시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 약 700년전인 13세기 전부터 행해졌음을 뒷받침하거나 이 시기부터 옷에 감물을 들였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아직까지 발견되고 있지 못하다.

제주 고씨 가문의 역사와 탐라 시대의 풍속이 서술된 『탐라성주유사(耽羅星州遺事)』에는 제주를 약 100년 동안 지배하고 원나라를 멸망시킨 명나라 태조가 원나라 정권을 지원하며 끝까지 저항했던 운남국의 왕족과 그 일가를 고려시대에 제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있다.⁵⁾ 그리고 이 문헌에는 갈옷이 이들이 제주로 이주하던 고려시대(1382년 우왕 8년, 1392년 공양왕 4년)에 원나라 풍속과 함께 제주에 전해졌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내용이 있다. 김태능이 저술한 『제주도사논고』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이 하나의 추측으로 서술되어 있다⁶⁾. 그러나 역사학계나 복식학계 모두에서 ‘갈옷’이 몽고 풍속과 함께 제주에 전래되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하는 논문이나 자료들은 관찰되지 않는다. 제주도 복식을 민속학적 관점에서 연구한 고부자도 갈옷이 몽고의 풍속이 전해진 것이라는 데 대해 그 근거가 애매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⁷⁾. 『탐라성주유사』에서 언급한 운남성(雲南省) 지역의 묘족(苗族)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통문화와 전통복식을 잘 이어오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민속복식을 연구한 의류학자들의 논문들에서도⁸⁾ 감물염색이 언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감즙으로 칠한다’ 혹은 ‘감을 파쇄한 감즙에 담근다’라는 의미의 시칠(柿漆)에 관한 기록이 묘족뿐만 아니라 중국 명나라 시대 말기(1596년)에 저술된 본초강목

1) 진성기(1969),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민속문화연구소.

2) 崔漢綺 著, 高麗書國역총서 11 『農政會要 II』 卷10 農餘 柿, 농촌진흥청, 2006, 원문 471~473쪽.

3) 성인기, 조선일보 1935년 8월 16일

4) 동아일보 1936년 9월 16일

5)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1979), 『탐라성주유사』, 제주:고씨종문화총본부, p. 125

6) 김태능(1982), 『제주도사논고』, 세기문화사, p. 42.

7) 고부자(1979),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관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 44.

8) 손경자(1990),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복식의 양식 비교를 중심으로-, 복식, 14, 21-39.

손경자(1991), 한국, 몽고복식의 상관성 연구(II)-고려시대의 몽고 침략기를 중심으로-, 복식, 16, 15-42.

박춘순(2001), 중국 남, 북방 소수민족 복식의 비교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1-10.

박춘순(2001), 중국묘족 복식의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4(1), 11-21.

소황옥(2002), 한·몽 복식문화의 비교 연구, 비교민속학, 22, 91-132.

박춘순, 임영주(2003), 흉노의 복식문화 소고, 중국사연구, 25, 205-221.

김일우(2003), 고려 후기 제주, 몽골의 만남과 제주사회의 변화, 한국사학보, 45-74.

배숙희(2012), 元末・明初의 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동양사학연구, 119, 197-226.

서봉하(2010), 중국 운남성 소수민족 복식의 현대화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디자인학회지, 10(2), 19-31.

(本草綱目)에서 다수 찾아볼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⁹⁾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이것이 옷에 감물 들어는 문화나 제주의 감물들이기와 어떻게 관련되어지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아직은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갈옷의 기원이나 유래는 향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갈옷이 ‘감물을 들인 옷’이라는 점에 초점을 맞추고, 출처가 명확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제주 갈옷의 역사에 대해 고찰하였다.

1382년(禡王 8) 명태조(明太祖)는 전원(前元)의 제후국(諸侯王)인 운남국(雲南國)을 평정하고 양왕(梁王)의 태자인 백백태자(伯伯太子)와 그의 아들 육십노(六十奴) 등 권속들을 탐라에 이주(移住)시켰다. 또한 1392년(恭讓王 4)에도 양왕(梁王)의 자손인 애안첨목아(愛顔帖木兒)와 그 가족을 먼저 이주한 왕족(王族)들과 함께 거주(居住)케 하였으니, 백백태자는 이조 태종초(太宗初)에 적거(謫居)에서 죽었다. 이러한 전원(前元)의 상류사회(上流社會) 인물들이 제주에 우거(寓居) 또는 영주(永住) 하므로써 그들의 문화와 풍속(風俗)이 전래(傳來) 되었으며 특히 감물(槲汁)을 무명에 들여 만든 「갈옷」도 이때부터 전해진 것이라 한다.

- 탐라성주유사 편찬위원회(1979), 『탐라성주유사』

우왕(禡王) 8년에는 명군(明軍)에 의해 정복(征服)된 전원(前元)의 제후왕(諸侯王)인 운남양왕(雲南梁王)의 태자(太子)와 그의 자(子) 육십노(六十奴)를 명태조(明太祖)가 제주(濟州)에 보내어 이곳에 안치(安置)하였고 또 공양왕(恭讓王) 4년에도 양왕(梁王)의 손자(孫子) 4인(人)을 탐라(耽羅)에 이천(移遷)하여 백백태자(伯伯太子)와 더불어 친족(親族)끼리 서로 완취거래(完聚去來)하게 하였다. 육십노는 공양왕 3년에 제주에서 죽었고 백백태자는 이조태종초(李朝太宗初)에 역시(亦是) 제주에서 적사(謫死)하였다. 이 운남인(雲南人)들은 양왕의 자손들 이외에도 화자(火者)와 복니(卜尼)를 비롯한 많은 종자(從子)들이 따라와서 있었으므로 제주에 비로소 묘족(苗族)이 살기 시작했던 것이며 이들이 풍속(風俗)인 갈옷(감물들인 갈색 옷)도 제주에 전해진 듯하다.

- 김태능(1982), 『濟州島史論攷』

사리때가 지나고 조금이 되어민어가 잘 잡히지않는 때나 폭풍이 심한 때에는 배를 포구에 대고 그물에 다 감물(澁槲(삼시))을 들이여 돛대에 거러노코 언덕우해 꺾딱지카티 막을 치는 술집문을 두다리여 열근히 몇잔먹어 땃뱃분틈을 타서 소처올르는 『흙씩』을 위안한다.¹⁰⁾

- 성인기, 조선일보 1935년 8월 16일

2) 갈옷과 갈의의 용어 구분

한자로 표기된 ‘갈의(葛衣, 褐衣)’를 감물염색한 ‘갈옷’과 동일한 것으로 해석하거나 갈옷의 역사를 이와 연관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갈옷의 역사를 규명하기에 앞서 ‘갈옷’과 ‘갈의(葛衣, 褐衣)’의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컨대, 조선시대 제주의 사회상, 경제 상황, 풍속, 자연환경을 기록한 문헌들 중 조선 중기(선조 34년, 1601년)에 안무어사로 제주를 방문하고 6개월 동안의 일상을 기록한 『남사록(南槎錄)』에는 최부(崔溥)의 35절(崔溥詩三十五絶) 한시가 실려 있다.¹¹⁾ 35절 한시는 최부(崔溥)가 추쇄경차관(推刷敬差官)으로 제주에 1487년(성종 18년)

9) 허복구, 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세오와 이재, 2013.

10) 성인기, 조선일보 1935년 8월 16일

11월에 도착하여 3개월 동안 머무르면서 경험한 제주의 역사와 풍물을 압축한 대서사시로 이 시에 “革帶芒鞋葛織衣(혁대망혜갈직의)”란 문구가 있다. 그런데 일부 연구자는 이 문장에 제시된 ‘葛織衣(갈직의)’를 갈옷이라고 지칭하는 한편 “감잎을 물들여 지은 옷”이라고 설명함으로써 ‘갈의(葛衣)’와 감물염색한 ‘갈옷’을 혼동하여 제시하고 있다.¹²⁾ 이 문장에 나타난 ‘葛織衣(갈직의)’는 ‘침으로 짠 베옷’을 뜻하는 것으로 감물염색한 ‘갈옷’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갈(葛)’은 ‘침 갈’ 혹은 ‘침으로 짠 베 갈’을 의미하는 한자이다. 침을 캐어 그것으로 베를 짠다는 것은 중국의 주(周)나라 초기부터 춘추시대(春秋時代) 초기까지 황하 중류지방에서 전해지는 민요를 정리하여 305편의 시를 수록하고 있는 시경(詩經)의 기록에서 엿볼 수 있다. 시경의 국풍 1권 주남(周南)에는 “침덩굴 뺨어, 골짜기로 뺨어가네, 잎들이 뽁뽁하여라, 베어내고 삶아내어, 가는 베 굵은 베 만드네, 옷 입고 좋아하네”라는 뜻의 “葛之覃兮，施于中谷(갈지담혜, 이우중곡)，維葉莫莫，是刈是濩(유엽막막, 시예시호)，爲絺爲綌，服之無斁.(위치위격, 복지무역)”¹³⁾이란 문구가 있다. 이러한 문장들을 통해 ‘갈(葛)’이 사용된 용례를 볼 때 ‘갈의(葛衣)’는 침으로 짠 굵은 베옷을 의미한다. 조선후기 실학자인 최한기가 1830년경에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저술한 『농정회요』 2권에도 침(葛)은 야생인 것도 있고 집에서 가꾸는 것도 있는데 봄에 싹이 나오면 덩굴이 1-2길이나 뻗어 나가고 색상은 자주색이며 수확한 다음에는 다듬어서 고운 갈포(絺)¹⁴⁾나 거친 갈포(綌)¹⁵⁾를 만들 수 있다는 기록이 있다.¹⁶⁾ 따라서 ‘갈의(葛衣)’는 침덩굴을 다듬어서 만든 실로 짠 갈포(葛布)를 이용해서 만든 옷으로¹⁷⁾ 중국의 춘추시대 이전부터 등장했고, 한국의 조선시대에도 이용되었던 옷인 ‘침으로 짠 베옷’을 뜻한다.

한편, ‘갈(褐)’은 ‘갈색 갈’ ‘베옷 갈’ ‘굵은 베 갈’ ‘털옷 갈’을 일컫는 한자이며, ‘갈의(褐衣)’는 ‘갈색 옷’ ‘굵은 베로 짠 옷’ ‘모직물의 털옷’을 의미한다. 중국의 당나라 역사와 함께 주변국에 대해 기록한 구당서(舊唐書)의 동이열전(東夷列傳)에 나와 있는 고구려(高句麗) 부분에서 “國人衣褐戴弁(국민의갈대변), 婦人首加巾幘(부인수가수귀)”¹⁸⁾ 문장이 관찰된다. 신당서(新唐書)의 동이열전에서도 고구려 사람에 대해 기록한 “庶人衣褐(자인의갈), 戴弁(대변), 女子首巾幘(여자수가수귀)”¹⁹⁾ 문장을 찾아볼 수 있다. 여기서 ‘갈(褐)’은 “굵은 베로 만든 옷”을 해석되며²⁰⁾ 감물들인 바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褐衣(갈의)’를 ‘감옷’ 즉 감물들인 갈옷의 전신이라고 보는 학자도 있다²¹⁾. 신당서의 동이열전 신라(新羅) 부분에도 “男子褐袴(남자갈고), 婦長襦(부장유)”라는 문장이 있는데, ‘갈고(褐袴)’는 신라의 일반적인 여성 복식과 대비시킨 남성 복식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신라 백성이 일반적으로 착용하는 ‘굵은 베(褐)’로 만든 남자 바지를

11) 김상헌 저, 김화동 역저, 『남사록, 영가문화사』, 1992.

12) 임준성(2010). 최부의 탐라시 35절 연구, 도서문화, 36, 345-369.

13) 시경의 > 국풍 > 1권 주남(周南)

14) 고운 갈포(絺)-참배 치

15) 거친 갈포(綌)-참배 격

16) 崔漢綺 著, 高麗書國譯叢書 11 『農政會要 II』 卷10 農餘 栴, 농촌진흥청, 2006, 원문 471-473.

17) 이규태, 조선일보 1993년 3월 18일

이규태(1991), 재미있는 우리의 옷이야기, 서울: 기린원.

18) 구당서 > 고구려

19) 신당서 > 고구려

2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21) 김인호(1997), 『한국 제주 역사 문화 뿌리학(상)』, 서울: 우진출판사

의미하는 것으로²²⁾ 감물들인 바지를 의미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갈(褐)’을 ‘베 옷’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조선시대의 제주에 대해 설명하는 『南溟小乘(남명소승)』 문헌에서도 관찰된다.²³⁾ 『남명소승』은 임제(林悌)가 조선시대(선조 10년) 1577년 11월 제주 목사인 부친을 방문하여 4개월 동안 제주에 거주하는 동안 제주의 지리, 기후, 역사, 경승, 풍속, 언어, 물산에 대해 기록한 것이다. 이 저서에서 제주목사의 질문에 노인이 “베옷 한 벌과 가죽 옷 한 벌로 여기서 삼사십년 살아 왔답니다”²⁴⁾라고 응답하는 내용을 볼 수 있다. 이것은 “無營無欲(무영무욕), 一裘一褐(일구일갈자) 或三十年(혹삼십년) 或四十年於此矣(혹사십년어차)”라는 문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裘(구)’는 겨울철에 착용하는 짐승의 털가죽으로 안을 댄 가죽옷(갓옷)을 의미하는 것이고, ‘褐(갈)’은 이와 대비되는 따뜻한 계절에 입는 굵은 베 옷을 의미한다.

또한, 갈(褐)이라는 한자에는 ‘털옷 갈’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어서 토끼의 털로 만든 모포나 모직물을 토갈(兔褐)이라 일컫고, 낙타의 털로 만든 모포(毛布)를 타모갈(駝毛褐)로 표기한다. 즉褐(갈)과褐衣(갈의)는 서민들이 추위를 막기 위해 입었던 옷으로 등급의 모직물(褐)로 만든 짧은 길이의 포(袍) 형태의 의복(短衣)이다.²⁵⁾ 신라시대²⁶⁾와 고려시대²⁷⁾에는 귀족들이 고급 모직물인 ‘계(闕)’로 만든 옷을 착용한 반면 벼슬이 없는 일반 남성이나 천한 계급의 사람들(賤士)은 짐승의 털(毛布)로 제작한 하등급의 모직물인 ‘갈(褐)’이나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단의(短衣)인 ‘갈(褐)’을 착용하였다.

갈(褐)을 털옷의 의미로 사용한 사례는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풍속을 기록한 『시경(詩經)』이나 중국 송나라 역사와 주변국에 대해 기록한 『宋史(송사)』 등의 고문헌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예컨대, 시경의 국풍 15권 빈풍(邠風)에는 “동짓달에 찬바람 불고, 선달에는 매섭게 추워진다. 옷과 털옷이 없으면, 어찌 한해를 넘길까”를 의미하는 “一之日鶩發, 二之日栗烈(일지일필발, 이지일울열), 無衣無褐, 何以卒歲(무의무갈, 하이졸세)”²⁸⁾ 라는 문장이 있다. 송사(宋史)의 외국열전(外國列傳)에 나와 있는 고려(성종 11년, A.D. 992년)에 관한 내용에는 “縑袍短褐(온포단갈), 玉粒桂薪(옥립계신), 堪憂食貧(감우식빈), 若爲卒歲(아위졸세)”라는 기록이 있다.²⁹⁾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에서는 이 문장을 “솜옷과 짧은 털옷을 입고 玉粒(옥립)과 桂薪(계신)에 대한 걱정 속에 가난하게 생활하면서 유학 기간을 마칠 듯 하였습니다”라고 해석하고 있다.³⁰⁾ 여기서도 문맥상 ‘온포(縑袍)’는 솜을 넣어서 만든 두루마기 형태의 의복인 포(袍)를 뜻하고, ‘短褐(단갈)’은 낮은 등급의 모직물로 만든 길이가 짧은 털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六十年前(육십년전) 則屢被官家之驅使(직누피관가지구사) 而老除之後(이로제지후) 始得安逸(시득안일) --
饋粥之食(전죽지식) 隨歲豐歉(수세풍겸) 動息之節(동식지절) 隨日出入(수일출입) 無營無欲(무영무욕) --

22) 신당서 > 신라

23)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남명소승』, 2007

24) 제주문화원(2007), 앞의 책. 한글 번역본에는 ‘솜옷’으로 번역되어 있음. 솜옷은 기본적으로 목화를 소재를 하는 것으로 가죽옷, 털옷, 베옷과는 다른 옷임

25) 박순지, 이춘계(1994), 명칭으로 본 모직물의 발달-고대부터고려시대까지-, 복식, 21, pp. 19-30.

26) 김동욱(1971), 흥덕왕 복식 금제의 연구-신라말기 복식 재구를 중심으로-, 동양학, pp.7-48.

27) 박순지, 이춘계(1994) 앞의 논문

28) 시경 > 국풍 > 빈풍 > 7월

29) 송사 > 외국열전 > 고려 > 성종 11년, A.D. 992

30)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裘一褐者(일구일갈자) 或三十年(혹삼십년) 或四十年於此矣(혹사십년어차의)

- 임제(林梯), 『남명소승(南溟小乘)』³¹⁾

풍년 또는 흉년에 따라 밥이 되건 죽이 되건 먹으며, 해가 뜨고 지는 데 따라 나가서 일하고 들어와 쉬곤 하지요. 일을 일부러 벌이지 않고 욕심도 내지 않으며, 벼옷 한 벌과 솜옷 한 벌로 여기서 삼사 십년 살아 왔답니다.

-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濟州古記文集)』

한편, 중국 송나라 사신인 서긍이 고려(인종 1년, A.D. 1091-1153년)를 방문하여 보고 들은 내용을 기록한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서도 ‘短褐(단갈)’이란 한자가 관찰된다. 즉 고려의 사회적 신분과 풍속 및 생활용품에 대해 설명하는 19권(卷第十九 民庶)에 “短褐被體(단갈피체), 下無袴襦(하무고유)”³²⁾라는 문장이 있다. 이것은 “짧은 갈옷(褐)을 몸에 걸치지만, 아래에는 바지(袴襦)를 입지는 않는다”라고 해석되고 있다.³³⁾ 그러나 『선화봉사고려도경(宣和奉使高麗圖經)』에 고려에는 ‘모시(紵)와 삼(麻)을 스스로 심어 많은 사람들이 벼옷을 입으며’라는 내용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문장에 언급된 ‘단갈(褐)’은 앞에서 언급한 짧은 길이의 굵은 벼옷이나 하등급의 모직물 소재의 털옷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지며, 감물염색한 갈옷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요약하면, 한문으로 표기된 葛衣(갈의)는 ‘참을 캐어 삶아서 실을 뽑아 베를 짜고 그것으로 만든 짙 벼옷’을 의미한다. 한문으로 표기된 褐衣(갈의)는 의미가 중의적이어서 ‘굵은 베로 짠 벼옷’ 혹은 ‘동물의 털로 재직하여 거칠고 두꺼운 하등급의 모직물로 만든 옷을 의미하며, 동물의 털로 만들었다는 점에서 ‘털옷’으로 표현되기도 한다³⁴⁾. 褐衣(갈의)가 둘 중 어떤 뜻을 갖는지는 한문이 표기된 문맥과 배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지만 이것이 감물염색한 ‘갈옷’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감물염색한 ‘갈옷’의 역사를 ‘감(柿), 감즙(柿汁), 감물(柿水), 시염(柿染), 염색(染色), 시칠(柿漆) 등의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갈(葛, 褐)’이나 ‘갈의(葛衣, 褐衣)’라는 글자인 경우, 감물염색을 의미하는 한자들과 연결되어 사용되었는지에 관심을 두고 ‘갈옷’의 역사를 고찰하였다.

3) 감물과 감물들이기 용어와 한자 표기

제주 사람들은 감즙염색을 ‘감물들이기’고 표현한다. ‘감물’은 감에서 나오는 물을 의미한다. ‘감물’은 한자로 감나무를 의미하는 한자인 ‘시(柿)’와 과실에서 베어나오거나 짜낸 액체를 의미하는 ‘즙(汁)’을 합하여 ‘시즙(柿汁)’으로 표기한다.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 ‘감물’ 용어가 사용된 경우는 총 53건이었고, 이 중에서 감물염색과 관련된 것은 42건이었다. 한글로 ‘감물’이라고 표기된 경우도 있었지만, 한글과 한자를 함께 써서 ‘감물(柿汁)’이라고 표기하거나 ‘柿汁’이란 한자만 사용해서 표기한 경우도 있었다. 일제강점기인 1930년 동아일보에 옷에 묻은

31) 제주문화원, 『역주 제주고기문집』, 2007, 앞의 책; 괄호 안의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32) 고려시대 > 宣和奉使高麗圖經(선화봉사고려도경) > 卷19 > 백성(民庶) > 주인(舟人)

33)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 데이터 베이스

34) 박순지, 이춘계(1994), 앞의 논문

감즙을 ‘감물’이라고 표기한 것으로 보아³⁵⁾ 감물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도 사용되었으며, 이 용어는 제주와 관련없이 다른 지역에서도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염색과 관련하여 ‘감물’이란 용어가 사용된 기사들인 경우, 절반 이상이 제주와 연관되어 있었다. 감물을 한자 그대로 표기하여 ‘시수(柿水)’라고 표현한 사례도 관찰된다. 즉 조선시대에 제주 목사로 재임하였던 (1765년 8월-1766년 6월) 윤시동이 저술한 『증보탐라지』에 ‘푸른 색의 털 익은 감을 부수어 만든 감물로 물들인 베옷’이라는 의미의 ‘유이단갈상염청시수(又以短褐嘗染靑柿水)’란 기록이 있다.³⁶⁾ ‘시수(柿水)’라는 용어는 1929년 동아일보에서도 관찰된다.³⁷⁾ ‘감물(柿水)들인 듯한 바지 저고리 한 벌’을 묘사할 때 ‘감물’이란 한글과 ‘시수’란 한자가 함께 표기되고 있다. 이것은 조선 시대 고문헌에 표기되었던 ‘柿水’라는 한자 표기가 순 우리 말로는 ‘감물’을 뜻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제주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감물’이란 용어는 조선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제주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풋감을 부수고 으깨어 얻은 액체를 ‘감즙’이라고 하지 않고 ‘감물’이라고 한다. 이것은 조선시대부터 사용된 ‘감물’이란 용어가 일제강점기를 거쳐 현재까지 제주에서 전승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감물들이기’는 물들 염(染)을 써서 시염(柿染)이라고 표기한다. 시염(柿染)이란 용어는 조선시대의 농학자인 유중림(柳重臨)이 1766년 경 저술한 『增補山林經濟(증보산림경제)』³⁸⁾와 실학자 최한기(崔漢綺)가 1830년 경 조선 후기 농촌생활 전반에 대해 설명하는 『農政會要(농정회요)』³⁹⁾ 저서에서 감물염색법(柿染法)을 설명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감물들이기’는 뚝은 감으로 물들인다는 의미로 뚝을 ‘삽(澁)’을 추가하여 시삽염(柿澁染)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감나무의 잎이 아닌 감나무 열매로 염색한다는 의미에서 열매 ‘자(子)’를 추가하여⁴⁰⁾ ‘시자염(柿子染)’으로 표기하기도 한다. 일부 저서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시염(柿染)’을 감나무 잎으로 염색하거나⁴¹⁾ ‘시자(柿子)’를 감의 씨를 이용하여 염색하는 것으로 해석한 경우가 관찰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설명이다.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신문기사들에서는 柿染(시염)이나 柿子染(시자염)이란 한자 용어가 관찰되지 않았다. 시자염(柿子染)은 주로 대만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소개된 바 있다.⁴²⁾ 감물염색에 대한 한자 표기들 중에서 시삽염(柿澁染)이나 시삽(柿澁)이란 용어는 일제강점기에 발간된 신문, 감물염색에 관한 일본어 문헌, 일본 학회지에 실린 연구논문들에서 주로 볼 수 있다. 예컨대,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서 관찰된 ‘시삽(柿澁)’이란 한자는 총 9건이었는데, 모두 1928년부터 1946년 12월 이전에 게재된 신문기사들에서 사용되었다. 시삽(柿澁)과 시삽염(柿澁染)에 대한 신문기사들은 주로 뚝은 감의 채취, 생산, 부엽, 활용 등과 관련한 내용이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조사했던 겐쇼 에이스케(善生永助)의 저서 『제주도생활상태조사』⁴³⁾ 및 이즈미 시이치(泉靖一)의 저서 『제주도(濟州島)』⁴⁴⁾에서도 감물염색은 시삽(柿澁)과 시삽염(柿澁染)으로 표기되어 있다.

35) 동아일보, 1930년 11월 19일

36) 尹善東 著 金永吉 譯註, 國譯『增補耽羅志』, 濟州特別自治道 濟州文化院, 2016.

37) 동아일보, 1929년 11월 24일

38) 柳重臨 著, 高麗書局역총서 4『增補山林經濟 I』卷之三 種樹 柿, 농촌진흥청, 2003.

39) 崔漢綺 著(2003), 앞의 책

40) 허복구·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광주광역시: 세오와 이재, 2013.

41) 柳重臨 著, 高麗書局역총서 4(2003), 앞의 책

42) 허복구·박지혜(2013), 앞의 책

43)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저, 『제주도생활상태조사』보고서, 제주: 제주시우당도서관, 2002.

감물염색을 시칠(柿漆)이란 용어로 표기한 사례도 있다. 시칠(柿漆)은 감 혹은 감나무를 일컫는 ‘시(柿)’와 옷칠하다는 의미를 가진 ‘칠(染)’로 구성된 용어이다. 시칠(柿漆)이란 용어는 『농정회요』에 등장하는 “搗碎浸汁謂之柿漆(도쇄침즙위지시칠) 可染罽毼諸物(가염증선제물)” 기록에서 보듯이 감즙에 담그는 상황에서도 사용되지만, 물건이나 물체의 표면에 감즙을 칠하는 경우에까지 사용되고 있었다. 조선 후기 영조시대에 살았던(1764-1845) 실학자인 서유구(徐有渠)가 편찬한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⁴⁵⁾ 제2권 ‘섬용지(贍用志)’에도 감물의 제조나 감물의 이용법과 관련한 설명에서 시칠(柿漆)이나 시칠제법(柿漆造法)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 신문기사 검색에서도 ‘柿漆(시칠)’이란 한자 용어가 1924년과 1938년 동아일보에서 2건 관찰되었다. 즉 제주여행에 대해 작성한 글에 “下衣를 柿漆에 染하야 衣하는 故로 감을 食用에 供하는 일은 매우 드물다”라는 표현이 등장한다⁴⁶⁾. 그리고 기능을 강화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원료로서 시칠(原料柿漆) 제조 방법에 대해 설명하는 글에도 “朝鮮內에서 만히 生産되는 柿漆”이라는 문구가 나온다⁴⁷⁾.

요약하면, 감물염색을 의미하는 ‘감물들이기’는 한자로는 시염(柿染), 시자염(柿子染), 시삽염(柿澁染), 시칠(柿汁)로 표기된다. 그리고 이러한 한자 표기는 식물과 의류의 염색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재료나 물건을 염색하거나 염료를 칠하는 데도 사용된다. 이러한 용어들을 중심으로 문헌을 고찰한 결과,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에 대한 기록은 조선시대 이전의 자료들에서는 찾아 볼 수 없었다.

2. 조선시대의 제주 갈옷 문화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에 대해 명확하게 언급한 기록은 조선시대 자료에서만 찾아 볼 수 있었다. 즉 윤봉조의 『포암집(圃巖集)』과 윤시동의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 2권에서 ‘감물들인 옷’에 대한 표현이 있다. 윤봉조(1680년-1761년)는 조선 후기 문인이자 학자였으며, 1728년에서 1729년까지(영조 4년-5년) 약 2년 동안 제주 정의현에 유배되었다.⁴⁸⁾ 제주에 유배되었을 당시에 지은 ‘도중잡영(島中雜詠)’이란 한시(漢詩)가 『포암집』에 들어있다. 윤봉조의 ‘도중잡영’ 한시의 내용을 통해 조선시대에 제주에 감물들이기 문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도중잡영’ 한시에는 “淩雨柿染衣(릉우시염의), 冒雪皮爲帽(모설피위모)”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淩(릉)’은 능가함 혹은 정도가 지나침을 의미하는 한자로, 릉우(淩雨)는 평상시보다 비가 많이 오는 때를 말한다. 모설(冒雪)은 눈을 무릅쓴다는 뜻이다. 따라서 ‘릉우(淩雨)’라는 단어를 ‘모설(冒雪)’에 대비시키면 문맥상 릉우(淩雨)와 모설(冒雪)은 ‘장마지는 여름’과 ‘추운 겨울’을 말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이 시에서 주목할 부분은 ‘柿染衣(시염의)’이다. 이것은 옷에 감물을 들인다는 뜻으로 감물을 들이

44)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濟州島 V』 제주: 경신인쇄사, 2010.

이즈미 세이치 지음, 김중철 옮김, 『제주도: 1935-1965』 서울: 여름언덕, 2014.

45)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 2』, 풍석문화재단, 2016, p. 310

46)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47) 장현칠, 동아일보 1938년 9월 16일

48)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는 대상이 직물(布, 綿, 織物)이 아닌 옷(衣)임을 의미한다. ‘도중잡영’ 한시에 나온 이 문장을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만든 ‘가죽감태’ 모자를 착용하고, 여름에는 옷에 감물을 들여 입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제주에 안무어사로 파견되었던 김상헌(金尙憲)이 1601년 8월부터 1602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주에 머물면서 보고 들은 바를 일기체 형식으로 작성한 『南槎錄(남사록)』에는 조선시대 당시 제주 성안에는 감이 많이 있으나 크기가 작고 씨가 많으며 맛이 없다는 기록이 있다.⁴⁹⁾ 이것은 조선시대 제주에는 감이 자생했으며, 이 감은 식용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웠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즉 조선시대 제주의 감물들이기에는 제주에서 자생하는 이 작은 감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南槎錄(남사록)』에 제시된 제주에서 자생하는 감의 내용에 따르면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는 ‘도중잡영’ 한시가 지어지기 훨씬 이전 부터임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앞으로 ‘도중잡영’보다 앞선 고문헌들의 발굴과 이에 대한 번역이 이루어진다면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 역사는 이보다 더 앞설 가능성이 있다. 또한 ‘도중잡영’ 한시가 지어진 시기가 윤봉조가 제주에 유배되었을 때(1728-1729)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것은 시염법(柿染法)이나 시칠제법(柿漆造法)이란 용어로 감물염색에 소개하고 있는 유증립의 『증보산림경제』(1766년), 최한기의 『농정회요』(1830년), 서유구의 『임원경제지』(1806-1836)가 저술된 시기보다 앞선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가 다른 지역에서의 감물염색보다 더 빨리 성행했을 가능성도 높다. 다른 지역에서 행해졌던 감물들이기와 연관성 파악은 다른 지역에 관한 더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므로 이에 대한 심층 연구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林臥不防虎(임와불방호) 숲에 누워 있어도 호랑이 걱정 없고
戶開不警盜(호개불경도) 문 열려 있어도 도둑 경계 필요 없네
牧兒 驅牛去(목아구우거) 목동이 소 몰고 나가면
嘯聲夜四到(소성야사도) 휘파람 소리는 사방에서 들려오고
寒風振哀壑(한풍진애학) 차가운 바람이 구슬프게 골짜기에 불어오는데
村徑葉不掃(촌경엽불소) 마을 길은 낙엽 쌓여도 쓸지 않네
凌雨柿染衣(릉우시염의) 장맛비 올 때는 옷에 감물들이고
冒雪皮爲帽(모설피위모) 추운 겨울에는 가죽으로 모자를 만드네
牛肥載薪多(우비재신다) 살진 소에 땔나무 많이 실어
歸及蕪夜(귀급설야조) 돌아와 아궁이에 불이나 때어야겠네
今夜善飼牛(금야선사우) 이 밤 소나 잘 먹여
秋稼滿畦倒(추가만휴도) 가을 벼 논 두둑 가득하겠네
田家歲功成(전가세공성) 농가 한해 농사 이루었으니,
喜色動相告(희색동상고) 기쁜 낫빛으로 서로 알리며 다니겠지
獨有離家客(독유리가객) 홀로 집 떠난 나그네 되어
眼穿望鄉耗(안천망향모) 눈은 뚫어지게 고향마 바라보네
滿目非我故(만목비이고) 눈에 가득 보이는 풍경은 내 고향이 아니니
歸心農旆羣(귀심노정독) 돌아가고픈 마음 깃발처럼 나부끼네

- 윤봉조, 『포암집(圃巖集)』, ‘도중잡영(島中雜詠)’ 10번째(其十)의 한시⁵⁰⁾

49) 김상헌 저, 홍기표 역주, 『남사록』, 제주문화원, 2011.

50) 심규호, 주기평, 최석원, 송인주, 김규태, 『제주 한시 300수』, 제주:제주학연구센터, 2022.

윤봉조의 ‘도중잡영’ 한시를 통해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제주에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조선 후기의 문신이었던 윤시동의 저서 『증보탐라지(增補耽羅誌)』의 내용을 통해서도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에 대해 조금 더 알 수 있다. 윤시동은 1729년에 태어나서 1797년까지 살았던 학자로 1765년 8월부터 1766년 6월까지(영조 41년-42년) 약 1년 동안 제주 목사로 재임하였다.⁵¹⁾ 『증보탐라지』는 제주의 생활상에 대해 서술한 것으로 이 문헌에는 조선시대 목화와 마의 재배 상황, 제주에서 사용되었던 직물의 유형, 제주 사람들이 착용했던 의복에 대한 내용이 들어 있다. 의복의 종류로는 개가죽 옷, 오소리 가죽 모자, 가죽 행전, 가죽 버선, 감물들이는 옷이 제시되었다. 감물들이는 옷에 대해서는 “又以短褐嘗染靑柿水(우이단갈상염청시수) 其色赤黑(기색적흑) 雖旬月不濯(수구월부습) 曾不汗汗(증불한오) 農家尤爲好着(농가우위호착)”라고 기록하고 있다.⁵²⁾ 이 문장을 통해 조선시대 감물들이는 원료, 감물들이는 대상, 감물들이는 소재, 감물들이는 옷의 색상과 기능에 대해 엿볼 수 있다.

즉 ‘染靑柿水(염청시수)’라는 문구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염색의 원료는 푸른색의 털 익은 풋감이며, 이 풋감에서 짜낸 액체인 감물(柿水)을 이용하여 염색함을 알 수 있다. 조선 시대에는 풋감을 육지로부터 가져오는 일이 거의 없었다는 점에서 감물들이는 원료는 제주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단갈(短褐)’이란 단어를 통해 조선시대 제주에서 감물을 들였던 대상은 천이 아닌 옷이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되었다. 특히 ‘大靜面只有若干木花(대정면지유약간목화) 而結花甚小(이결화심소) 與陸地大異(여육지대이) 峽村之民畊麻織布(협촌지민경마직포) 寒煖(한환/난)是資(한환/난)시자’라는 문장을 통해 목화가 경작되는 지역이 한정적이고, 목화꽃이 열리는 양은 적지만 마(麻)는 산골 마을에서도 재배되어 여름과 겨울 모두 삼베로 짠 옷을 입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선시대 제주에서는 면직물이 귀하여 무명보다 주로 삼베로 짠 옷에 감물을 들였던 것으로 파악된다.⁵³⁾ 그리고 ‘기색적흑(其色赤黑)’이란 문구로 볼 때 조선시대에 감물들이 입었던 옷의 색상은 검붉은 색이라는 점도 확인된다. ‘수구월부습(雖旬月不濯), 증불한오(曾不汗汗)’는 감물들이는 옷의 장점이나 기능성에 대해 말하는 것이다. 이 문장에 따르면 제주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감물들이는 옷이 자주 세탁하지 않아도 더러움을 안탈 만큼 땀과 오염에 강한 옷이라는 점을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감물들이는 옷은 ‘농가우위호(農家尤爲好着)’란 문장에서 볼 수 있듯이 주로 농가에서 농부가 밭일을 할 때 입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조선시대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옷의 종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즉 “又以短褐嘗染靑柿水(우이단갈상염청시수)” 문장에 등장하는 ‘단갈(短褐)’이 의미하는 바에는 논의의 여지가 있다. 앞에서 제시하였듯이 갈의(褐衣)는 중의적인 의미(베옷, 모직물 털옷)를 보이는 한자로 문맥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 여기서 단갈(短褐)은 감물들이기가 가능한 소재여야 하므로 ‘삼베로 짠 옷’이라는 점이나 ‘짧은 길이’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감물을 들이는 단갈(短褐)의 형태는 명확하지 않다. 예컨대, 단갈(短褐)을 제주 사람들이 농사일할 때 입는 짧은 길이의 바지인 ‘베잡방이’로 해석하기도 하지만⁵⁴⁾ 삼베로 만든 갈의(褐衣)의 일종으로 짧은 포(袍)

허복구·박지혜,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세오와 이재, 2013.

5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52) 尹善東 著, 金永吉 譯註, 國譯『增補耽羅誌』, 濟州特別自治道 濟州文化院, 제주: 제이에스디자인 2016.

53) 尹善東 著, 金永吉 譯註, 國譯『增補耽羅誌』, 濟州特別自治道 濟州文化院, 제주: 제이에스디자인 2016.

54) 尹善東 著, 金永吉 譯註, 國譯『增補耽羅誌』, 濟州特別自治道 濟州文化院, 제주: 제이에스디자인 2016.

형태의 의복(短衣)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⁵⁵⁾ 그리고 일제강점기인 1937년 제주를 관찰한 이즈미 세이치가 남녀 모두 저고리와 바지에 감물을 들어 입는다고 보고한 점을 고려하면, 감물을 들이는 단갈(短褐)은 베로 만든 짧은 길이의 상의 혹은 하의 모두를 통칭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문장에 등장하는 단갈(短褐)에 대해서는 또 다른 사료나 더 많은 사료를 필요로 하는 추후 과제로 남겨둔다.

大靜面只有若干木花 而結花甚小 與陸地大異 峽村之民耕麻織布 寒煖是資 間有襦納者 以破布代絮 男則身着狗皮衣 頭戴土猪皮帽子 下着皮行纏俗稱發乃皮襪履 乃得禦寒 無此 則指爲疲殘 又以短褐嘗染青柿水 其色赤黑 雖旬月不濯 曾不汗汗 農家尤爲好着.⁵⁶⁾

- 尹蓍東 著『增補耽羅志』

“대정 면에서만 약간씩 목화를 재배한다. 그러나 꽃을 맺음이 매우 적어서 육지와는 크게 다르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마(麻)를 재배하여 베를 짜서 이것으로 추위와 더위(寒煖)⁵⁷⁾에 의지한다. 간혹 저고리에 솜을 대신하여 베를 찢어서 넣기도 한다. 남자는 몸에는 개가죽 옷을 입고 머리에 오소리 가죽 모자를 쓰며, 발에 가죽 행전을 차고 가죽 버선을 신어서 추위를 막는다. 이것이 없으면 발가락이 병 들고 혈이 터지게 된다. 또 푸른색의 털 익은 감을 부수어 만든 감물을 이용하여 베잠방이에 물들이면⁵⁸⁾ 그 색이 검붉은데, 비록 열흘이나 한 달을 빨지 못해도 땀으로 더러워지지 않으니 농가에서 더욱 즐겨 입는다”⁵⁹⁾

- 윤시동 저, 김영길역(2016), 『증보탐라지』

요약하면, 제주에는 조선시대 후기 이전부터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으며, 감물들이는 시기는 주로 여름이었다. 감물을 만드는 원료는 제주에서 나는 털익은 풋감이었으며, 감물을 들이는 옷은 주로 베로 만든 옷이었고, 감물들인 옷의 색상은 검붉은 색이었으며, 감물들인 옷의 장점은 빨지 않고 오래 입어도 땀으로 더러워지지 않는 점이다. 조선시대 제주에서 감물들인 옷은 주로 농가의 농부들이 착용하였다.

3.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 문화

제주에서 일제강점기 후반까지도 감물염색이 성행했다는 사실은 진쇼 에이스케가 1927년에서 1929년까지 2년 동안 제주를 방문하여 관찰한 내용을 작성한 『제주도생활상태조사』, 1937년에 제주도를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을 저술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1924년부터 1938년까지의 동아일보와 조선일보에 실린 6건의 제주기행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두 문헌들과 제주기행문을 통해 파악된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에 대해 제시하였다.

55) 김동욱(1971), 앞의 논문

56) 尹蓍東 著, 김영길 역(2016), 앞의 책

57) 원본은 한환(寒煖)으로 추위와 더위를 의미하는 한난(寒煖)을 잘못 쓴 것으로 보인다. 발레(發乃)는 방한용으로 개가죽을 사용하여 각반처럼 만든 물건을 이르는 제주 방언이다.-역자 붙임)

58) “短褐”을 하의에 국한하여 베잠방이로 해석하였음

59) 尹蓍東 著, 김영길 역(2016), 앞의 책

1) 감물들인 옷의 종류와 형태

『제주도생활상태조사』보고서는 1929년에 편찬된 것으로 일제강점기 시대의 제주 상황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자료이다. 일제강점기 시대에도 제주는 육지와 매우 달랐기 때문에 조선총독부는 겐쇼 에이스케에게 촉탁하여 『제주도생활상태조사』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겐쇼 에이스케가 일본어로 작성하였고 1929년 당시 홍성목이 이 보고서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1927년부터 1929년까지 조사한 『제주도생활상태조사』 보고서에는 제주에는 흰색 옷이 많은 육지에 비해 감물들인 적갈색 옷이 많았다는 기록이 있다. 이것은 감물염색이 조선 시대 이후 일제강점기에도 제주에서 성행했음을 알려 준다. 그러나 『제주도생활상태조사』보고서에는 당시 제주 사람들이 착용했던 의복의 종류들은 제시되었지만, 어떤 종류의 옷에 감물을 들였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다. 다만, 겐쇼 에이스케는 “柿澁を施したる赤褐色のものが多い” 문장을 통해⁶⁰⁾ 당시 성인 남녀가 여름에 입는 홑겹의 삼베 옷들 중에는 감물들인 붉은 갈색의 옷이 많았다고만 기록하였다.

남자의 복장은 육지부의 복장과 큰 차이는 없지만 성년 남자로서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바지(袴衣), 저고리(儒衣), 토시(吐手), 버선(襪), 대님(單衽), 허리끈(腰帶), 두루마기(袍衣)를 입고 봄·가을에는 하양 면제품의 겹옷, 여름에는 삼베의 홑옷(감물을 들인 붉은 갈색옷이 많다), 겨울에는 하얀 누비 솜옷을 입는다. -중략- 색상은 흰색이 가장 많고, 그 밖에 쥐색, 갈색, 검은색 등이 있다.

성년의 여자로서 농업 혹은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저고리(儒衣), 치마(裳), 바지(袴衣), 속곳(襦), 버선,⁶¹⁾ 허리끈(腰帶) 등을 사용하고 봄, 가을에는 흰천으로 된 겹옷, 여름에는 삼베로 된 홑옷(감물로 염색한 적갈색옷이 많다), 겨울에는 하얀 솜옷을 입고 있다. -중략- 의복의 재료는 비단 면 무명 삼베 등을 쓰고 색배합은 차마는 흰색(白), 곤색(藍), 검정(黑), 청색(靑) 및 갈색(茶色) 등으로 하고 그 외에는 거의 흰색이다.

-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2002), 『제주도생활상태조사』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옷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설명한 문헌은 1937년에 제주를 방문하고 20일간 제주의 생활상을 조사한 결과를 담은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이다.⁶²⁾ 이 문헌 또한 일본어로 작성되었으며 1966년에 일본에서 발표된 후 최근에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제주도(濟州島)』 문헌에 따르면 1937년 당시 제주 사람들은 푸른 감을 돌 위에서 빵아 물을 약간 섞은 것에 무명 옷이나 삼베 옷을 담가 감물을 들였다.⁶³⁾ 이즈미 세이치는 감물을 들인 옷을 柿澁衣類(시삽의류)라고 표기하고 있으며, 감물들인 옷의 종류로 柿澁襦衣(시삽의류), 柿澁男子袴衣·中衣(시삽남자고의·중의), 柿澁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를 제시하였다. 이 문헌에 따르면 당시 제주의

60)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2002), 앞의 책

61) 겐쇼 에이스케 저, 홍성목 역(2002), 앞의 책

善生永助 著, 『生活状態調査(基二)濟州島』, 朝鮮印刷株式會社印刷, 1929.

일본어 원문에 이 표기는 없지만 그림에 버선(말)이 표기되어 있어 홍성목 역자가 추가함

62)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 『濟州島 V』 제주: 경신인쇄사, 2010.

이즈미 세이치 지음, 김종철 옮김, 『제주도: 1935-1965』 서울: 여름언덕, 2014.

홍성목 역(2010)에는 ‘갈옷감’이라고 해석하고, 이러한 천으로 만든 의류(柿澁衣類)의 예시 들고 있는 반면 김종철(2014) 번역에서는 ‘옷감’이란 표현 대신 ‘감물옷’이라고 번역하고 이를 통틀어 ‘갈옷’이라고 번역하고 있음. 따라서 ‘갈옷감’이라는 표현은 현대에 와서 천을 감물염색한 후 염색된 갈천으로 옷을 만들기 때문에 설명이 추가된 것으로 생각됨. 즉 일제강점기 시대에는 천이 아닌 옷을 염색한 것으로 판단됨

63)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남녀가 착용했던 감물들인 저고리(紵襦衣)는 육지에서 만드는 방법과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이즈미 세이치는 감물들인 남자 바지(紵男子袴衣, 紵男子中衣)는 그 제작법이 육지와 다르다고 설명하였다. 즉 감물들인 남자 바지는 홀겹의 바지로 무릎 슬관절(膝關節) 부분에서 갑자기 좁아지고, 무릎 슬관절과 복사뼈 부위를 끈으로 묶는 형태이다. 감물들인 여자 바지(紵女子袴衣) 또한 육지의 것과 다르다고 하였다. 즉 허리부터 무릎 슬관절까지는 일본의 몸빼처럼 주름이 잡히지만 무릎부터 밑으로는 매우 좁아지고 감물들인 남자 바지와 마찬가지로 두 군데를 끈으로 묶는 형태이다.

이즈미 세이치가 1937년에 관찰한 감물들인 옷을 고부자가 제시한 제주 갈옷의 종류와 비교해 보면,⁶⁴⁾ 紵襦衣(시삽유의)는 남자와 여자가 상의에 착용하는 ‘갈적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紵男子袴衣·中衣(시삽남자고의·중의)는 남자가 하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바지로 고부자가 제시한 ‘갈중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즈미 세이치는 이것의 제작법이 육지 것과 다르다고 하였으나 고부자는 갈중이의 형태가 남자용 한복 바지와 동일하다고 한 바 있어서 추후 이에 대한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紵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는 ‘갈굴중이’로 불리던 옷으로 보인다. 갈굴중이는 넓은 허리단이 달리고 허리 밑으로 주름이 많이 지면서 바지통 또한 매우 넓은 단속곳인 굴중이에 감물을 들인 것이다.⁶⁵⁾ 그러나 고부자는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에는 갈몸빼가 입혀졌다고 한 바 있어서⁶⁶⁾ 이 당시에 입혀졌던 감물들인 여자 바지(紵女子袴衣)가 ‘갈몸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지만, 바지를 끈으로 묶었다는 이즈미 세이치의 설명에 따를 때 갈굴중이로 파악된다. 몸빼는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넓지만 허리와 바지 부리에 고무줄을 넣은 옷으로 허리와 발목 부위에 주름이 많이 생기는 형태이다.⁶⁷⁾ 특히,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를 방문했던 당시는 몸빼가 한국에서 일반화되기 이전이란 점에서도 紵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는 갈굴중이일 가능성이 커보인다. 이것은 몸빼는 1937년 중일전쟁에 이은 1941년 태평양전쟁 때 일본에 의해 강제적으로 보급되고 착용을 강요받았지만 조선시대의 여자 바지 형태는 가랑이가 터져 있어서 바지를 겉옷으로 입는데 거부감이 컸기 때문에 1950년 6.25전쟁을 거치기 전까지는 보급률이 저조하였다는 점에서도 뒷받침된다.⁶⁸⁾

64) 고부자(1972),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관점,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65) 고부자(1986), 제주도 여인들의 속옷에 관한 연구, 제주도연구, 3, 135-162.

66) 고부자(1972), 앞의 논문

67) 조희진(2002), ‘몸빼’를 통해 본 의생활의 전통과 외래문화, 실천민속학연구, 4, 147-165.

68) 조우현, 김미진(2015),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통해 본 한국패션, 복식, 65(7), 287-7827.

〈표 1〉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과 굴중이

	
밭일하는 여인들 (1910년대)⁶⁹⁾ 갈적삼, 갈굴중이	문신생(여, 1911년생) 제주시⁷⁰⁾ 굴중이

한편, 일제강점기에는 이즈미 세이치가 제시한 옷 이외에 다른 옷에도 감물을 들였던 것으로 보인다. 1924년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서 “농군이 감물들인 잠빵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별 립을쓰고 삼을메고가는양이” 라는 문장을 통해 감물을 들이는 옷 중에는 ‘잠빵능걸이’라는 옷도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938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나와 있는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뿔분 감물(柿汁)을 물들여”라는 문장을 볼 때,⁷¹⁾ 일제강점기에는 치마에도 감물을 들여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즈미 세이치가 작성한 『제주도(濟州島)』에서 빠져있는 것으로 보아 치마에 감물을 들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흔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제 강점기의 감물들이기

일제강점기의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 문화는 감물을 들이는 원료, 감물을 들이는 대상, 감물들인 옷의 소재와 색상, 감물들인 옷의 기능성과 용도, 감물들인 옷의 의복규범, 감물들인 옷에 대한 인식 측면에서 엿볼 수 있다. 1924년부터 1938년까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들에서 “뿔분 감물(柿汁)을 물들여”⁷²⁾ “柿澱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⁷³⁾라는 표현을 볼 때,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일제강점기에도 감물을 들이는데 사용된 감물 원료는 덜 익은 풋감임이었다.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濟州島)』 문헌에서 1937년에 제주에서 관찰한 옷이 뽕은 감으로 염색된 옷이었다는 점에서 시삽의류(柿澱衣類)로 표기한 점에서도 뒷받침된다. 감물들이는 풋감은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⁷⁴⁾ 제주에서 자생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제주기행문에 나오는 “필자의 제의복(製衣服)에는 감물작육(作慾)을 무한(無限)이을 들여 입으며”라는 문장을 통해⁷⁵⁾ 일제강점기에도 감물을 들이는 대상은 옷이었음이 확인되었다.

69) 고부자(1994), 제주도 의생활의 민속학적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9

70) 고부자(1994), 앞의 논문,

71)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72)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73)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74) 김상현 저, 홍기표 역주, 『남사록』, 제주문화원, 2011.

특히, 조선시대에는 무명보다 주로 베옷에 감물을 들였다면, 일제강점기에 감물을 들이는 옷의 소재는 켜(葛袍), 삼(麻布), 거친 베 외에 무명, 고운 베, 모시까지 더욱 확장되었다. 이것은 조선 일보와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기행문에 등장한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김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넣은 것은”,⁷⁶⁾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⁷⁷⁾ “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産(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땀분 감물(槲汁)을 물들여”⁷⁸⁾ “綿布(면포), 柿澁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 活動的(활동적)인 作業服(작업복)이었으나”⁷⁹⁾ 등의 표현을 통해 파악된다. 감물들인 옷의 색상은 “땀분 감물(槲汁)을 물들여 그비치赤土色(적토색)과 다를 데가 없습니다”⁸⁰⁾ 라는 표현에서 보듯이 붉은 갈색이다. 이것은 앞에 제시한 문장에 나타난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이란 문구로도 뒷받침된다.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도(濟州島)』 문헌에서도 제주의 감물들인 옷은 적갈색이었다고 한 점과도 일치한다. 그리고 제주 기행문에 등장하는 “이 물색은 오색이나 칠색에 들지안는 감물이다. 시골에서만 볼 희한한 빗갈이다”라는 문장을 볼 때,⁸¹⁾ 감물들인 옷은 오방색에도 속하지 않고 흔히 일컬어지는 전통 색상도 아니어서 외지인들에게는 제주에서만 볼 수 있는 희귀하고 특이한 색상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일제강점기 제주 사람들은 조선시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감물들인 옷의 기능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즉 “석양때쯤하야 농군이 감물들인 잠뽕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벌립을 쓰고”⁸²⁾ “흙과 비에 젖지 안흐며 바다와 산에서 능히견딜 수 있는것이니”⁸³⁾라는 문구들에서 보듯이, 일제강점기에도 감물들인 옷은 흙이나 먼지를 잘 타지 않는 방오성을 비롯하여 물을 튕겨내거나 물이 들어오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발수성 혹은 방수성이 높은 옷으로 인식되었다. 이렇게 비에 잘 젖지 않는 장점이 인식됨에 따라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의 용도가 밭이나 들에서 일하는 농업은 물론 산이나 바다에서 일하는 목축업과 어업의 작업에까지 확장된 것으로 파악된다.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목축업과 어업 분야에서도 노동복으로도 활용된 것은 한정된 몇 개의 사료에 의존한 것이기는 하지만 주로 농부복으로 활용되었던 조선시대와는 다른 점이다. 그리고 제주기행문에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김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넣은 것은”이라는 문장이 등장하는 점을 고려해 볼 때,⁸⁴⁾ 일제강점기에는 집안 생활에서도 감물들인 옷을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의 착용과 관련한 의복규범이 있었다는 점이다. 1935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 기행문에는 “일할때에는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가도 외출할 경우에는 말숙한 한산세모시를 갈어입고는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선다”라는 문장이 등장한다.⁸⁵⁾ 또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문

75) 황야, 동아일보, 1935년 10월 4일

76)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77)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78)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79)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80)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81)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82)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83)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84)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현에 따르면, 1937년 당시 제주에서는 외출복에는 감물을 들이지 않았으며, 감물들인 옷 위에 두루마기를 입는 일도 없었다. 이러한 내용들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을 입고 외출하는 것이 예의에 벗어나는 일이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즈미 세이치는 제주 여성들은 감물들인 바지(裱瀝女子袴衣)를 농사나 작업 상황에서는 입을 수는 있지만, 공도(公道)에서는 감물들인 바지 위에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를 꼭 입어야 하며, 이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기록하였다.⁸⁶⁾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문헌에는 해촌 여자들이 이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다른 마을 사람들로부터 비판을 받은 실제 사례 또한 제시되어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제주를 방문한 외지인들에게 제주의 감물들인 옷은 양면적 측면에서 인식되었다. 즉 “섬의여자들은 도모지 번적번적하는 인조견의 호화를 즐길줄 모른다. 그대신 무명이나 베나 모시의질박을 사랑할줄을 안다”라는 문장에서 보듯이⁸⁷⁾ 외지인들은 감물들인 옷을 주로 착용하는 제주 사람들의 의생활 문화를 긍정적으로 인식하는가 하면 “現代文化(현대문화)를 呼吸(호흡)못한 古色蒼然(고색장연)한 存在(존재)”라는 표현에서 보듯이⁸⁸⁾ 다소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신문에 실린 외지인들의 기행문 모두를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는 일제강점기에도 이색적이고 독특한 제주만의 고유한 향토 문화로 인식되는 경향이 더 컸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제주기행문에 제시된 “물색 조흔 해주라더니 해주의 물색은 다업서저버리고 제주에는 아즉도 제주색이 남아있다” “이것을 못보신이에게는 안좌이득으로 제주가지안코 구경할길이잇스니” 등의 문장을 고려할 때,⁸⁹⁾ 해주에도 감물들이기나 향토적인 염색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일제강점기 당시에는 거의 사라진 데 반해 제주의 감물들이기 문화는 일제강점기까지 계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물색 조흔 해주라더니 해주의 물색은 다업서저버리고 제주에는 아즉도 제주색이 남아있다 이 물색은 오색이나 칠색에 들지안는 감물이다 여름옷 모시나 고운베에 감물을 김도열도안케연연히들여넣는 것은 미상불(未蔭不)이 시골에서만 볼 희한한빛같이다. 이것을 못보신이에게는 안좌이득으로 제주가지안코구 경할길이잇스니 잠간종로에건일것가트면 무슨옥이무슨춘이의 열분치마속으로 아년듯그런듯빛치는노란 속것빛이다.”

-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석양때쯤하야 농군이 감물들인잠빵능걸이에 커다란 “정당별립”을쓰고 삼을메고가는양이 미상불고인을 보는 듯 순박고아하기 짝이없다.

-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섬의여자들은 도모지 번적번적하는 인조견의 호화를 즐길줄 모른다. 그대신 무명이나 베나 모시의질박을 사랑할줄을 안다. 일할때에는 무명이나 베에 감물을 벌거케 물드린 이섬특유의 로동제복을 입었다

85)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86)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홍성목(2010)은 갈굴중이를 설명하면서 굴중이라고 표기되고 있음. 갈굴중이는 굴중이라는 옷을 감물들인 것으로 치마 속에 입는 속옷인 굴중이나 외의화 된 것

87)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88)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89)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7일

가도 외출할 경우에는 말숙한 한산세모시를 갈아입고는 머리와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고 나선다.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교통이 불편 속에 별다른점한만치 언어품 이만다. 쇠털병생활은 검소하기 짝이 없다. 남녀를 물론하고 제 격이 크고 완강하여 생기를 띄운 미학적미남녀가 만하치와 초경모에서 '필자의 제의복(製衣服)에는 감물 작욕(作慾)을 무한(無限)이을 들여 입으며 도끄은곳이다.

- 황야, 동아일보, 1935년 10월 4일

漢拏山(한라산)이 視力範圍(시력범위)안에 들어와 서기는 실상 楸子島(추자도)에서도 흰색 이전이었섯게는데-중략-葛袍(갈포)나 麻布(마포) 土產(토산)으로 적삼과 치마를 지어 입되 땀분 감물(槌打)을 물들여 그비치赤土色(적토색)과 다를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흙과 비에 젖지 안으며 바다와 산에서 능히 견딜 수 있는것이니 예로부터 도적과 습유가업고 악날과 허풍이 없는 묘묘한 양상 약토에 핏 파가리 아름다운 의상이 아니고 무엇이오리까!!

- 정지용, 조선일보, 1938년 8월 28일

漢拏靈山(한라영산)을 中心(중심)하야 島內(도내)의 海岸沿線(해안연선) 四百餘里(사백여리)를 一週(일주)하는 동안 一중략-센바람을 헤치고 怒濤險波(노도험파)를 潛泳(잠영)하는 浦邊(포변)의 海女作業(해녀작업)도 눈에 새로웠다. 特(특)히 눈에 띄우는 것은 路上(노상)을 지나가는 人影(인영)이 모두 女性(여성)뿐인 것이다. 나무를 지고가는 者(자)도 女子(여자), 우마차를 고는 者(자)도 女子(여자), 물을 지러가는 者(자)도 女子(여자)이며, 짐지지안코 지내는 女子(여자)가 없고 服色(복색)은 手織(수직), 綿布(면포), 柿澁染料(시삽염료)로 물드린 活動的(활동적)인 作業服(작업복)이었으나 모도가 現代文化(현대문화)를 呼吸(호흡)못한 古色蒼然(고색창연)한 存在(존재)였다.

- 동아일보 1946년 12월 20일

요약하면, 다른 지역과 달리 제주에서는 조선시대의 감물들이기가 일제강점기 후반까지도 계속 전승되었으며, 남녀 모두가 일상적으로 감물들인 옷을 착용하였다. 일제강점기에도 조선시대와 마찬가지로 천이 아닌 옷에 감물을 들였다. 감물들이기에 사용된 원료는 제주에서 나는 털이 은 짧은 감이고, 감물을 들이는 옷의 소재는 찢, 베, 마 외에 모시와 무명도 포함되어 조선시대보다 감물들이는 옷의 소재가 더 확장되었다. 일제강점기에는 외출복에는 감물을 들이지 않았으며, 감물들인 옷을 입고 공공장소에 가는 것은 금기시되었다. 감물을 들인 옷의 색상은 붉은 갈색이었으며, 장점은 흙에 쉬이 더러워지거나 비에 쉬이 젖지 않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일제강점기에 감물들인 옷은 농부복이나 산과 들이나 바다에서 착용하는 노동복 용도로 활용되었다. 감물들인 옷의 종류로는 흘겹의 남자 상의와 하의(柿澁襦衣, 柿澁男子袴衣·中衣), 여자 상의와 하의(柿澁襦衣, 柿澁女子袴衣), 감물들인 치마와 잠뽕능걸이가 있었다. 상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옷은 저고리 형태와 유사하였으며, 하의에 착용하는 감물들인 옷은 품이 넉넉한 바지 형태로 무릎 아래 부위에서 끈으로 묶는 것이 특징이었다.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외지인들에게 이색적인 제주만의 독특한 향토문화로 인식되었다.

4. 옷에 감물들이기와 ‘갈옷’ 용어의 사용

1)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에 고찰한 바에 따르면,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옷에 특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제주의 화산섬이라는 자연환경과 생업환경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화산섬 특성으로 제주의 흙은 점착력이 약해 먼지처럼 날리기 쉽다. 이것은 1601년 8월부터 1602년 2월까지 약 6개월 동안 제주에 살았던 김상헌(金尙憲)이 『南槎錄(남사록)』에서 “흙의 성질은 푸석하고 건조하여 밭을 개간하려면 반드시 소나 말을 몰아서 밟아줘야 한다”는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⁹⁰⁾ 그런데, 감물은 점착력이 강해 감물을 들이면 섬유 사이의 공간을 메꾸는 한편 감물이 칠해지는 표면을 코팅하는 역할을 한다.⁹¹⁾ 따라서 감물들이는 옷은 밭에서 풀풀 날리는 흙이나 먼지가 옷속으로 들어오는 것, 옷에 달라붙는 것, 물결에 젖는 것을 막아주는 한편 옷의 겉면에 묻은 흙이나 새벽 이슬도 손으로 털면 쉽게 털리는 특성을 갖는다.⁹²⁾ 또한, 풋감에는 방부성과 항균성 기능을 하는⁹³⁾ 탄닌 성분이 많아 세탁을 자주 안 해도 위생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제주 사람들은 조선시대부터 이에 대한 경험적 지식으로 옷에 감물을 들여 농부복으로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생업환경과 한라산을 배경으로 하는 중산간에서의 생업환경으로 감물들이는 옷은 들과 밭에서뿐만 아니라 바다와 산에서의 노동복으로도 활용됨에 따라 제주에서는 감물들이는 풍속이 지속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1965년 7월 당시로서는 약 350년 전이고 현재로서는 약 408년 전에 이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감물들이는 면직물이 광주 무등산에서 출토된 바 있다. 출토 당시에 이 유물은 감이 갖는 방부성을 이용해 망자를 덮는 용도의 면포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⁹⁴⁾ 이 면직물 유물이 옷의 일부이거나 옷을 만드는 용도로 사용된 옷감은 아니지만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도 직물이나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허복구는 전라남도 진도지역에서 행해졌던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에 대해서 조사하고 이 지역에서도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음을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 염색 기술과 문화』 저서에 제시하였다.⁹⁵⁾ 이것은 진도에 거주하는 고령 자분들을 대상으로 1940년대 전후에 있었던 감의 이용과 감물 염색한 옷의 착용에 대해 면담한 결과에 따른 것으로 허복구는 감물 염색이 진도 고유의 향토문화인지 아니면 해남 지역의 문화였던 감물염색이 다른 주변 지역에 비해 진도에 오래 남아있었던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1940년대 전후까지 진도에는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가 있었다고 기술하였다. 그러나 2017년에 발표된 허복구의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염색 기술과 문화』에 따르면,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옷에 감물들

90) 김상헌 저(2011), 앞의 책

91) 홍희숙 외(2021), 국내산 태국산 닥섬유 및 목재펄프가 혼합된 줌치한지의 감물염색에 따른 강도 특성, 한국의류학회지, 45(6), 1035-1051.

92) 홍희숙, 김기억(2018), 감물염색가공에 따른 줌치한지 종이소재의 강도 변화-감물염색가공 여부와 감물농도 차이에 따른 변화, 한국의류학회지, 42(2), 224-236.

93) 홍희숙, 신타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사업: 건강기능성 패션상품 연구개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사업 (2005.7.1.-2006.6.30.).

한영숙(2005), 감즙과 감즙 염색 면직물의 항균성, 대한가정학회지, 43(3), 119-129.

94) 이정숙(1982), 조선중기 출토 면직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5) 허복구(2017),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염색 기술과 문화』, 광주광역시: 세오와 이재.

이는 방법, 절차, 횃수 및 발색 방법 등 몇가지 측면에서 진도의 감물염색과 차별화된다. 일반적으로 진도의 감물염색은 풋감을 따서 절구에서 감을 파쇄한 후 옷을 절구에 넣어 1차로 감물을 들인 후 건조시키고, 건조 후에 다시 풋감을 파쇄한 절구에 옷을 넣어 2차로 감물을 들인 후 건조시켜서 발색 단계 없이 감물염색한 옷을 착용하였다. 아니면 1차로 감물염색한 옷을 건조시킨 후 시궁창 흙에 옷을 묻은 후 다시 꺼내서 수세후 2차 염색을 하여 착용하였다. 반면 제주의 감물들이기에서는 처음에 감물을 들인 후에는 2차로 감물들이는 재염과정이 없으며 1차 감물들이기 이후에는 물과 햇볕 건조를 반복하는 ‘바래기’ 과정을 거치는 대신 2차로 감물염색을 하거나 진흙 염색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제주와 진도에서 감물염색에 사용하는 풋감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제주의 감물들이기에 사용하는 풋감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풋감에 비해 탄닌 성분 함량이 많기 때문으로 이는 이미 학계에서 알려진 바이다. 탄닌성분이 많은 풋감을 이용하여 감물들이는 제주에서는 2차로 감물염색을 추가하거나 진흙에 묻어 매염제 역할을 하는 철의 작용을 필요로 하지 않고 물과 햇빛에서의 건조 만으로도 충분히 색상이 드러났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진도의 이러한 감물염색에 대한 내용은 1940년대 전후에 제한되어 있으며 여러 가지 이유로 1950년대 이후에는 거의 사라졌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조선시대 후기 이전부터 제주에서 입혀졌던 감물들이 옷과 제주에서 행해졌던 감물들이기 문화는 현대사회와 현대기술의 변화에 발맞추어 현재까지 300년 넘게 전승되어 오고 있다.

또한 옷에 감물들이는 제주지역의 문화는 조선시대에 전국의 산이나 농촌의 생활을 망라하여 저술된 『증보산림경제(增補山林經濟)』⁹⁶⁾와 『농정회요(農政會要)』⁹⁷⁾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⁹⁸⁾에 설명되어있는 감물염색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이 문헌들에서 설명하는 감물염색 방법(柿染法, 柿漆造法)에 따르면 감을 찢어서 부순 감즙에 담그는 방법은 유사하지만 감물염색에 사용되는 재료는 뚫은 감에 제한되지 않는 점이나 감즙을 하루 이틀 묵혔다가 이용하는 점은 제주의 감물들이기 방법과 다르다.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는 발효감이나 묵힌 감이 아니라 감을 따서 그날 바로 염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것은 제주도 주부가 동아일보에 게재한 ‘제주 갈옷’이란 글에서 표현한 “아직 채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찢어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라는 문장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⁹⁹⁾ 진성기 또한 제주에서는 “생감(풋감)”을 뺀다 나온 뚫은 물로 염색한다고 설명하였다.¹⁰⁰⁾ 이와 같이 풋감을 따자마자 바로 감물을 만들어 염색하는 제주의 감물들이기는 일본의 전통감물염색과도 다른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¹⁰¹⁾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작성된 『임원경제지』에도 옷에 감물을 들였다는 내용은 없다. 즉 “染紙爲衣(염지위의) 爲行李裹(위행이과) 染布爲酒搾袋(염포위주착대)”라는 문장이 나오지만 이것은 의류용 종이¹⁰²⁾에 감물을 들이거나, 여행용 행낭 보자기에 감물을 들이거나, 베와 같은 천

96) 柳重臨 著, 고농서국역총서 4 『增補山林經濟I』 卷之三 種樹 柿, 농촌진흥청, 2003.

97) 崔漢綺 著, 고농서국역총서 11 『農政會要II』 卷10 農餘 柿, 농촌진흥청, 2006.

98) 徐有渠 纂, 『林園十六志』第2卷「贍用志」卷3 設色之具 柿漆, 서울大學校古典刊行會, 1966.

99) 문혜숙, 동아일보 1967년, 1월, 4일

100) 진성기(1960), 앞의 책

101) 박순자. 2011. 한국과 일본의 감즙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1). 77-84

102) 의류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종이를 만든 옷본에 감물을 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옷에 감물을 들인 것은 아

에 감물을 들어 술 짜는 포대를 만들었다는 내용이다.¹⁰³⁾ 그리고 1920년대부터 일제강점기의 신문들을 조사한 결과에서도 감물염색이나 갈옷이 다른 지역과 연관되어 나타난 사례가 없었던 점과 제주기행문에서 감물염색이나 갈옷이 매우 기이하고 제주만의 특색이라고 서술된 점을 고려할 때¹⁰⁴⁾ 1940년대에 진도지역에서 감물염색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제주만큼 성행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감물을 옷이 아닌 다른 측면에서 활용한 사례는 일제강점기의 신문기사들에서도 관찰된다. 이것은 김제에 거주하는 독자가 그물을 오랫동안 보존하여 사용하기 위해 질문한 시삽제조법(柿澁製造法)에 대한 답변,¹⁰⁵⁾ 배나무의 병충해 예방을 위해 시삽을 도포하는 것에 대한 글,¹⁰⁶⁾ 원료청시(原料淸柿)를 절구에 찌어 압착하여 감즙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진 원료시칠(原料柿漆)을 다양한 종류의 종이, 기구, 건축재료, 선박 등의 내구력 강화, 방부, 방수, 결측과 같은 기능을 강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는 글¹⁰⁷⁾에서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강화도¹⁰⁸⁾, 의성군¹⁰⁹⁾ 등에서 부업으로 시삽(柿澁)을 생산하거나 판매하였던 사례들을 신문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의복 용도에 특화되어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어망이나 낚시줄 등의 어구나 양조용 주머니를 비롯하여 주로 산업 자재의 염색에 이용된 일본의 감물염색 문화와도 차별화되는 것이다.¹¹⁰⁾ 물론 제주에서도 옷 이외에 갈치 잡는 낚시줄,¹¹¹⁾ 장판지, 그물, 고리짜, 구덕, 창호지, 뽕방, 명석 등 다른 것들에도 감물을 이용했다는 보고들이 있지만¹¹²⁾ 옷에 감물들이는 것 만큼 보편화된 문화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것은 농업과 어업 인구의 감소, 도시화, 기계화 등으로 인해 제주지역에서도 점차 사라진 반면 감물들인 ‘갈옷’이나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함께 현대적 갈옷으로 제주 사람들에게 아직까지 전승된 것으로 판단된다.

柿染法(시염법) 每柿一升(매시자일승) 搗碎用水半升(도쇄용수반승) 釀四五時搾取染(양사오시착취염) 令乾
染水再取(령건염수재취) 亦得可供雨傘用(역득가공우산용)¹¹³⁾
柳重臨, 『增補山林經濟』卷之三 種樹

崔漢綺, 『農政會要』卷10 農餘

감물을 들이는 방법은 감씨(柿子)1되를 찧어 부수고 물 반 되를 부어 4~5시간 정도 뒤섞어 두었다가

님. 그러나 이 책의 번역본에는 “종이에 물들여 옷을 만들거나”로 되어 있어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103) 徐有渠 纂(1966), 앞의 책; 崔漢綺 著(2006), 앞의 책

104) 권덕규, 동아일보, 1924년 8월 29일

105) 조선일보 1935년, 2월 27일

106) 조선일보, 1920년, 7월 16일

107) 동아일보 1936년 9월 16일

108) 동아일보, 1928년 10월 16일

109) 동아일보, 1934년 12월 12일

110) 박순자(2011), 한국과 일본의 감즙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사회생활과학회지, 22(1), 77-84

111) 고광민(1985), 제주도 민구(II), 탐라문화, 제4호, p. 265

112)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113) 괄호 안의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짜서 물감을 취한다. 찌꺼기를 말렸다가 물을 재차 취해도 된다. 우산을 만드는 데 쓸 수 있다.

유중립 저, 고농서국역총서 4(2003), 『증보산림경제』

최한기 저, 고농서국역총서 11(2006), 『농정회요II』

梲(비시) 一名漆梲(일명칠시) 一名綠梲(일명녹시) 一名靑梲(일명청비) 一名烏梲(일명오비) 一名花梲(일명 화비) 一名赤棠梲(일명적당시) 乃梲之小而卑(내시지소이비) 者生江淮宜歙荊襄閩廣諸州(자생강회선흡형양민 광제주) 雖熟亦深綠色大如杏(수숙역심록색대여행) 味甘可生啖(미감가생담) 搗碎浸汁謂之梲漆(도쇄침즙위지 시칠) 可染罽毼諸物(가염증선제물) 域我東南海等地有梲(역아동남해등지유시) 色靑雖至霜降色不變(색청수지 상강색불변) 噉之味甘(담지미감) 名甘子梲(명감자시)¹¹⁴⁾

- 崔漢綺, 『農政會要』 卷10 農餘

비시(梲)는 일명 칠시, 일명 녹시, 일명 청비, 일명 화비, 일명 적당시이니, 감나무 중에 작고 낮은 것을 말한다. 강주, 회주, 선주, 흡주, 형주, 양주, 민주, 광주 등지에서 나는데 비록 익더라도 짙은 녹색이며, 크기는 살구만 하다. 맛은 달아서 날로 먹을 만하며, 찢어 부수어서 즙에 담그는 것을 시칠(梲漆)이라고 일컫는데 어망이나 부채(扇) 등의 물건을 염색할 수 있다. -중략- 우리나라 동남쪽 바다 등지에 감이 있어, 푸른색이 나는데 비록 상강이 지나도 색이 변하지 않고 먹으면 맛이 달아서 단감(甘子梲)이라고 부른다.

- 최한기 저, 고농서국역총서 11(2006), 『농정회요II』

[梲漆](시칠)

梲漆造法(시칠제법) 梲一斗去蒂(비시일두거체) 和水二升五合(화수이승오합) 碓搗盛桶(대도성통) 經宿搾之(경숙작지) 渣亦和水(사역화수) 經二日(경이일) 再搾之(재작지) 其用甚多(기용심다) 染紙爲衣(염지위의) 爲行李裏(위행이과) 染布爲酒榨袋(염포위주작대) 或和墨塗箕(혹화흑도견) 皆爲水不易朽(능의수불양후) 或漆塗之下(혹칠도지하) 先用梲漆(선용시칠) 凡梲漆(범시칠) 夏月焦枯難貯(하월초고난저) 茄子切片投入(가자 절편투입) (案) (인) 今嶺湖南團扇(금영호남단선) 摺疊扇之黑漆者(접첩선지흑칠자) 皆梲漆也(능시칠야) 東北峽民斲木作槃盒之類(동북협민선목작반합지류) 先用梲漆作底(선용시칠작저) 然後以漆刷其上(연후이칠별기 상) 則與全漆無異(즉여전칠무이) 又房室天板上既塗紙(우방실천판상기도지) 後用松煙爲底(후용송연위저) 復上梲漆數度(부상시칠수삼도) 則光潤可鑑人(즉광윤가감인) ○ 和漢三才圖會(화한삼재도회)¹¹⁵⁾

- 徐有渠, 『林園十六志』 第2卷 「瞻用志」 卷3 設色之具

시칠(감물칠)

시칠 만드는 법은 다음과 같다. 땡감 1두의 꼭지를 떼고 여기에 물 2.5승을 섞어 방아로 찼고 통에 담았다가 하룻밤이 지나서 찐다. 남은 찌꺼기도 물을 섞어 이틀을 묵혔다가 다시 찐다. 그 용도가 매우 많아 종이에 물들여 옷을 만들거나,¹¹⁶⁾ 여행용 보자기를 만들거나, 베에 물들여 술 찌는 포대를 만들거나, 먹에 개어 대 흡통을 칠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모두 물에 쉽게 썩지 않는다. 또는 옷칠 하기에 앞서 먼저 시칠을 쓰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시칠은 여름에는 말라서 저장이 어려우므로 가지 조각을 넣어 준다. 【(인) 지금 영호남의 동글부채나 접부채의 검은 칠은 모두 시칠이다. 동북의 산골백성은 나무를 갈이틀로 동글게 깎아 대야나 합 따위를 만들 때 먼저 시칠로 바탕을 칠한 뒤 그 위에

114) 괄호 안의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115) 徐有渠 纂(1966), 앞의 책

116) 의류를 제작할 때 사용하는 종이를 만든 옷본에 감물을 들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한문 번역 검토 필요함

옷을 문지르는데, 이렇게 하면 전부 옷으로 칠한 것과 다름이 없다. 또 방의 천장널 위에 종이를 바른 뒤에 송연으로 바탕을 칠하고 다시 그 위에 2~3번 시칠을 하면 광이 나서 사람을 비출 수 있다.】《화한삼재도회》¹¹⁷⁾

-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2016), 『임원경제지 섬용지 2』

2) ‘갈옷’ 용어의 등장과 사용

앞에서 제시했듯이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들이기의 가장 큰 특징은 옷에 감물들이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자료들에서는 이와 관련한 내용들을 한자를 써서 ‘옷에 감물들이다(柿染衣)’ ‘감물들인 옷(柿澁衣類)’ ‘감물염료(柿澁染料)로 물드린’ 등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 사람들은 감물들인 옷을 ‘갈옷’이라고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진성기(1979)는 『제주 민속의 멋 1』에서 ‘갈옷’이란 ‘감옷’을 뜻하며, 한자 말이 아닌 순우리말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1920년부터 1999년까지의 신문에서 ‘갈옷’이란 용어를 검색한 결과, ‘갈옷’이란 한글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은 1931년 조선일보에 실린 제주도 기행문에서이다.¹¹⁸⁾ 이 기행문에는 제주를 떠나면서 보게된 노인이 착용한 ‘검은 갈옷’에 대한 묘사가 있다. 여기서 갈옷이 검은 색상으로 묘사된 것은 멀리서 본 것이라 부정확했을 수도 있지만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색되는 갈옷의 특성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감물들인 옷은 처음에는 적갈색이지만 입으면서 땀이나 세탁 비누의 알칼리성 성분으로 인해 검은 색상으로 변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1965년 동아일보에서도 ‘갈옷’이란 용어를 볼 수 있다. 이것은 제주에 거주하는 주부가 ‘제주 갈옷’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글로서 제주에서 행해지는 감물염색과 갈옷의 장점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이 외로운 섬에 사는 사람을 자세히 탐색하얏더니 모옥에서 나부깨이는 검은 갈옷 입은 노인 한분과 젊은 처녀가 해안 쪽으로 무엇을 가지고 오는 것이 보인다. 어엿분 섬의 처녀여-얼마나 대륙이 그리우냐? 이러한 동안에 배는 점점 제주도를 멀리 뒤에다 남기고 수평선에 연하여 서남방의 대양으로 나가 버렸다.

- 홍양명, 조선일보 1931년 4월 10일

나는 제주도에서 널리 애용되는 노동복(갈옷)을 권장하고 싶다.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찧어서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

- 문혜숙, 동아일보 1965년 9월 9일

한글로 ‘갈옷’ 혹은 ‘감옷’이라고 표기한 사례는 1965년과 1968년에 발행된 제주에 관한 문헌들에서도 관찰된다. 1965년에 발행된 『제주도 대한지지 I』에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國産(외국산)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노동복)으로서 질기고 簡便(간편)하고 經濟的(경제적)이다”라는 문장이 있다.¹¹⁹⁾ 그리고 ‘갈옷’은 아니지만 ‘감옷’이란 용어가 1968년에 발행된 『원대정군지』에서 관찰된다.¹²⁰⁾ 이 문헌은 대정현의 설치부터 대정 지역의 역사, 자연환경, 각종 시설 등을

117) 풍석 서유구 지음 임원경제연구소 옮김, 『임원경제지 섬용지 2』, 풍석문화재단, 2016.

118) 조선일보 931년 4월 10일

119)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I』, 한국지리연구소. 한자의 괄호 안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함

120) 고병오, 박용후(1968), 『元大靜郡誌』, 제주:박문출판사. 한자의 괄호 안 한글 음은 필자가 추가

한문과 한글 혼용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 문헌에는 영조 39년(1763)에 대정면 감산리에 유배왔던 심래복(沈來復)과 얹혀 대정 마을 사람이 한양(皇城)으로 압송되어 심문을 받을 때 그 대정 사람이 ‘갈옷’으로 인해 죄를 면한 내용을 ‘시의면화(柿衣免禍)’라는 소재목으로 소개하였다. 즉 심문하는 형관(刑官)이 착용한 ‘갈옷’이 특이하여 이에 대해 질문하자 대정 사람이 “이것은 濟州(제주)의 農夫(농부)의 옷인데 밭일을 하는 날 王命(왕명)이 忽然(홀연)히 내렸으므로 이것을 벗을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대답하자, 형관이 이를 불쌍히 여겨 죄를 면하였다는 내용이다. 대정 사람의 답변에 따를 때 영조 39년(1763) 대정면 감산리에서는 농부들이 갈옷을 입고 일했음을 알 수 있으며, 『원대정군지』를 작성하던 1968년에는 이 감물들인 옷을 한자(柿衣)와 한글(갈옷)로 혼용하여 표기하거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갈옷’을 한글로 표기한 사례는 “이 갈옷이야말로 위생상으로나 경제적 면으로나 “나이롱” 이상의 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 라고 서술한 진성기의 1969년 저서 『남국의 세시풍속』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¹²¹⁾ 이러한 사례들은 일부 연구자들¹²²⁾이 제주의 민속복식인 ‘갈옷’을 ‘갈옷’으로는 부르지 않았다는 주장과는 다른 것이다. 따라서 제주에서는 적어도 1960년대 중반에는 ‘갈옷’과 ‘갈옷’이란 용어가 혼용되어 사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國產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으로서 질기고 簡便하고 經濟的이다
-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1』

皇城(황성)에 이르러 裸體(나체)로 刑(형)을 실문할 때 갈옷이 나타나므로 刑官(형관)은 처음으로 갈옷을 본데 놀라서 特異(특이)하게 여겨 물었더니 대답하기를 “이것은 濟州(제주)의 農夫(농부)의 옷인데 밭일을 하는 날 王命(왕명)이 忽然(홀연)히 내렸으므로 이것을 벗을 겨를이 없었습니다”라고 하였다. 刑官(형관)은 그 事情(사정)을 들을 때 불쌍한 생각이 나서 임금께 여쭙어 赦免(사면)하였다.
- 고병오, 박용후(1968), 『元大靜郡誌』

이렇게 보아가면 사실 외국에서는 “나이롱”을 노동복으로 입는다고 하지만, 이 갈옷이야말로 위생상으로나 경제적 면으로나 “나이롱” 이상의 정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싶다.
- 진성기(1969), 『남국의 세시풍속』

1960년대 이후 1999년까지 ‘갈옷’이란 용어가 신문에서 사용된 사례를 연대별로 검토한 결과, 2건만 관찰되었던 1960년대와 달리 1970년대(5건), 1980년대(3건), 1990년대(28건)로 갈수록 ‘갈옷’이란 한글 용어의 사용은 증가하였으며 이 용어는 거의 모두 제주와 연관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1920년대와 1999년 사이에 신문에 발표된 갈옷에 관한 38건의 글들 중에서 37건이 제주와 관련되었다. 즉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진행하는 감물들이기 시연에 관한 홍보 기사 1건을 제외하고는¹²³⁾ 모두 제주와 연관되어 있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한문과 한글을 혼용하여 표기하던 일제강점기는 물론 본 연구의 신문자료 조사 범위인 1920년부터 1999년까지 약 77년 동안 ‘갈

121) 진성기(1969), 『남국의 세시풍속』, 제주: 제주민속문화연구소. p. 260

122) 이혜선, 박지혜, 고은숙(2009), 제주의 감물염색. 제주: 제주사람들. p. 21

장현주(2004), 한국 전통 모직물의 유형과 특성, 복시, 54(8), p. 89.

123) 동아일보, 1998년 7월 25일

옷'이란 단어가 한자로 표기되거나 한자와 함께 표기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현재 제주 사람들이 사용하는 '갈옷'이란 용어는 진성기의 의견대로 순 우리말 표현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대정마을에 관한 내용에서 한글표기인 '감옷'과 한자 표기인 '柿衣(시의)'가 하나의 단락에 함께 혼용되어 표현되는 점을 고려할 때, '갈옷'이란 용어는 '가죽 옷' 보다는 '감옷'이나 감옷의 색상인 '갈색'과 연관성이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갈옷' 용어의 기원은 더 많은 객관적 자료의 확보가 필요하므로 여기서는 추후의 과제로 남겨둔다. 다만, 본 연구에서 조사한 문헌과 자료들에 의할 때 '갈옷'이란 순우리말 용어는 적어도 1931년 이전부터 사용되어 현재까지 약 92년 동안 이어져 온 것으로 확인된다.

요약하면, '갈옷'이란 용어는 한문으로 표기되지 않는 순우리말이란 점이 명확해 보인다. 1931년 조선일보 신문에 '갈옷'이란 용어가 등장한 점을 보아 이 명칭은 현재까지 적어도 92년 이상 사용되어 온 것으로 확인된다. 이것은 현재 우리가 감물들이 옷을 '갈옷'이란 명칭으로 부른 역사 또한 거의 100년에 가깝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상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남국의 세시풍속에 나오는 이야기로 12세기-13세기 어느날 어부가 낚시줄에 감물을 들였더니 고기가 잘 잡혔다는 전설¹²⁴⁾과 제주도 고씨 문중의 역사를 기록한 『탐라성주유사』에서 갈옷과 감물염색이 원나라 말 윤남성의 묘족들에 의해 전해졌을 것이라는 추측¹²⁵⁾에 의하면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 역사는 약 12세기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전설과 추측을 예외로 하고 본 연구에서 조사한 고문헌과 한시들에서 관찰한 객관적인 기록에만 근거한다면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 역사는 윤봉조의 저서인 『포암집』에 실린 '도중잡영' 한시의 배경이 되었던 조선 후기(1728-1729년) 이전인 것이 명확하다. 따라서 제주에서의 '감물들이기'는 조선시대부터 현재까지 약 300년 이상의 역사를 통해 전승되어왔음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 문화는 주로 옷의 염색에 특화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착용되었던 감물염색된 옷은 남성과 여성의 상의인 갈적삼과 남성의 하의인 갈중이와 여성의 하의인 갈굴중이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주에서 행해진 옷에 감물들이는 문화나 감물들이 옷의 착용은 조선시대부터 일제강점기까지도 일상적으로 성행되어 왔으며, 다른 지역의 감물염색 문화와도 차별적임이 확인되었다.

III.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의 변천 양상

의복은 정치, 사회, 문화, 기술의 변화와 맞물려 형태, 소재, 차림새 등이 함께 변화한다. 본 연구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 현재까지 제주 갈옷의 변천 과정을 제주 지역의 산업구조와 경제적 수준의 변화, 나일론과 화학섬유의 보급, 국가의 정책적 측면과 연관시켜 고찰하였다. 특히 시대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갈옷의 종류와 형태, 갈옷의 착용 여부와 차림새, 갈옷의 제작 주체와 감물들이는 대상, 감물들이는 소재와 방법을 중심으로 변천 양상을 분석하였다.

124) 진성기(1969), 앞의 책

125) 탐라성주유사편찬위원회(1979), 앞의 책

김태능(1982), 앞의 책

1.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의 제주 갈옷

1) 1940년대와 1950년대의 갈옷 착용 현황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제주에서 착용되었던 제주 갈옷에 대해 설명하는 문헌이나 논문은 찾기 어렵다. 신문기사 검색에서도 ‘갈옷’ ‘감옷’ ‘감물’ ‘감물들이’ ‘시염’ ‘시삽’ ‘시칠’ ‘시자염’ ‘시줍’ ‘시수’ 라는 용어는 한글로도 한자로도 관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1950년대에 제주에서 집집마다 행해졌던 감물들이기 문화나 갈옷 착용이 완전히 사라졌거나 갈옷 착용이 단절되었던 것은 아니다. 이것은 시대적 상황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는 6.25전쟁으로 한국 경제가 성장 기반을 잃고 절대 빈곤의 악순환에 빠진 시기이다.¹²⁶⁾ 제주 또한 1947년 3월에 발생한 4.3사건이 7년 동안 계속됨에 따라 지역경제가 초토화된 경제 정체기였다.¹²⁷⁾ 1950년대 제주의 지역경제는 전통적인 농업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기 때문에¹²⁸⁾ 일제강점기에 이용되었던 갈옷이 계속 입혀졌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면접에 참여한 80세와 90세 가까운 노인 여성들은 1930년대부터 1950년대까지 제주에서 감물들이기를 직접 했거나 자주 보았다고 응답하였다.¹²⁹⁾ 그리고 1940년대에 국내에 유입된 나일론은 1950년대까지도 가격이 비싸고 사치품으로 인식되어 국내에서도 대중화되지 못했던 상황이었어서¹³⁰⁾ 제주의 갈옷을 대체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2) 1940년대의 갈옷 종류와 형태

1940년대 제주에서 착용되었던 갈옷은 사진 자료에서도 거의 확인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제주 100년』¹³¹⁾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¹³²⁾ 사진집들에서 연도가 명확히 기록되어 있는 단 2장의 사진들을 통해서만 1940년대 후반에 입혀졌던 제주 갈옷에 대해 엿볼 수 있었다. 하나는 4.3사건이 진행 중이던 1948년 여름에 토벌대와 함께 있는 중산간 청년이 착용한 갈옷이며, 또 다른 하나는 1949년에 말을 끌고 귀가하는 남성 노인이 착용한 갈옷이다. 중산간 청년과 남성 노인이 착용한 갈옷 상의는 한복 깃이나 고름은 없는 대신 등근 목 파임이 있고, 단추로 좌우 앞판을 여미게 된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이었다. 사진상으로는 단추와 포켓 숫자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지만, 갈적삼의 길이가 허리까지인 점을 고려하면 단추가 여러 개 달리고 포켓도 좌우 2개 달린 것으로 파악된다. 1940년대의 갈옷 하의는 두 가지 유형으로 확인되었다. 하나는 중산간 청년이 착용한 갈옷으로 하의가 엉덩이 품은 매우 넉넉하고 바지통은 발목까지 혈령하게 내려오다가 발목에서 오므려진 형태이다. 노인이 하의에 착용한 갈옷은 한복 바지 형태이다. 즉 허리에서 바지를 끈으로 메고 허리 위로 나온 부분을 접어서 끈 아래로 내리는 착용 방식이었다. 그리고 바지

126) 구본호, 이규역(1991), 『한국경제의 역사적 조명』, 한국개발연구원, 서울: 한국컴퓨터산업(인쇄) 주식회사, 1991(pp. 166-177).

127) 김태보(1995), 제주지역경제의 발전사적 고찰, 사회발전연구, 14, 451-466.

128) 김태보(1995), 앞의 논문

129)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130) 홍병숙, 정미경(1996),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산업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70 고분년을 중심으로-, 복식, 28, 31-46.

131) 제주도, 『제주 100년』, 현대문화인쇄사, 1996, p. 109

132)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 제주: 도서출판각, 2009.

의 엉덩이 품은 넉넉하고 발목 부분은 오므리지 않고 일자로 내린 형태였다. 한편, 해방 이후 1940년대에 촬영한 여성의 갈옷 차림은 찾기 어려웠으며, 몇 개의 사진에서 갈옷으로 추측되는 모습이 있었지만 사진 상으로는 그 형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다. 195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알려진 사진들에서는 여성들이 착용한 갈옷이 관찰되었다.

〈표 2〉 1940년대 제주 갈옷

	
중산간의 주민과 토벌대(1948년)¹³³⁾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어느날의 귀가(1949년)¹³⁴⁾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3) 1950년대의 갈옷 종류와 형태

1950년대에 주로 촬영된 것이라고 서문에 쓰여진 만농 홍정표 선생의 사진집 『제주 사람들의 삶』¹³⁵⁾ 『제주 사람들의 삶Ⅱ』¹³⁶⁾에는 농사일을 하는 농부나 어선을 배경으로 고기잡는 일을 하는 어부들이 등장한다. 사진에 등장하는 등짐진 여인, 조이삭을 따는 여인, 멧돌 돌리는 여인, 연자방아 돌리는 남녀, 마께 두드리는 노인, 자리거리는 어부들 대부분이 상의와 하의에 갈옷을 입고 있었다. 사진에서 관찰되는 옷들을 통해 1950년대 남녀 갈옷의 형태와 특징을 파악하였다. 1950년대의 남성용 갈적삼은 두 가지 유형이다. 하나는 깃은 있고 고름은 없는 한복 저고리 형태로 깃이 끝나는 지점에 단추 1개가 달려서 좌우를 여밀 수 있게 되어있으며 길이가 허리까지였다. 또 하나는 마고자 형태로 깃이나 고름이 없고 단추가 여러 개 달려서 좌우를 여미게 된 형태로 길이는 허리까지였다. 1950년대의 갈중이는 한복바지 형태로 엉덩이 품이 크고 바지통이 넉넉한 형태였으며 발목 부분이 오므려진 형태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홍정표의 사진집에 나오는 여성들의 갈옷차림은 거의 모두가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이었다. 즉 저고리에 깃이 달려 있고, 깃이 끝나는 지점에서 매듭단추 하나로 좌우를 여미는 갈적삼이었다. 특히, 1950년대 여성용 갈적삼은 저고리 길이가 매우 짧아 갈적삼 안에 입은 속옷이 겉으로 드러나 보였으며, 갈적삼 품은 꼭 끼는 것이 특징이었다. 1950년대 여성들이 하의에 주로 착용한 갈

133)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 자료집

134) 제주도(1996), 앞의 사진 자료집

135) 제주대학교(2002), 『만농 홍정표선생 사진집 제주사람들의 삶』, 서울: (주)일원퍼낸씨.

136) 제주대학교박물관(1995), 『만농홍정표선생사진집 제주사람들의 삶Ⅱ』, 서울: (주)로얄프로세스.

옷은 허리 아래로 주름이 풍성히 잡히고, 엉덩이 품과 바지통은 넓고, 발목이 오므려진 몸빼 형태였다.¹³⁷⁾ 이것은 일제강점기인 1937년에 이즈미 세이치가 제주에서 관찰한 갈옷, 즉 허리 밑으로 주름이 많이 잡히고 무릎 밑에서는 남자 한복처럼 끈으로 묶는 형태와는 다른 모습이다. 특히, 1950년대 사진들에서 관찰된 갈몸빼인 경우, 허리 부분과 발목 부분의 형태가 각각 두 가지로 구분되었다. 즉 허리 부분을 굴중이처럼 너비가 넓은 천으로 덧댄 형태와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형태가 있었다. 허리에 천을 댄 경우는 끈으로 묶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발목 부분 또한 천으로 된 좁은 단을 붙이거나 고무줄을 넣어 바지를 오므린 형태가 관찰되었다. 발목에 천을 댄 경우는 끈으로 묶지 않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만들 때부터 좁은 단을 붙여 바느질 한 것이다. 이것은 6.25 전쟁 이후 1950년대에 일본식 몸빼가 대중화됨에 따라¹³⁸⁾ 허리 단이 천으로 되어 있는 굴중이와 고무줄을 넣는 몸빼가 융합되어지면서 나타난 변화로 판단된다. 한편, 1950년대의 갈옷 차림에서는 검정색의 적삼이나 몸빼를 갈옷과 함께 입은 사례도 자주 관찰된다. 검정색 의복은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의 의복개량과 백의금지를 위해 검정색 염료의 보급과 함께 권장되다가 해방 이후 민속의식 고취로 백의를 착용하다가 1950년대 6.25 전쟁으로 인한 물자결핍과 경제성과 실용성 등의 이유로 다시 애용되었다.¹³⁹⁾

요약하면,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 남성이 착용한 갈적삼은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과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의로 입혀진 갈중이는 엉덩이 품은 크고, 밑은 길었으며, 발목 부위는 끈으로 묶은 것과 그냥 일자로 내린 2개 유형이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여성이 상의에 착용한 갈적삼은 저고리 형태로 길이가 매우 짧고 품이 꼭끼는 것이 특징이다. 하의로 입혀진 갈몸빼는 허리와 발목 부위에 천을 댄 것과 고무줄을 넣은 것이 있었다. 끈으로 묶지 않고 고무줄을 넣은 형태는 1937년 일제강점기에 이즈미 세이치가 관찰한 갈옷과 다른 점으로 해방 이후 1940년대와 1950년대로 오면서 변화된 갈옷의 특징으로 판단된다.

137) 제주도(1996), p. 146

138) 조우현, 김미진(2015), The Journey of Duty to Korea in 1954~55를 통해 본 한국패션, 복식, 65(7), 287-7827.

139) 조우현, 김미진(2015), 앞의 논문

〈표 3〉 1950년대 제주 갈옷

	
덩드렁과 덩드렁 막개¹⁴⁰⁾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연자매¹⁴¹⁾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 갈중이, 갈몸뻔
	
짐 지어 나르기¹⁴²⁾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갈몸뻔	마차끄는 아낙네(1951)¹⁴³⁾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검정 몸뻔

2. 196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1960년대의 갈옷 착용 현황과 갈옷 형태

1960년대는 한라산 제1횡단도로인 5.16도로를 포장하고 일주도로, 항만, 제주공항, 전력과 통신, 상수도 등을 확장하며 경제개발을 추진하던 시기이다.¹⁴⁴⁾ 이 시기에 제주를 두 번째로 방문했던 이즈미 세이치는 1937년에 생활필수품처럼 입혀지던 갈옷이 1965년에는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여성들은 주로 육지 풍의 복장을 하고, 남성들은 양복이나 제복 차림이었다고 기록하였다.¹⁴⁵⁾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 포함된 1960년대의 관덕정 사진(1962년 이전), 서문시장 주변에 열린 오일장 사진(1967년 7월, 10월), 중앙로 거리 사진(1960년대 말) 등에서 갈옷은 거

140) 제주대학교(2002), 『만능 홍정표선생 사진집 제주사람들의 삶』, 서울: (주)일원퍼낸씨.

141) 제주대학교(2002), 앞의 사진자료집

142) 제주대학교(2002), 앞의 사진자료집

143) 제주도(1996), 앞의 책

144) 김태보(1995), 앞의 논문

145)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의 관찰되지 않았다¹⁴⁶⁾.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세시풍속』에서도¹⁴⁷⁾ 갈옷을 옛날 탐라 사람들이 척박한 생활을 개척하는데 기여한 향토적 민속공예품으로 묘사하였다. 특히 1965년에 발행된 『제주도 대한지지』에는 갈옷과 외국산 나일론 옷을 비교하는 내용이 나온다.¹⁴⁸⁾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1960년대 중반 이후 시내에서는 나일론 옷이 입혀지면서로 갈옷을 일상생활에서 착용하는 사례는 감소하고 주로 작업 상황에서만 입혀졌던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60년대 제주 농업은 전근대적인 면모를 벗어나지 못하였으며, 1960년대 초까지도 제주의 영농방식은 원시적이었고 생산성은 매우 낮았다.¹⁴⁹⁾ 당시에는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 분야로의 취업률이 81%-86.5%에 달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업에 종사하였다.¹⁵⁰⁾ 1960년대의 이러한 농업 환경을 고려할 때 갈옷은 주로 농촌 지역에서만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60년대의 갈옷의 종류나 형태는 사진집에 등장하는 시각적 자료를 통하여 파악하였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 역사』¹⁵¹⁾ 『제주 100년』¹⁵²⁾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¹⁵³⁾에 포함된 1960년대 사진들 중에서 갈옷차림이 등장하는 사진들은 거의 모두 농사일, 도로와 포구의 공사, 어항과 어선 주변에서의 작업, 통조림 공장에서의 작업, 부두 방파제에서 곡식을 말리는 작업, 마소나 마차를 끄는 상황 등을 촬영한 것들이었다. 등짐을 지는 상황, 미역해경기를 맞아 바다로 나가는 작업 상황을 배경으로 촬영된 것들이었다. 이 사진들에 근거할 때 1960년대에 남성들이 착용한 갈옷 차림은 갈적삼과 갈중이를 입은 차림과 서양복 상의와 갈중이를 입은 차림 두 유형이었다. 1960년 사진에서 관찰된 마고자형 갈적삼과 갈중이는 195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서양복 상의는 주로 남방 셔츠와 티셔츠 차림이었다. 1960년대 사진에 나타난 여성의 갈옷 차림 또한 갈적삼과 갈몸빼, 서양복 상의와 갈몸빼 두 유형이었다. 착용된 여성의 갈몸빼는 허리 아래로 주름이 풍성하게 잡히고, 엉덩이 품과 바지통도 넉넉하여 1950년대 형태와 유사하였다. 갈몸빼와 함께 착용된 서양복 상의는 주로 스웨터, 블라우스, 티셔츠 형태였다. 남성과 여성 모두 갈중이 혹은 갈몸빼 위에 갈적삼을 착용한 경우 보다 서양복을 입은 경우가 더 많이 관찰되었다.

한편, 1960년대 제주 갈옷 문화의 특징 중 하나는 남녀 갈옷 모두를 갈중이로 통칭하여 부른다는 점이다. 이것은 1960년대와 그 이후 문헌이나 자료에 나타나는 특이한 점이다. 예컨대, 1960년대 신문에서는 ‘갈중이’란 용어가 단 1건만 관찰되었는데, 관찰된 1964년 조선일보 신문에 갈옷 차림으로 등장한 사람은 할머니였다. 이것은 이즈미 세이치가 1937년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각각이 착용하는 갈옷으로 裋褐男子袴衣·中衣(시삽남자고의·중의)와 裋褐女子袴衣(시삽여자고의)를 제시하고, 이 두 종류의 갈옷 형태를 다르게 구분한 점과 다른 것이다. 이렇게 남녀 갈옷을 통칭하여 갈중이로 부르게 된 것은 단속곳에 뿌리를 둔 갈굴중이가 사라지고 상의에도 갈옷을 거의 입지않게 됨에 따라 여러 종류의 갈옷 중에서 가시성이 높은 것은 남자가 밭일이나 야외에

146)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1』, 도서출판 각, 2010.

제주특별자치도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2』, 도서출판 각, 2010.

147) 진성기(1969), 앞의 책

148)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1』, 한국지리연구소.

149) 고려대 경제연구소, 지역경제발전패턴과 제주도의 산업개발전망, 1984, pp. 119-120.

150) 김태보(1995), 앞의 논문

151)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152) 제주도(1996), 앞의 사진자료집

153)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제주여성, 어떻게 살았을까, 사진자료집』, 제주여성사 자료총서.

서 일할 때 하의에 착용했던 갈증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그 외 여성이 하의로 착용하는 갈몸 빼인 경우 일본 잔재라는 점에서 이 명칭에 대한 사용이 회피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이 갈옷을 통칭하여 갈중이로 부르거나, 하의로 착용하는 갈옷 모두를 남녀 구분없이 갈중이로 부르거나, 갈몸빼란 용어 대신 여자 갈중이로 부르는 사례는 1960년대 이후 1990년대까지의 자료들에서도 계속 관찰된다. 예컨대, 제주민속복식에 관한 1972년 고부자의 논문에서도 남녀 공용 하의를 갈중이로 통칭하여 불렀다는 내용이 있으며, 여성이 하의로 착용하는 갈옷을 ‘갈중이(굴중이)’로 표기하고 있다.¹⁵⁴⁾ 1996년 제주민속박물관 관장이었던 진성기 또한 『濟州島議定』에 발표한 글에서 원고 제목을 ‘갈중이’로 의뢰받았지만 이는 갈옷을 의미하므로 제목을 ‘갈옷’으로 변경한다고 서술하였다.¹⁵⁵⁾ 갈옷을 갈중이란 용어로 통칭하는 1990년대 신문기사¹⁵⁶⁾ 서적, 논문, 간행물에 실린 글들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용어들의 혼용 사례,¹⁵⁷⁾ 박물관 유물 관리 카드에 여성용 갈옷을 갈중이로 표기하는 사례 모두 1960년대 부터 민간에서 나타난 이러한 용어 혼용 현상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된다.

〈표 4〉 1950년대 제주 갈옷

말과 마차의 행렬(1960년대) ¹⁵⁸⁾ 갈적삼, 갈중이	추곡수매 (1960년대 초반) ¹⁵⁹⁾ 갈적삼, 갈몸빼
일주도로 공사(1969) ¹⁶⁰⁾ 서양복, 갈몸빼	서귀포 여항의 아침(1960년대) ¹⁶¹⁾ 서양복, 갈몸빼

154) 고부자(1972), 앞의 책

155) 진성기(1996), 앞의 책

156) 장승홍, 조선일보 1991년 9월 3일; 허호준, 한겨레, 1994년 6월 7일

157) 진성기, 갈중이와 제주인의 지혜, 제주도 지방의정, 1996, 5, 354-356.

진성기, 고부자(1972), 앞의 논문

여덟살때 물에 곤두박아 海女(해녀) 修業(수업), 눈빛은 물색으로 묻어져 이제 누물을흘리는 구실이 고작인 눈 한숨의헛바람을 두갈래로 찢는 송곳니 하나 콧은날씨를 짜릿짜릿 느낀다는 뼈마디만이 살아있는 그런 몸이 누더기 감물「갈중이」옷속에양상하게 담겨져있다. 그 「할매」의 어느 부분에 5백50가지의 민요가 담겨져있는지 모를 일이다.

- 이규태(1964), 조선일보 09월06일

2) 1960년대의 감물들이기

1960년대 제주 갈옷 문화에서 주목할 점은 갈옷 제작 방식에서의 변화와 감물들이는 대상의 변화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에는 감물들인 옷이 입던 옷인지 새 옷인지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옷을 만든 후 감물을 들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1967년도 동아일보에 발표된 ‘제주 갈옷’에 대한 글에서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찧어 생긴 물을 옷감에 들어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라는 문장을 볼 수 있다.¹⁶²⁾ 이것은 적어도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옷감’에도 감물을 들였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러나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 세시풍속』 문헌에는 일제강점기에서처럼 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었다고 서술되어 있다.¹⁶³⁾ 이러한 점에 미루어 볼 때 1960년대 중반 이후에는 이미 만들어진 옷에 감물을 들여 갈옷을 만들거나, 옷감인 천에 감물을 들인 후 옷을 만드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갈옷이 제작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1960년대에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대상은 옷과 옷감 두 종류였음을 알 수 있다. 감물들이는 방법이나 절차는 일제강점기와 유사하였다.

『남국의 세시풍속』과 1967년 동아일보에 실린 ‘제주 갈옷’에 관한 글에 따르면, 감물들이기는 6월과 7월 사이에 익지 않는 ‘싱싱한 생감’을 따서 감물을 만들고, 감물에 옷이나 옷감을 담가 물들였으며, 감물에 적셨다가 햇볕에 말렸다가 다시 맹물에 적시고 햇볕에 건조시키는 반복 과정을 통해 발색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특히, 1967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물에 담갔다가 또 말리고 해서 몇 번 거듭해가면 그 색이 고동색으로 짙어간다. 천은 광목이나 무명이 많이 쓰인다.”라는 문장을 볼 때, 감물에 담그는 옷감은 거의 광목이나 무명이었으며, 감물들인 후 옷이나 옷감에 발색되는 색상은 고동색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까지 감물들인 옷의 색상은 적토색 혹은 붉은 갈색으로 갈색에서 드러나는 ‘붉은’ 기미가 강조된 것과는 약간 다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감물들인 색상이 적갈색이 아니고 고동색인 것은 사람에 따라 다르게 표현되는 용어의 차이로 보인다. 즉 1960대 감물들인 옷이 고동색인 것은 감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감의 종류나 감물에 혼합하는 다른 천연염료의 영향은 아니다.

특히, 진성기는 1969년에 발행된 『남국의 세시풍속』에서 일제강점기까지의 자료들과는 달리 감물들인 색상과 재질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 즉 원래 감물들인 색상은 처음에는 붉은 기운이 강하고 재질은 풀먹인 것처럼 뺏뺏하지만 입으면서 시간이 지나면 색상은 점차

158)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159) 제주도여성특별위원회(2001), 앞의 사진자료집

160)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161)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162) 문혜숙, 동아일보 1965년 9월 9일

163) 진성기(1969), 앞의 책

갈색이나 검은 기운이 도는 암갈색으로 변하고 재질 또한 부드러워진다고 하였다. 『남국의 세 시풍속』에는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방법과 감물들인 옷의 장점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특히, 진성기는 감물을 들인 후 옷에 색이 드러나도록 물에 적신 후 햇빛에 건조시키는 발색과정을 ‘햇볕에 바랜다’라고 표기하였다. 이것은 제주사람들이 사용하는 순우리말 표현으로 다른 천연염색과 달리 가열없이 햇볕으로 색상을 내는 감물염색만의 고유한 차별적 특징이다. 허부국은 제주만의 감물들이기 특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감물들일 때 사용되는 용어를 제주사람들의 용어로 전승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¹⁶⁴⁾ 이 저서는 감물들인 옷의 장점을 10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 자료들에서 확인되었던 내용들과 일치한다. 이 내용들에 근거할 때, 1960년대 제주 사람들 또한 감물을 들이면 강도가 더 질겨지는 내구성, 땀이 묻어도 썩거나 땀냄새가 나지 않는 위생성, 비누 없이도 세탁이 가능하고, 감물을 들이면 뽀뽀하여 풀할 필요가 없는 세탁관리성에 대해 잘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몇 주일을 계속 입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먼지나 보릿가스랭이 따위의 거친 오물이 묻어도 쉬이 떨어지는 방오성으로 농사 일이나 목축에 적합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비를 맞아도 쉬이 젖지않아서 몸에 달라 붙지 않는 방수성과 물기가 묻어도 쉽게 떨어지는 발수성 등으로 이슬맺힌 밭에서 일하거나 물결에 젖는 어부들의 일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1960년대에도 제주 사람들은 감은 방부제 역할을 하여 땀이 묻어도 썩거나 땀냄새가 나지 않으며, 몇 주일을 계속 입어도 더러운 줄 모르고, 먼지나 보릿 가스랭이 따위의 거친 오물이 묻어도 쉬이 떨어지며, 비누없이도 세탁이 가능하고, 감물을 들이면 뽀뽀하여 풀할 필요가 없으므로 갈옷은 매우 위생적이고 관리가 용이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리고 감물을 들이면 강도는 더 질기고, 비를 맞아도 몸에 달라붙지 않으며, 물기가 묻어도 쉽게 떨어져 이슬맺힌 밭에서 일하거나 물결에 젖는 어부들의 일에도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였다.

참으로 이 갈옷이야 말로 外國産 나이롱에 못지않는 勞農服으로서 질기고 簡便하고 經濟的이다”

- 우락기(1965), 『濟州道 大韓地誌 1』

나는 제주도에서 널리 애용되는 노동복(갈옷)을 권장하고 싶다. 이것은 아직 채 익지 않은 싱싱한 감을 방아에 썰어 생긴 물을 옷감에 들여서 고동색을 낸 것이다. 물에 담갔다가 또 말리고 해서 몇 번 거듭 해가면 그 색이 고동색으로 짙어간다. 천은 광목이나 무명이 많이 쓰인다. 이 옷은 ① 고동색이니 더러움이 안타고, ② 빨래할 적에 비누가 필요 없어 경제적이고, ③ 언제나 풀한 것처럼 고슬고슬해서 기분이 상쾌하다. 이 옷은 땀 흘려 노동하는 분이면 한번 애용해 볼 만하다.

- 문혜숙, 동아일보 1967년 1월 4일

요약하면, 196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문화에 나타난 가장 큰 변화는 갈중이와 갈몸뼈 위에 갈적삼이 아닌 서양복을 착용하는 갈옷 차림새이다. 이러한 갈옷 차림은 1960년대에 처음 나타난 것으로 제주에서 나일론이나 화학섬유의 옷들이 대중화됨에 따라 전통적 이미지가 강하고 활동에 불편한 저고리 형태의 갈적삼 착용이 감소하는 대신 서양복이 갈적삼을 대체한 것이다. 반면,

164)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갈중이와 갈뭍빼는 노동이나 활동에 편리하기 때문에 1960년대에서도 계속 착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주로 착용되는 갈옷 하의의 활동성과 편리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갈중이와 갈뭍빼의 바지 통이 좁아지고, 갈뭍빼의 발목 부분은 고무줄로 오므려지는 부분적인 변화가 있었던 점도 1960년대 갈옷의 특징이다. 이렇게 하의 중심으로 갈옷이 착용됨에 따라 민간에서는 가시성이 높은 갈옷인 ‘갈중이’ 이름으로 갈옷을 통칭하여 부르게 된 것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옷대신 옷감에 감물을 들인 후 갈옷을 제작하는 방식이 등장한 점 또한 1960년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3. 197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1970년대의 갈옷 착용 현황

1970년대에 제주에는 이전에 구축한 경제기반 시설을 토대로 양적 경제성장은 물론 산업구조에서 질적인 변화를 이루며 고도성장을 달성하였다.¹⁶⁵⁾ 이 당시 제주에는 관광주도형 지역개발전략을 추진하여 특급관광호텔과 쇼핑센터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관광지 면모를 갖추었으며 지역주민의 소득 또한 증가하였다.¹⁶⁶⁾ 이 시기에 농림어업 중심의 1차산업 취업비율(72.2%)은 1960년대보다 15.9% 낮아졌으며, 제주는 전근대적인 농업 방식에서 벗어났다.¹⁶⁷⁾ 특히, 1970년대는 모든 국토의 산업화, 모든 일손의 생산화, 모든 농민의 기술화를 목표로 새마을운동이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농촌 현대화가 추진된 시기이다.¹⁶⁸⁾ 제주 또한 이 시기에 초가지붕을 개량하고 도로를 시멘트로 포장하게 되면서 전통적인 농가들이 자취를 감추었고¹⁶⁹⁾ 전통문화도 급격하게 상실되었다. 1970년대에 촬영된 사진, 신문기사, 논문 자료들에 근거할 때 제주 갈옷 또한 1970년대 중반까지는 입혀지다가 1970년대 후반으로 가서는 거의 자취를 감춘 것으로 판단된다.

1970년대 초반에 갈옷이 제주 사람들에게 입혀졌다는 사실은 1971년 8월부터 10월 약 3개월 동안 제주의 모습을 촬영한 이토 아비토(伊藤亞人) 교수의 사진집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¹⁷⁰⁾을 통해서 파악된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에 포함된 1970년대 사진들, 제주시 화북동에서 있었던 1970년대 새마을운동 현장을 촬영한 사진들,¹⁷¹⁾ 1970년대의 제주'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블로그 사진들¹⁷²⁾에서도 갈옷 차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사진들은 주로 당시 농촌 마을이었던 오라동, 아라동, 외도동, 화북동, 광령리, 애월읍 하가리, 남제주군에서 촬영된 것으로 갈옷은 주로 밭일, 솥굽기, 벽토 만들기, 묘지 정비, 방목, 도로 포장, 마을 길 정비, 정미소에서의 알곡 도정 등과 같이 노동이나 작업 상황에서 착용된 것이었다. 그리고 1975년 경향신문에 발표된 기사에서 “지난 71년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자 벵타이를 매고 반동거리던 청년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명주 바지를 입었던 마을 노인들은 갈옷(제주도 농촌의 작업복)으로

165) 김태보(1995), 앞의 책

166) 김태보(1995), 앞의 책

167) 강경숙, 김준표(2022), 앞의 논문

168) 경향신문 1973년 1월 6일

169) 김현돈(1997), 제주문화의 재창조, 제주리뷰, 3, 57-66.

170)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제주: 경신인쇄사, 2019.

171) 현경희, 제주환경일보, 2023.2.20.

172) smile rock(2018.2.27.), 1970년대의 제주, 안장현의 문화유산과 사진 이야기, 네이버.

치장을 바꾸어 일터로 나섰다”라는 문장을 고려할 때¹⁷³⁾ 1970년대 초반까지도 노인들은 갈옷을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1972년 8월 제주시 5일장을 3회 방문하여 약 100명의 여성을 관찰한 고부자의 연구에 따르면, 30대와 40대 여성 거의 모두가 치마/블라우스를 착용했으며 갈옷 착용자는 매우 드물었다.¹⁷⁴⁾ 이것은 관찰 장소가 시장인 데서 비롯되었을 수도 있다. 즉 공도에 나갈 때는 갈옷 착용을 금지했던 일제강점기의 의복규범으로 인해 시장에서는 갈옷 차림이 관찰되지 않았을 수도 있다.¹⁷⁵⁾ 이것은 1970년 동아일보에 실린 글에서 멀리 외출할 때에는 하의로 착용한 갈옷 위에 흰색의 광목 치마나 베치마를 한겹 두르고 나갔다는 1970년 동아일보에 실린 내용으로도 뒷받침된다.¹⁷⁶⁾ 이와 같이 1970년대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갈옷이 노인이나 작업 상황에서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에 갈옷이 제주민속복식으로 박물관에 전시되었다는 신문기사나¹⁷⁷⁾ 지역문화행사에서도 볼 수 있는 광경이 되었다는 신문 기사를 볼 때,¹⁷⁸⁾ 1970년대 후반에 가서는 갈옷 착용이 더욱 감소하다가 거의 자취를 감추게 된 것으로 파악된다.

2) 1970년대의 남성 갈옷

본 연구에서 확보한 사진 자료들에 근거할 때 1970년대 남성들은 두 가지 방식으로 갈옷을 착용하였다. 즉 마고자형의 갈적삼과 갈중이를 착용하거나 갈중이에 서양복을 착용하였는데, 후자가 더 많았다. 상의와 하의 모두에 갈옷을 착용한 사례는 오라동 초가집 앞의 남성 노인과 광령리 돌담 앞의 노인들이 착용한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과 갈중이에서 볼 수 있다.¹⁷⁹⁾ 다른 하나는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한 것이다. 1970년대에 촬영된 갈옷 차림 사진들 대부분에서 남성들은 하의에만 갈중이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상의에는 서양복을 착용하고 있었다. 특히 일상생활에서는 주로 노인들이 착용한 갈옷만 관찰되었고, 노동과 작업현장에서는 중장년은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하였고, 청년들은 갈옷이 아닌 서양복 형태나 군복 형태의 작업복을 착용하고 있었다.¹⁸⁰⁾ 군복에 감물을 들었는지 아닌지는 사진상으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이것은 1970년대부터 낡은 향토예비군복이나 학생 체육복 등에 감물을 들여 입었다는 고부자의 논문 내용과 유사한 맥락이다.

1970년대에 입혀졌던 갈중이 형태는 2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이전의 한복바지 형태의 갈중이와 유사하다. 즉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넉넉하고 헐렁하며, 발목까지의 길이였으며, 밑위 길이가 길었다. 그리고 바지를 허리에 끈으로 묶고 남은 윗부분을 아래로 접어서 착용하였으며, 발목 부분은 접어 올리것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드물지만 끈으로 묶은 것도 관찰되었다. 또 다른 갈중이는 한복바지보다 엉덩이 품과 바지통 품이 모두 좁았으며, 발목 부분은 묶음 없이 일자로

173)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174) 고부자, 「제주도 복식의 민속학적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72.

175) 이즈미 세이치 지음, 홍성목 옮김(2010), 앞의 책

176)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177) 동아일보 1978.01.06.)

178)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박순자(2011), 한국과 일본의 감춤 제조와 염색법 및 염색물 변용에 관한 비교 연구. 한국지역 사회생활과학회지, 22(1), 77-94.

179)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책

180) 제주특별자치도(2010), 앞의 사진자료집; 제주도민 일보 2013년 2월 26일; smile rock(2018.2.27.),

내려진 형태였다. 그리고 1970년대 남자 노인이 착용한 갈옷에서는 V형태로 목이 파인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도 관찰되었다. 즉 길이는 허리까지 였고, 흰색 단추 여러 개로 좌우를 여미게 되어 있으며, 포켓이 2개 달린 형태였다. 따라서 1970년대 남성용 갈적삼과 갈중이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지만 엉덩이 품과 바지통이 좁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남성들이 갈중이 위에 착용한 서양복 상의는 남방셔츠, 티셔츠, 스웨터 등이었다.

3) 1970년대의 여성 갈옷

1970년대 여성들의 갈옷 차림도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하나는 갈적삼과 갈중이를 착용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갈몸빼에 서양복을 착용한 것으로, 후자가 더 많았다. 즉 1970년대 촬영된 사진들 대부분에서 여성은 하의에만 갈몸빼를 착용하고 있었고, 상의에는 서양복을 입고 있었다. 이것은 1972년 당시에는 갈몸빼를 주로 착용했다는 고부자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¹⁸¹⁾ 또한 허벅지고 물길러 가거나 이웃집에 떡반 돌리러 갈 때와 같은 동네의 일상 생활에서도 활동에 편리한 바지 형태의 갈옷만 착용하고 상의에는 갈옷 대신 얇은 스웨터 하나 입었다는 1970년 동아일보 기사로도 뒷받침된다.¹⁸²⁾ 멀리 외출할 때에는 하의로 착용한 갈옷 위에 흰색의 광목 치나나 베치마를 한겹 두르고 나갔다는 반면, 1970년대 사진들에서 여성이 갈적삼을 착용한 사진은 찾아 보기 어려웠다. 그러나 1970년대에 여성이 갈적삼과 갈몸빼를 착용하였다는 사실은 1970년 동아일보에 발표된 제주 해녀에 대한 글에서 확인된다. 즉 “흙감둥이가 된 『몸빼』와 땀진 감물적삼을 툭툭 털고 김매던 조발에서 보리밭으로 소리친다”라는 문장이 있는 점으로 보아¹⁸³⁾ 드물지만 1970년대에도 갈적삼과 갈몸빼가 착용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1970년대 혹은 1980년대에 촬영된 것으로 추측되는 단 하나의 사진에서 갈적삼과 갈몸빼 차림이 관찰되었다.¹⁸⁴⁾ 이 사진에서 보이는 갈적삼 형태는 1950년대까지 여성 갈옷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던 마고자 형태였다. 즉 깃이 없고, 목파임은 V형이었으며, 품은 넉넉하고 길이는 허리까지 내려왔다. 앞판에는 단추가 여러 개 달려서 좌우를 여미게 되어있으며, 좌우에 포켓이 2개 달린 형태이다. 이것은 남성의 마고자 형태의 갈적삼과 유사하다. 1970년대 사진들에서 관찰된 갈몸빼는 허리 아래로는 주름이 잡히면서 바지통은 넓은 것과 좁은 것이 있었고, 발목은 대부분 오므려져 있었다. 서양복 상의들은 대부분 허리 아래로 내려와서 갈몸빼의 허리 부분은 잘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나 갈몸빼의 실루엣에 근거할 때, 허리에 고무줄을 넣은 것도 자주 관찰되었다. 으며, 허리에 넓은 단을 붙이고 끈으로 메는 형태의 갈몸빼는 관찰되지 않았다. 여성들이 갈몸빼 위에 착용하였던 서양복 상의는 주로 스웨터와 블라우스 유형이었다.

181) 고부자(1972), 앞의 논문

182)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183) 동아일보 1970년 7월 1일

184) 제주학아카데미 아카이브에 있는 서재철 사진—동일한 사진인데 1970년대와 1980년대 생산 ?

185)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일본인 인류학자가 본 1971년 제주도』, 제주: 경신인쇄사, 2019.

186)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사진자료집

187)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사진자료집

188)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 국가지정기록물 온라인 전시관

189) 진기철, 미디어 제주, 2005, 8.30

〈표 5〉 1970년대 제주 갈옷

		
오라동 (1971년) ¹⁸⁵⁾ 마고자형 갈적삼, 갈중이	광령리 (1971년) ¹⁸⁶⁾ 마고자형 갈적삼	아라동 묘지정비(1971년) ¹⁸⁷⁾ 셔츠, 갈중이
		
도로정비 새마을운동전경(1972년 제주도) ¹⁸⁸⁾ 블라우스, 갈몸빼	이삿짐신고 이사(1970년대) ¹⁸⁹⁾ 점퍼, 갈몸빼	

이와 같이 서양복이 남녀 모두의 갈적삼을 대체하게 된 것은 1970년대에 나일론 옷이 전국적으로 대중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1960년대 후반부터는 블라우스나 스웨터의 소재인 폴리에스테르, 데토론, 아크릴 등 다양한 합성섬유 또한 국산화된 영향으로 볼 수 있다.¹⁹⁰⁾ 특히, 국산 나일론의 1970년 생산량은 1963년에 비해 207배나 증가하였다. 나일론 옷을 비롯한 다양한 합성섬유 옷의 증가는 1970년대에 제주 갈옷의 쇠퇴를 가속화시킨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현재 시점에서 80대 후반이거나 90대에 속하는 여성 노인분들이 “나일론 옷이 나오면선 안입게 되었다”, “나일론이 보급되면서 힘들게 감물로 염색할 필요가 없었다”, “좋은 옷들이 많이 생기므로 안입게 되었다” 라고 응답한 내용을 통해서도 뒷받침된다.¹⁹¹⁾

190) 허재희, 한국섬유산업의 발달과 한국여성 의상의 변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0,

191) 허복구, 박지혜(2013), 앞의 책

집은 소금물, 강한 햇볕, 드러내놓은 살결, 보릿짚 냄새나는 황톳불그리고 무섭게 몰아치는 폭도. 이것이 곧 해녀들의 생활조건의 전부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대개 많은 수의 자녀들이었다. 김매야할 감자밭이 있고, 약뿌려야할 굴밭이 있고, 밭지어야할 가정이었다. 이 세상에서 일을 가장많이하는 여성, 그것은 한국 제주도해촌의 해녀들일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도 흙감둥이가 된 『몸빼』와땀전 감물적삼을 툭툭 털고 김매던 조밭에서 보리밭으로 소리친다.¹⁹²⁾

- 동아일보, 1970년 7월 1일

옷도 마찬가지로. 언제나 무명에 감물을 들인 『갈옷』 한가지. 밭에 갈때는 물론 허벅(물둥이)을 지고 물을 길러 갈때나 이웃집에 떡반을 돌리러 갈 때나 동네 생활은 거의 이 갈옷 하나로 통용된다. 땀잘 받아들이고 더러움 안타고 질긴 만능 의상이다. 위에는 얇은 쉼터 한 개. 만일 조금 멀리 인사 차례 가야할 때면 이 갈옷 위에 베치마나 광목 치마를 한겹 두르고 나서면 된다. 혹 동네 사람이 흰 옷을 입은 것이 보이면 으레 인사가 “외방 감수까?” (나들이 가십니까?)이다. - 중략 - 평균 오~육 가족을 가진 해녀가 월 평균 주식비는 삼천사백원꼴. 부식비가 일천사백원이며 피복비는 칠백십원이다.¹⁹³⁾

-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지난 71년 새마을 운동의 불길이 일어나자 벼타이를 매고 빈둥거리던 청년들이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명주 바지를 입었던 마을 노인들은 갈옷(제주도 농촌의 작업복)으로 치장을 바꾸어 일터로 나섰다.¹⁹⁴⁾

-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4) 1970년대의 감물들이기

1970년대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는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크게 다르지 않았다. 우선 1972년에 발표된 고부자의 논문에 따르면, 감물들이는 시기는 7월과 8월 사이였으며, 감물은 만드는 원료는 풋감이었고, 감물들이는 절차는 감을 따서 짓이기고(부수기), 짓이기는 과정에서 나온 감물에 옷을 적셔 감물을 들인 후(치대기), 햇볕에 말리고 다시 물을 적시는 과정을 반복하였다(바래기). 그러나 1970년대 감물들이기에는 몇가지 주목할 점이 있다. 하나는 시골에서는 보통 갈옷을 만드는데 쓸 용도로 1-2개의 풋감 나무를 심어서 자급자족 하였던 과거와 달리 1970년대에는 풋감을 시장에서 구매해서 감물들이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었다.¹⁹⁵⁾ 이것은 1960년대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못했던 점이다. 또 하나는 1970년대 초반에는 집에서 베틀로 짠 무명으로 만든 옷에 감물을 들인 것이 아니라 시중에서 구매한 무명 천으로 옷을 만든 후 감물을 들여 입는 것이 일반적이었을 수 있다.¹⁹⁶⁾ 그러나 1974년 조선일보에 등장하는 “무명에 풋감을 뺀 갈색 물을 들인 『갈옷』은 땀이 잘베고”라는 문장을 볼 때,¹⁹⁷⁾ 1970년대에는 옷뿐만 아니라 옷감에도 물을 들여 갈옷을 제작하는 것이 더 대중화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것은 옷에 감물을 들일 때보다 천에 감물을 들일 때 염색 균일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얼룩없이 골고루 감물들인 갈옷을 제

192) 동아일보, 1970년 7월 1일

193) 정자환, 동아일보 1970년 7월 31일

194) 강관영, 경향신문 1975년 2월 10일

195)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2019), 앞의 사진자료집

196) 고부자(1972), 앞의 논문

197) 유장흥, 이동탁, 조선일보(1974.07.12.)

작하는 데는 천에 염색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1960년대 자료들에서는 관찰되지 못했던 몇가지의 구체적인 내용이 고부자의 1972년 논문을 통하여 추가적으로 확인되었다. 즉 제주에서 감물들이는 데 사용하는 풋감은 씨가 많고, 크기는 지름이 약 3-4 센티미터 정도이며, 감물들이는 데 사용하는 도구는 남도구리와 덩드렁 막개라는 점이다. 그리고 옷에 감물을 들일 때는 감을 짓이길 때 나오는 감껍질도 옷 사이 사이에 넣어서 주무른 후 털어낸다는 점과 감물이 부족하면 물을 더 섞어가면서 옷이 완전히 젖게해야 한다는 점이다. 특히, 바래는 단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추가되었다. 즉 옷을 널어서 말리는 장소로 멍석, 지붕위, 평평한 돌, 잔디 위 등이 가능하다는 점, 널때는 옷의 모양을 반드시 하고, 마르는 과정에서 옷의 앞과 뒤를 바꾸어 주어야 한다는 점, 여름 직사광선에서는 약 10일 정도 건조시킨다는 점,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장마가 계속되거나 날이 습하면 색이 죽고 풀먹인 효과가 낫다는 점이다. 감물들인 옷의 색상은 황토색이었고, 재질은 풀먹인 옷처럼 뻣뻣하였으며, 1970년대에도 제주 사람들은 갈옷이 땀에 강하고 더러움을 안타고 질긴 것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1969년 진성기가 『남국의 세시풍속』에서 제시했던 갈옷의 장점들이 고부자의 논문에서는 위생적인 측면, 경제적인 측면, 시간 단축적 측면으로 구분되어 그 내용이 재차 강조된 점을 볼 때,¹⁹⁸⁾ 1970년대에도 감물들인 옷에 대한 제주사람들의 인식은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부잣집이나 가난한 집이나 의식주 생활에는 큰 차이가 없다. 모두가 조, 보리밭을 먹고 제주도 특유의 『갈옷』을 입고 밭일을 한다. 무명에 풋감을 뿔아 갈색 물을 들인 『갈옷』은 땀이 잘베고 때가 잘 안타 토박이 주민들이면 모두가 즐겨입는 작업복.

- 유장홍. 이동탁, 조선일보 197년. 7월 12일

요약하면,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하였지만 그 양상은 1970년대에 와서 더욱 두드러졌으며, 1970년대 후반 이후에는 갈중이와 갈몸빼도 점차 자취를 감추었다는 점이다. 1970년대에는 마고자 형태의 길이가 긴 갈적삼이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에게도 입혀졌으며, 갈몸빼 허리에 고무줄을 넣는 것이 대중화되었다. 남성 갈옷은 1960년대와 비교하여 큰 변화가 없었다. 천에 감물들이는 것은 1960년대보다 1970년대에 와서 더욱 대중화되었다. 1970년대에는 감물들일 풋감이나 옷감을 자급자족으로 얻는 것 이외에 시장에서 구매한 점도 주목할 만하다.

4. 1980년대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제주는 1980년대에 양적, 질적으로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취업 구조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1986년 농림어업으로의 취업 비율은 58.2%로 10년 전 보다 20%가 감소한 반면 서비스 중심의 3차산업 취업 비율은 38.7%로 10년 전 보다 22.5% 증가하였다.¹⁹⁹⁾ 또한 1980년대의 제주 농업은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농업 특성을 보였고²⁰⁰⁾ 관광산업은 국민의 여가 수요를 수용

198) 고부자(1972), 앞의 논문

199) 김태보(1995), 앞의 논문; 김태보(1991), 앞의 논문

할만한 능력을 갖추었다.²⁰¹⁾ 1986년 연간 제주 방문객은 내국인 기준 약 149만2천명으로 10년 전보다 110만명 이상이 증가하였다²⁰²⁾. 이와같이 농림어업 분야의 종사자 감소, 관광서비스 분야의 종사자 증가,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은 농부와 어부들의 노동복이었던 갈옷의 사용 상황을 축소시키는 배경이 되었다. 특히, 제주지역경제의 성장에 따른 급속한 도시화와 도심지의 인구 집중, 제주도민의 1인당 소득수준의 향상,²⁰³⁾ 과잉 생산에 따른 나일론 옷의 대중화와 전국적 보급,²⁰⁴⁾ 여러 가지 합성섬유를 소재로하는 의복의 다양화와 대중유행 등은 1980년대 제주도민의 의생활 전반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0년대에 착용된 갈옷이나 감물들이기에 대한 사진이나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1980년대 신문들에서 검색된 감물들이기에 관한 글은 1건이었으며, 갈옷에 관한 글은 3건이 관찰되었다. 이것은 제주민속박물관 개관이나 단국대 민속박물관 세미나, 제주민속의 멋 서적에 대한 홍보 기사였다. 따라서 1980년대에는 직접 만들어 입는 갈옷이나 집집마다 행해지는 감물들이기 문화는 제주에서 거의 사라진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2012년에 실시한 제주지역 소재의 73개 천연염색 업체들에 대한 조사에서²⁰⁵⁾ 1980년대에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설립된 갈옷 업체가 6개라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개인이 자급자족하여 만들어 입던 갈옷이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어 판매되는 상품화된 갈옷으로 전환되었음을 뜻하는 것이자 제주 갈옷이 현대인에게 생활양식에 맞게 소비될 수 있는 상품으로서의 가치 또한 높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80년대는 개인이 자급자족하여 제작하는 갈옷은 사라지고 전문가가 제작하는 상품화된 갈옷이 등장하는 과도기인 것으로 판단된다.

5. 1990년대 제주의 갈옷과 감물들이기

1) 상품화된 갈옷의 등장과 증가

1990년대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타결에 따른 세계무역기구(WTO) 체제가 출범한 시기로 제주의 농산물과 관광 서비스 시장이 확대 개방된 시기이다.²⁰⁶⁾ 1980년대에 비해 1차산업과 3차산업으로의 취업 비율이 26.9% 감소하고 28.5% 증가함에 따라 두 산업으로의 취업 비율은 각각 41.7%와 54.6%로 역전되어²⁰⁷⁾ 제주에서의 농림어업 종사자는 더욱 감소하였다. 반면, 1990년 제주 방문객(3164천명)은 1986년에 비해 약 2배 증가하였으며, 관광수입(431,945백만원)은 약 3배 증가하여 관광객 시장은 지속적으로 규모가 커졌다.²⁰⁸⁾ 또한, 1990년대에는 86서울아시

200) 김태보(1995), 앞의 논문

201) 김태보(1995), 앞의 논문

202) 송준영(2022), 1960-1980년대 제주도 관광가이미지에 대한 서설적 연구-관광사진첩 속 시각이미지 변화를 중심으로-, 제주도연구, 58, 343-372.

203) 김태보(1995), 앞의 논문; 강경숙, 김준표(2022), 앞의 논문

204) 홍병숙, 정미경(1996), 나일론이 의생활 및 섬유산업발달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1945년부터 1970년을 중심으로-, 복식, 28, 31-46.

205)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2012), 제주 천연염색산업 실태조사 및 디렉토리, 연구용역보 고서.

206) 김태보(1995), 앞의 논문

207) 강경숙, 김준표(2022), 앞의 논문

208) 김태보(1995), 앞의 논문

안 게임과 88서울올림픽 등의 국제 행사를 계기로 전통문화의 세계화²⁰⁹⁾와 전통문화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적 효과가 강조되었으며²¹⁰⁾ 이 과정에서 한국전통문화의 상품화는²¹¹⁾ 물론 지역문화의 활성화²¹²⁾ 및 향토문화의 상품화가 활성화되었다.

1990년대의 갈옷 상품화는 생활개선회와 생산업체가 중심이되어 이루어졌다. 생활개선회의 갈옷 상품화는 1970년대까지 갈옷 착용이 많았던 제주 농가의 소득 증대 일환으로도 추진되었다. 처음에는 마을 노인들이 갈옷 제작을 통해 가계소득을 올리는 부업 형태로 이루어졌으며²¹³⁾ 그 후 남제주군 생활개선회²¹⁴⁾, 북제주군 애월읍 수산리 생활개선회²¹⁵⁾ 등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전세계적으로 환경오염, 생태환경, 에콜로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수익창출 목적의 기업들도 증가하였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73개 업체들 중 약 19개 업체가 1990년대에 설립되었는데,²¹⁶⁾ 이것은 1980년대 보다 2배 더 증가한 규모이다. 또한 1990년대 후반 부터는 제주 고유의 노동복인 갈옷의 상품화,²¹⁷⁾ 서울 브랜딩 백화점의 제주 여름갈옷 기획전,²¹⁸⁾ 신구법 제주 도지사의 향토 특산물전에서의 갈옷 판촉 활동,²¹⁹⁾ 서울 인사동 소재의 제주 갈옷 전문점 (주)복데강²²⁰⁾에 대한 신문기사에서 볼 수 있듯이 제주 갈옷에 대한 유통과 판매촉진이 도내는 물론 도외에서도 이루어졌다.

2)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과 갈천 제품의 종류

1990년대는 전국적으로 약 10개 정도에 불과했던 생활한복 업체가 150여개로 증가할 정도로 생활한복이 대중화된 시기이다.²²¹⁾ 제주 갈옷도 90년대의 이러한 시장 동향에 발맞추어 거의 대부분이 생활한복 스타일로 상품화되었다. 이것은 실용성을 강조한 우리옷 추석빔,²²²⁾ 추석때 입을 개량 한복 전시 판매²²³⁾ 감물염색한 배넛저고리 응용 스타일의 제주 갈옷,²²⁴⁾ 감물 옷을 접할 수 있는 인사동 생활한복점,²²⁵⁾ 감물로 천연염색한 옷²²⁶⁾ 등의 신문 기사를 통해서도 엿볼 수 있다. 1999년 조사에서도 제주지역 여성 응답자들 중 과반수 정도가 남성용 개량한복, 여성용 개량한복, 여성용 원피스, 아동용 개량한복에 대한 구매의사가 높았

209) 경향신문 1993년 1월 21일; 조선일보 1994년 1월 1일; 경향신문 1994년 2월 20일; 동아일보 1996년 1월 6일; 경향신문 1996년 8월 8일

210) 매일경제 1998년 6월 3일

211) 경향신문 1997년 1월 16일; 동아일보 1997년 11월 11일

212) 한겨레 1995년 7월 18일; 한겨레 1996년 9월 14일; 한겨레 1997년 10월 2일

213) 장승호, 조선일보, 1991, 09.03

214) 임재영, 1996년 9월 7일 동아일보

215) 강홍균, 경향신문, 1997년 4월 25일

216)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2012),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217) 임재영, 1996년 9월 7일 동아일보

218) 정상영, 한겨레, 1996년 3월 28일

219) 경향신문 1998년 1월 3일

220) 어수용, 조선일보, 1999년 3월 11일; 임재영, 1996년 9월 7일 동아일보; 정상영, 한겨레, 1996년 3월 28일; 한겨레 1998년 1월 3일;

221) 유인경, 경향신문 1998년 9월 25일

222) 이선주, 조선일보 1994년 9월 16일

223) 정상영, 한겨레, 1994년 9월 6일

224) 경향신문, 1996년 5월 27일

225) 박종인, 조선일보 1998년 9월 25일

226) 윤경은, 동아일보, 1998년 6월 4일

다.²²⁷⁾ 이러한 측면들을 고려할 때, 1990년대에는 생활한복 형태의 갈옷이 주로 소비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농가의 부업화 상품들 중에는 일부 남성용 갈적삼과 갈중이 및 여성용 갈적삼과 갈중이도 있었다.²²⁸⁾ 그러나 1990년대 상품화된 갈옷들 대부분은 전통적 이미지(예: 매듭 단추, 저고리의 깃이나 쇄)를 반영하기는 하였지만 소매는 현대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서양복 제작 방식을 적용한 것들이었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들 중에는 현대복식도 있었다. 생활개선연구회에서는 조끼와 반바지를 무명과 삼베에 감물들인 갈천으로 제작하거나²²⁹⁾ 남제주군 대정읍 대정농공단지에 설립한 의류업체 (주)봄데강에서는 감물들인 천으로 전통 해녀복 스타일의 원피스와 남녀 정장 승마복을 제작하여 갈옷 패션쇼를 선보였다.²³⁰⁾ 또한 감물들인 갈천을 재료로 활용한 모자, 가방, 테이블 세트, 자동차 좌석 등받이 등과 같은 패션잡화나 생활용품이 상품화되었다.²³¹⁾ 이것은 1990년대부터는 감물들인 갈천의 쓰임새가 의복을 넘어 다양한 분야로 새롭게 확장되었음을 의미한다.

3)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 변화 특성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는 절차나 방법에서 큰 변화가 없었다. 1970년대와 같이 생감을 따서 감물을 내고 원단에 감물을 들인 후 햇볕에 건조시키고 물에 적시기를 반복하여 바래기 과정을 거쳤다. 단지, 주목할 것은 1970년대에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던 갈천 염색이 대중화되어 상품화된 모든 제품이 감물들인 갈천으로 제작되었다는 점이다. 즉 1990년대에는 옷에 물들이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리고 1990년대 행해진 감물들이기에서의 큰 변화는 소재의 확대, 감물들이는 도구의 기계화, 감물의 저온 저장과 상품화 등이다. 우선 1990년대에는 면, 마, 모시 등의 천연소재 이외에 인견과 같은 재생섬유 식물에도 감물을 들였다. 감물들인 다양한 갈천은 갈옷은 물론 패션잡화나 생활용품의 제작에까지 활용되어 그 쓰임새를 확대하였다.²³²⁾

감물들일 때 사용하는 도구가 변화된 점도 1990년대의 중요한 특징이다. 1970년대까지는 풋감을 으깨는데 남도구리와 텅드령 막개가 이용되었다면 1990년대에는 믹서기, 커터기, 착즙기 등의 기계가 활용되었다. 이것은 기계의 편리성과 효율성이 과거의 도구나 손염색을 대체한 것도 있지만 1990년대의 감물들이기가 갈옷 생산업체에 의해 대량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계화에 동반되어 또 하나 달라진 점은 감물 특성이다. 1970년대에는 감껍질이 섞인 감물을 이용하였다면 1990년대에는 기계로 분리된 순수 감물만을 이용하였다. 이것은 감껍질을 제거할 필요가 없기 때문 시간과 노동력이 절감될 뿐만 아니라 감물에 섞인 감껍질 때문에 나타나는 얼룩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렇게 감물들이기가 대량화됨에 따라 1990년대에는 풋감의 저장성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 영하 5도 정도로 저온 저장된 감물이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감물의 저온 저장이 가능해지면서 1990년대 감물들이기는 여름(7월-8월)을 지나 9월과

227) 홍희숙, 제주 갈옷의 관광상품화를 위한 상품기획 및 디자인 개발, 중소기업청 연구과제 (1999.05.01.-2000.4.31.)

228) 장승홍, 조선일보, 1991년 9월 3일

229) 허호준, 한겨레, 1994년 6월 7일

230) 임재영, 동아일보, 1996년 9월 7일

231) 허호준, 한겨레, 1994년 6월 7일

232) 홍희숙(1999.05.01-2000.4.31), 앞의 연구과제

10월까지도 연장되었다. 특히, 저온 저장한 감물을 용기에 담아 거래하는 감물 상품화는 1990년대에 나타난 큰 변화이다.

4) 패션상품과 지역문화상품으로의 가치 전환

1999년에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과 제주를 방문한 관광객 여성들을 대상으로 제주 갈옷에 대한 인지도, 구매를 통한 상품화된 갈옷의 소비 경험과 향후 소비의도에 대한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다. 상품화된 갈옷에 대한 제주 도민과 제주 방문객의 수용 정도는 1999년에 이루어진 설문조사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조사에 참가한 402명의 제주지역 여성들 중 98%가 갈옷에 대해 알고 있지만 상품화된 갈옷을 소비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갈옷을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 중 약 15% 정도였다.²³³⁾ 이것은 상의이든 하의이든 제주 사람들 대부분이 갈옷을 착용했던 과거의 양상과는 다른 점이다. 그리고 상품화된 갈옷이 제주지역 여성 모두에게 수용이 되지 못하고 상품화된 갈옷의 소비가 지연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서의 낮은 활용도, 선호성이 낮은 스타일, 세련되지 못한 디자인과 디자인 다양성 부족, 제한된 색상과 소재, 현대복 아이템의 다양성 부족 등으로 나타났다.²³⁴⁾ 이것은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제주 사람들 대부분이 착용하는 일상생활의 필수품이라기 보다는 개인의 라이프스타일과 취향을 반영하여 즐기는 선택적 기호품으로서의 특성이 강함을 시사한다. 즉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노동복으로 활용되었던 전통 갈옷과 달리 개인의 주관적 선호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패션상품으로 그 용도와 성격이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1999년 조사에 참여한 사람들 중 갈옷을 알고 있는 제주지역 여성의 49.9%가 향후에도 갈옷이나 갈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점을 고려할 때²³⁵⁾ 상품화된 갈옷은 개인의 라이프스타일, 취향, 가치관에 따라 지속적인 소비 확대가 가능한 상품임을 시사한다.

한편, 제주를 방문한 여성 관광객들인 경우 약 2/3 정도의 응답자가 갈옷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으며, 이들 중 약 17%의 관광객이 구매를 통해 갈옷을 소비한 경험이 있었으며, 갈옷을 인지하고 있는 제주 방문객 여성들 중 51.6%가 향후에도 갈옷이나 갈천 제품을 구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다.²³⁶⁾ 이것은 상품화된 갈옷이 조선시대부터 내려온 전통 갈옷에 뿌리를 둔 지역문화 상품이자 제주 방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광기념품으로도 수용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조선시대부터 감물들이던 제주의 의생활 문화나 민속복식이 상품화된 갈옷을 통해 현대생활에 맞게 전승되었음을 의미한다.

요약하면, 1990년대는 상품화된 갈옷의 등장으로 제주의 전통 갈옷이 현대적 갈옷으로 전환된 시기이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의 가장 큰 특징은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하는 생활 개선회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업체들에 의해 상품화된 갈옷이라는 점이다. 1990

233) 홍희숙(2004), 제주지역 여성 소비자를 대상으로 제주지역 문화상품 '갈옷' 패션이미지와 '갈옷' 구매행동, 제주도연구, 26, 223-255.

234) 홍희숙(2004), 앞의 논문

235) 홍희숙(2004), 앞의 논문

236) 홍희숙(2001), 추구혜택과 패션이미지가 제주지역 패션문화상품 갈옷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9(2), pp. 73-84. 홍희숙(2001), 앞의 논문

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은 한복과 서양복 특성을 접목시킨 생활한복 스타일이었으며, 후반으로 가면서 점차 서양복 형태로 상품화되었다. 상품화된 갈옷은 거의 모두 천연소재나 재생섬유 원단에 감물을 들인 갈천으로 제작되었으며, 이러한 갈천은 의류에 덧붙여 패션잡화와 생활용품의 재료로 까지 그 쓰임새를 확대하였다. 1990년대 감물들이기는 전문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기계화된 도구의 사용으로 감껍질이 없는 감물과 저온 저장된 감물이 이용되었으며, 감물의 상품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1990년대는 갈옷의 상품화를 통해 갈옷의 성격이 노동복에서 개인의 라이프스타일이나 가치관에 따라 선택적으로 소비되는 패션상품이자 지역문화상품으로 전환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6. 2000년 이후의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

1) 갈옷 전문 생산업체의 증가와 감물염색 제품의 다양화

2000년 들어 제주의 농업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였고 농가 규모와 농업인구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2015년에는 1990년 대비 농업 가가와 농업 인구의 수는 각각 16.6%, 43.1% 감소하였다.²³⁷⁾ 그러나 제주 갈옷 업체는 제주지역의 농가나 농업인구의 감소에 상관없이 2000년대에 더욱 증가하였다. 즉 감물염색 업체가 89%를 차지하는 제주지역 73개 천연염색 업체들 중 27개 업체가 2000년 부터 2005년 사이에 설립되었고, 21개 업체가 2006년부터 2012년 사이에 설립되었다.²³⁸⁾ 즉 2012년까지 48개 업체가 설립되어 19개 업체가 설립된 1990년대 보다 2배 더 많이 증가하였다. 이렇게 제주의 농가와 농업 인구의 절대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갈옷 전문업체가 증가한 것은 세계적으로 등장한 지속가능한 소비 지향에 따른 친환경 시장의 확대에 따른 현대적 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2001년 갈옷 전문업체와 제주공항의 갈옷 매장을 방문하여 관찰한 결과²³⁹⁾ 및 2003년²⁴⁰⁾, 2013년,²⁴¹⁾ 2015-2016년,²⁴²⁾ 2020-2023년²⁴³⁾에 갈옷 전문업체의 매장을 방문하여 관찰하고 갈옷 전문업체의 대표를 면담한 결과를 토대로 파악되었다.

2000년 이후에 나타난 변화는 우선 현대복식으로 상품화된 갈옷의 다양화와 고급화 및 갈천의 용도 확장이다. 2000년 이후 상품화된 갈옷은 현대적 감각의 디자인이 적용된 원피스, 블라우스, 자켓, 셔츠, 조끼, 아동복 등이다. 특히, 2010년 이후 학계에서 이루어진 실험연구와 갈옷업체가 자체적으로 수행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 검사를 통해 감물들인 ‘갈천’ 원단의 항균성과 소취성 등

237) 호남지방통계청 지역통계과 보도자료, 통계로 본 제주특별자치도의 농업구조 변화, 2017년 4월 3일

238) 제주대학교 관광과 경영경제연구소(2012), 앞의 연구용역보고서.

239) 홍희숙, 제주 관광기념 의류상품 다양화를 위한 지역패션문화상품의 개발: 생활한복, 중소기업청 연구과제 (2021.5.1.-2002.4.31.).

240) 홍희숙(2003),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한국색채학회 학술대회, pp. 13-17.

241) 제주지역 갈옷 전문업체 매장 방문 및 홈페이지 조사

242) 홍희숙 외, 감물 가공처리 한지가죽 신소재를 활용한 글로벌 명품가방 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연구과제 (2015.9.1.-2017.8.31.)

243) 홍희숙 외, ICT 및 Live Commerce 기반 제주천연염색산업 성장촉진 사업, 중소벤처기업부 연구과제 (2020.6.1.-2023.5.31.)

의 기능성이 입증됨에 따라 상품화된 갈옷은 피부와 접촉하는 런닝, 티셔츠, 양말을 비롯하여 언더웨어 제품으로까지 그 용도를 확대하였다. 상품화된 언더웨어와 피부접촉 의류들은 2013년에 조사한 ㈜몽생이나 농업회사법인(주)갈중이 업체의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로 관찰되었다. 또한 1990년대에 처음 소개된 모자, 머플러, 스카프, 가방 등의 갈천제품 이외에 헤어밴드, 브로치, 이불, 침대 매트, 베게, 테이블 매트, 티코스터 등을 비롯하여 갈옷 입은 소녀, 해녀, 대장금, 곰돌이 인형으로까지 상품화되면서 갈천은 2000년 이후 패션잡화와 생활용품분만 아니라 패션악세서리, 침구, 실내장식 용품의 소재로까지 그 쓰임새를 더욱 확장하였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변화들 중의 또 하나는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와 문양 다양화이다. 1990년대의 상품화된 갈옷에는 주로 면직물, 마직물, 인견 등이 적용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감물들이기가 소창과 텐셀 원단에 까지 확대되었다. 2000년 이후에는 소금 뿌리기, 주름잡기, 흘치기 기법, 나염 프린팅을 적용한 문양 갈천을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로 활용하는 경향이 증가하였다. 이것은 갈옷이 갖는 단일 색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상품화된 갈옷의 디자인 다양화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2000년 이후의 변화 특징 중의 하나이다. 이외에도 2000년 이후에는 ㈜몽생이와 몇몇 업체들인 경우 갈천을 친환경 벽지의 소재로 용도를 확장하였다.

2) 2000년 이후 나타난 감물들이기의 변화 특성

2000년 이후의 감물들이기에서 가장 큰 변화는 제주의 전통 감물들이기를 응용한 감물복합염색의 등장과 적용이다. 2000대 중반부터 다른 천연염료로 이미 염색한 천을 감물로 다시 재염시키거나, 감물들이 갈천을 쪽, 쪽, 감태 등의 염액에 담가 재염시킨 원단을 상품화된 갈옷의 소재로 활용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감물복합염색은 감물을 들이는 대상을 미가공 원단뿐만 아니라 다른 천연염색 원단까지 확대한 것이거나, 감물들이기가 끝난 갈천에 또 다른 절차 하나를 부가한 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감물들이기를 응용한 또 하나의 감물염색 방법으로 볼 수 있다. 2000년 이후 감물복합염색이 활성화된 것은 기능성 강화와 색조 다양화 두 측면에서의 유의성 때문이다. 예컨대, 천연염색 원단에 감물을 들인 감물복합염색 원단인 경우 염색전뢰도, 항균성, 내구성이 향상될 수 있다.²⁴⁴⁾ 그리고 쪽/감물, 감태/감물, 쪽/감물 등과 같은 감물복합염색 원단으로 상품화된 갈옷에서는 전통 갈옷의 적토색과는 다른 초콜릿의 짙은 어두운 갈색, 검정 기미의 어두운 카키색, 푸른 기미의 먹갈색 등 다양한 색조가 얻어진다. 이것은 갈색이란 단일 색상에 제한된 감물염색의 단점을 극복하는 방안이 될 수 있고, 감물복합염색에 사용하는 천연염료에 따라 원단의 색상이나 색조의 뉘앙스를 약간씩 변화를 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감물복합염색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2000년 이후 나타난 또 하나의 주목할 점은 감물들이기 체험의 상품화와 대중화이다. 우선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상품화된 감물들이기 체험이 새로 등장하였는데, 이것은 지속가능성과 체험 교육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초등/중등 학교와 감물염색 업체의 상호협력에 의한 감물들이기 체험 학습, 제주지역의 공공기관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행사, 제주를 방문

244) 홍희숙, 신탐라 gift & 체험 프로젝트 사업: 건강기능성 패션상품 연구개발. 산업자원부, 지역혁신지원사업 (2005.7.1.-2006.6.30).

하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 등이 그 예이다. 따라서 1990년대에는 감물들이기가 주로 갈옷 전문업체에 제한되어 이루어졌다면 2000년 이후에는 제주도민과 타 지역 관광객들의 감물들이기 체험이 대중화되었다. 제주지역 신문들에 따르면, 제주도민들과 관광객들은 주로 서귀포농업기술센터, 민속자연사박물관, 해녀박물관, 제주 추사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제주민속촌 등이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감물들이기 체험에 참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2002년부터²⁴⁵⁾ 제주의 전통문화를 알리고 농가소득 향상의 하나로 감물들이기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오고 있다. 약 20년 동안 매년 여름에 정기적으로 운영해온 이 프로그램인 경우,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하루 이틀 동안 1,000명 이상이 참가하면서 최근에는 축제형식으로까지 그 규모를 확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생활개선회의 부업화를 통한 소득 증대나 주민들의 자발적인 상호 학습을 목적으로 감물들이기 체험이 마을 마다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면서 2000년 이후에는 갈옷 생산업체이외에 일반인들에 의한 감물들이기가 대중화되었다.²⁴⁶⁾

마지막으로, 2000년 이후 나타난 감물들이기 변화들 중의 하나는 야외가 아닌 실내에서의 발색과 감물염색의 반자동화이다. 즉 1990년대에 풋감을 부수고 으깨는 작업이 카터기나 착즙기 기계로 대체되었다면 2000년 이후에는 장마나 비와 같은 날씨 요인에 따라 방해 받는 발색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실내 환경에서의 바래기가 추진되었다. 예컨대, (주)몽생이는 자연발색과 함께 유리온실을 이용하여 감물들이는 천을 바래고 있다. 농업회사법인(주)갈중이는 손으로 물들이던 과정을 반자동화된 염색 공정으로 전환하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요약하면 2000년 이후에 나타난 큰 변화는 감물복합염색의 등장과 활성화이다. 감물복합염색 원단으로 2000년 이후의 상품화된 갈옷은 색상과 색조가 다양화되는 한편 기능성 또한 강화되었다.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큰 변화는 감물들이기의 상품화와 체험 대중화이다. 갈천에 적용된 문양염과 감물들이는 소재의 다양화도 2000년대에 나타난 중요한 특징이다. 특히, 현대복식 형태의 갈옷이 1990년대 보다 더욱 다양화되고 고급화된 점을 비롯하여 감물들이는 갈천의 용도가 다양한 범주의 상품군으로 더욱 확장된 점도 주목할 만하다.

245) 강재병, 제주일보, 2002년 8월 18일

246) 제주환경일보, 2014년 9월 28일; 농촌여성신문, 2012년 9월 3일;

제주시(2021, 5, 12), 제주시 삼도2동 지역 아동 및 어르신들이 함께 참여하는 갈옷 만들기 사랑나눔봉사 개최, 제주시, 출처

〈표 6〉 2000년 이후의 상품화된 제주 갈옷과 감물염색 제품

	
생활한복과 현대복식(2001년) 제주공항과 제주갈옷업체매장	패션잡화와 침구 (2001년) 제주공항과 제주갈옷업체 매장
	
감물염색과 감물복합염색 제품 (2013년) 제주지역 갈옷업체 매장	감물염색과 감물복합염색 제품 (2021년) 제주천연염색기업지원사업

IV. 요약 및 결 론

제주 갈옷과 제주에서의 감물들이의 역사와 변천 양상을 고찰한 결과에 따르면, 제주에서 행해진 감물들이기 문화와 감물들이인 옷의 역사는 객관적으로 조선시대 후기 이전으로 볼 수 있으며, 약 300년 이상의 역사를 갖는다. 현재 우리가 부르는 ‘갈옷’이란 명칭 또한 적어도 일제강점기인 1931년 이전부터 92년 이상 사용되어 온 명칭이다. 조선시대와 일제강점기의 제주 갈옷은 옷에 감물을 들이는 방식으로 제작되었으며, 감물들이인 옷이 갖는 내구성, 위생성, 내수성, 발수성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농부복이나 농림어촌의 노동복 용도로 착용되었다. 일제강점기의 갈옷은 남성이 착용하는 갈적삼과 갈중이(裋褐襦衣, 裋褐男子袴衣·中衣) 및 여성이 착용하는 갈적삼과 갈굴중이(裋褐襦衣, 裋褐女子袴衣)로 구분되었다.

1950년대 제주의 지역경제는 전통적인 농업이 절대적 우위를 점하고 있었어 제주 사람들의 갈옷 착용은 일상적이었으며, 이 시기에는 갈옷 상의인 갈적삼과 갈중이 혹은 갈몸빼 를 함께 착용하였다. 1960년대에는 나일론과 화학섬유의 옷이 대중화됨에 따라 서양복이 활동에 불편한 갈적

삼을 대체하여 갈옷 하의만 이용되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제주의 농업은 전근대적이어서 갈옷은 농부복과 노동복의 용도로 농어촌에서는 이용되었다. 이 시기에는 옷이외에 옷감에도 감물을 들여서 갈옷을 제작하였다. 1970년대에 와서는 자급자족하던 풋감이나 옷감을 구매하여 감물을 들이는가 하면 하의에만 갈옷을 착용하는 현상이 더욱 두드러지다가 1970년대 말에는 이 또한 거의 자취를 감추었다. 제주의 농업이 자본집약적이고 기술집약적인 구조로 변화된 1980년대에는 제주에서의 갈옷 착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자급자족하던 갈옷이 상업화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1980년대를 지나 1990년대에는 상품화된 갈옷을 통해 제주 전역에서 다시 갈옷과 감물들이기 문화가 활성화되었다. 비록 갈옷의 착용 목적과 착용용도의 근간이 되었던 농림어업의 쇠퇴하여 노동복으로서의 갈옷의 용도는 사라졌지만 1990년대에 다시 등장한 상품화된 갈옷은 현대인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선택되는 패션상품이자 타지역의 제주 방문객들에게도 소비되는 지역문화상품으로서 그 가치가 전환되었다.

1990년대 이후 갈옷 제작자는 개인에서 마을의 생활개선회나 전문 생산업체로 변화되어 전승되고 있으며, 갈옷 제작을 위해 감물들이는 대상은 옷에서 직물로 변화되었으며, 감물들이는 직물은 베, 마, 무명, 목면에서 인견, 텐셀 등으로 확대되었고, 감물들이는 갈천의 쓰임새는 의류를 넘어 패션잡화와 실내용품으로까지 확대되었다. 갈옷 형태는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한국복식 토대의 전통적인 갈옷에서 서양복 형태의 현대적 갈옷으로 변화되었지만 제주 고유의 감물들이는 의류로 전승되고 있다. 갈옷 제작에 동반되는 감물들이기 절차는 전통사회에서와 큰 차이가 없지만 현대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손염색이나 전통적 도구의 활용에서 기계화로 변화되었다. 기계화에 따른 감물들이기의 대량화로 감물의 저온 저장과 감물의 상품화가 이루어졌으며 이것은 일반 사람들의 감물들이기와 스스로 하는 감물들이기의 대중화를 이끌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에는 상품화된 감물들이기 체험 프로그램이나 체험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제주지역 주민들과 학생들에게도 전승되고 있다.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는 화산섬에 기인한 농토의 척박성과 사면이 바다인 생업 환경 및 목축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제주 사람들의 지혜와 경험이 축적된 의생활 문화로서 조선시대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이다. 또한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는 기술의 발전과 현대인의 생활양식에 맞추어 현재까지 300년 이상 제주에서 전승되어온 향토문화이자 제주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제주를 대표하는 지역문화이다. 최근에는 세계적인 흐름인 지속가능성을 위한 친환경적 소비 가치의 중요성으로 제주 갈옷과 감물들이기의 가치가 더욱 주목 받으며 그 쓰임새 또한 더욱 확장되고 있다.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김 순 자(제주학연구센터장)

1. 들어가며

이 글은 제주의 전통 문화의 하나인 갈옷에 대한 제주 사람들의 전승 지식을 살펴보고, 이를 지속가능한 미래 문화유산으로서의 갈옷 발굴과 육성 가치를 모색하기 위해 수행한 조사 결과물 가운데 일부다.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하여 우리는 도서 지역을 제외한 동지역이 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그리고 10개 읍면 등 12개 지역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조사는 제주시 동지역 3개 마을, 서귀포시 동지역 2개 마을, 애월읍 2개 마을, 한림읍 2개 마을, 한경면 2개 마을, 대정읍 2개 마을, 안덕면 2개 마을, 남원읍 2개 마을, 표선면 2개 마을, 성산읍 4개 마을, 구좌읍 2개 마을, 조천읍 2개 마을 등 27개 지점에서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는 갈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거나 옷에 감물을 들였던 경험자, 그리고 입었던 사람들이다.

조사 대상은 여자 40명, 남자 2명이다. 많은 여성을 주제보자로 한 것은 갈옷 문화가 여성들이 만들어 놓은 문화인데다 남성 제보자보다 여성 제보자들이 생활 속에서 갈옷을 만들거나 입었던 경험이 많아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등을 세밀하게 파악할 수 있어서다. 또한 이들 갈옷 문화가 어떻게 바뀌고 변화해 왔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조사 결과, 이들이 처음 갈옷을 입은 시기는 대부분 결혼 즈음이다. 20대에 결혼했다고 가정하면 제보자들의 갈옷 관련 구술을 통하여 1940~1960년대 전후 시기인 전통 사회의 갈옷 문화 양상을 엿볼 수 있고, 그 이후의 '갈옷'의 흐름과 변화도 파악할 수 있다.

조사는 구술 채록을 위하여 개발한 질문지를 활용하였다. 질문지는 연구진이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에 완성하였다. 조사는 완성된 질문지를 이용하여 6명의 조사원들이 직접 해당 마을을 찾아가 대면 조사하였다. 조사 지역은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을 고루 분포하도록 나누어서 조사하였다. 이렇게 조사 지점을 나눈 것은 제주 전역의 갈옷 문화를 살피는 물론 중산간 지역과 해안 지역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서다. 조사는 녹음기와 캠코더를 활용하였고, 조사된 내용은 한글전사를 한 후에 확인 과정을 거쳤다.

이번 구술 채록에서는 갈옷의 △명칭 △종류 △인식 △착용 환경 △유의할 점 △감물 들이기 △기타 등 갈옷 관련 문화 전반이다. 오늘 발표에서는 △조사 경위와 과정 △갈옷의 명칭 △갈옷 종류 △갈옷에 대한 인식 △착용 상황 △유의점 등을 구술 자료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감물 들이기'와 관련한 감 종류, 도구, 준비하기, 물들이기(감과 옷 준비-물들이기-널기-바래기) 과정은 향후 발간될 보고서에서 다루기로 한다.

1.1. 조사 지역, 제보자, 연구진

1.1.1. 조사 지역과 제보자

조사는 제주도내 시읍면 12개 지역 27개 마을을 대상으로 하였다. 제보자는 한 마을당 1~4명으로 모두 42명이다. 제보자는 90대 7명, 80대 26명, 70대 8명, 60대 1명이다. 성별로는 여자 40명, 남자 2명이다. 자세한 사항은 <표 1>과 같다.

<표 1> 조사 지역과 제보자¹⁾

연번	조사 지역	조사 마을	제보자	나이 ²⁾	연번	조사지역	조사마을	제보자	나이
1	제주시	삼양2동	강○숙	94	22	안덕면	감산리	강○선	78
2			강○향	80	23	서귀포시	서귀동	임○은	90
3		화북2동	백○성	89	24		법환동	현○열	79
4		삼도2동	강○자	81	25	남원읍	신흥2리	김○생	99
5	애월읍	광령2리	박○선	77	26		태흥2리	양○화	85
6		금성리	이○자	83	27	표선면	가시리	오○중	96
7			홍○균	84	28		안○생	97	
8			양○자	81	29		하천리	강○순	85
9	한림읍	명월리	장○선	84	30	성산읍	오조리	강○순	86
10			양○자	81	31			현○홍	88
11			양○자	81	32			고○자	83
12		수원리	김○춘	89	33		고성리	강○춘	78
13	한경면	낙천리	김○평	90	34			이○자	77
14		용수리	양○월	89	35		난산리	고○덕	85
15	대정읍	일과1리	이○희	91	36	구좌읍	신산리	강○선	86
16			고○자	79	37		덕천리	이○숙	84
17		신평리	이○자	81	38		월정리	현○래	84
18	안덕면	사계리	허○자	66	39	조천읍	와산리	김○례	89
19			천○선	76	40		북촌리	이○찬	78
20			유○자	82	41			백○옥	81
21		감산리	김○현	83	42			변○여	85

조사 지역은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을 나눠 조사하였다. 12개 지역의 갈옷 문화는 물론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조사 지점을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중산간 마을: 화북2동, 광령2리, 명월리, 낙천리, 신평리, 감산리, 서귀동, 신흥2리, 가시리, 난산리, 덕천리, 와산리

△해안 마을: 삼도2동, 삼양2동, 금성리, 수원리, 용수리, 일과1리, 사계리, 천지동, 법환동, 태흥2리, 하천리, 오조리, 고성리, 신산리, 월정리, 북촌리

1.1.2. 연구진과 조사원

제주 갈옷 문화와 관련한 구술 채록을 위하여 연구진 8명, 자문위원 1명, 조사원 6명 등 15명

1) 조사 지역과 제보자는 제주시 동지역을 중심으로 오른쪽부터 정리하였다.

2) 여기에서 나이는 2023년 현 시점에서 출생연도를 뺀 숫자다.

으로 연구진을 구성하였다. 연구진은 질문지 작성과 함께 조사원들이 채록하고 전사한 구술자료 확인 등의 작업을 하였다. 조사원은 6명으로 2인 1조로 1조당 4개 지역에서 2개 마을 이상에서 갈옷 관련 구술 채록을 한 후에 전사를 하였다. 공동연구원 2명은 조사원들과 함께 직접 구술 채록에 참여하기도 하였다. 조사에 앞서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자문도 거쳤다.

〈표 2〉 연구진·조사원

연번	이름	소속	역할	비고
연구진				
1	김순자	제주학연구센터	질문지 개발, 검토, 조사원 교육, 구술 확인, 원고작성 등	연구책임
2	조정현		질문지 개발, 검토	공동연구
3	고광민	제주섬문화연구소	질문지 개발, 검토 등	
4	홍희숙	제주대학교	질문지 개발, 검토	
5	임승희	제주학연구센터	문헌 자료 조사	
6	고은솔		문헌 자료 조사, 소장 유물 촬영 및 실측 등	
7	현혜림		구술 채록 및 전사 확인	
8	송정희		질문지 개발, 구술 채록 및 확인, 소장유물 촬영 및 실측 등	
자문위원				
1	고부자	전 단국대 교수	자문	
조사원				
1	김보향	제주대학교	구술 채록 및 전사, 확인	
2	박진향	제주대학교	구술 채록 및 전사	
3	강경민	제주대학교		
4	고선희	제주대학교		
5	양인정	제주대학교		
6	권지영	제주대학교		

1.2. 조사 및 전사

조사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3개월에 걸쳐 12개 시읍면 지역 27개 마을에서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는 갈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그들의 생활 언어인 제주어로 채록하였다.

전사는 1차 전사, 2차 확인 과정을 거쳤다. 1차 전사는 조사 시점에 시작하여 2023년 3월까지 4개월 동안 이루어졌고, 2차 확인 작업은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조사는 녹음기와 캠코더를 활용하였다. 구술 채록은 갈옷을 직접 만들어 입었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그들의 생활 언어인 제주어로 채록하고, 전사하였다. 전사는 한글전사를 원칙으로 하고, 표기는 제주어표기법에 따랐다. 조사 분량은 총 37시간 57분 44초다.

주요 조사 내용은 △갈옷 명칭 △갈옷 종류 △갈옷에 대한 인식 △감 종류 △감물들이기 전 과정 △착용 상황 △유의점 △기타 감 활용 등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양상, 그 안에서 이루어진 지혜와 지식 체계다.

2.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2.1 명칭

2.1.1. 갈옷/감옷/감든옷

그동안 제주에서는 ‘감(뭍)을 들인 옷’을 일반적으로 ‘갈옷’이라고 말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구술 채록을 통해 제보자들은 ‘갈옷’이라는 명칭과 함께 ‘감옷’ 또는 ‘감든옷’이라고도 하였다. ‘갈옷’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런데 제보자들은 제주 전역에서 사용하는 ‘갈옷’보다는 ‘감옷’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사용하였다.³⁾ ‘감든옷’은 제주시 서쪽 지역인 애월읍·한림읍·한경면 지역에서 조사되었다. ‘감든옷’과 함께 ‘감든중의’, ‘감든적삼’ 처럼 옷 이름에서도 ‘감든옷’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감(뭍)을 들인 옷’의 의미로 ‘감든옷’도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

(1) 등거리가 인제 조끼주게. 이거는 으름 때에 집이 오라근에 그거 감옷 벗어뒤근에 밥 먹을 때. 었은 집이 었어 그거. 미시거 천이 었기 때문에 옷을 멘들 것이 었거든. 이 **감든옷은** 문딱 미녕이어 난.(용수리, 양○월)

(2) 이 **갈옷이렌** 헛 거는 빨기도 좋고 입기도 간편하고 더럽지도 않고, 더러우면 그날 빨아서도 또 입을 수도 있고. 이게 다목적으로 아주 좋은 거요.(감산리, 김○현)

(3)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뒷산디 모르고 이디 촌에 오란 일허멍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서 뚝도 안 부땡 스락하고 경헌다게.(신흥2리, 김○생)

(4) 우리 시집오란 보난에 물들이는 거 감벳기 었었어. 집집마다. 흰 거는 못 입고 게난 감으로만 들이민 그자 입었지, 감으로만 옷옷도 **감옷** 아래도 **감옷**. 문 **감옷**이라. 게난 돈 이신 사름은 다 저 곤 옷덜 사단 입었주만은 우리 경 어렵게 살아난에 경. 흰 차 입으민 금방 옷 버물 거난에 감 들이민 흰 삼 일도 입어. 밧에 가 오민 기냥 흑칠하고 허난. 옷 빨아도 저 흑만 벗어져도 입어. 흰 거는 못 입지.(태흥리, 양○화)

구술(1)~(4)에는 ‘갈옷/감옷/감든옷’의 목적이 잘 나와 있다. “입기도 간편하고, 더러움도 덜 타고, 땀도 불지 않아 스락해서” 일할 때는 ‘감옷’이 제격이라는 것이다.

‘갈옷’이 ‘감을 들인 옷’ 명칭의 대명사가 된 것은 관련 연구와 매체 등에서 ‘감옷’이나 ‘감든옷’보다는 ‘갈옷’을 주로 사용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문화 다양성 측면에서도 ‘갈옷’과 함께 ‘감옷’과 ‘감든옷’의 명칭도 쓸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갈옷/감옷/감든옷’은 감을 으깨거나 감을 짠 감물로 염색한 옷이기 때문이다.

2.1.2. ‘갈’, ‘감’, 감물

‘갈옷/감옷/감든옷’의 재료는 ‘감[柟]’이다. 이 감을 이용하여 제주 사람들은 제주 특유의 옷을

3) 제보자들은 ‘감물을 들인 옷’은 ‘갈옷’보다는 ‘감옷’을 더 자연스럽게 썼다. 조사자가 ‘갈옷’이라고 물어선 지 ‘갈옷’이라고 말하다가도 어느 순간 ‘감옷’이라고 하였다. ‘감옷’이라고 쓰는 것을 확인하면 이내 제보자들은 “갈옷엔도 허고 감옷이엔도 한다.”며 이중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만들어 입었을 것이다. 여기에서 ‘갈옷’은 ‘갈+옷’, ‘감옷’은 ‘감+옷’, ‘감든옷’은 ‘감들다+옷’ 구성으로 이루어진 어휘다. ‘감들다’는 다시 ‘감들+ㄴ+들다’ 구성의 어휘다. ‘갈옷, 감옷, 감든옷’은 모두 감을 이용해서 염색한 옷이기에 감과 관련이 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갈’과 ‘감’의 의미를 유추해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해서, ‘갈’과 ‘감’은 ‘갈옷, 감옷, 감든옷’의 재료인 ‘감’을 이용한 염료인 ‘감물’의 의미로 쓰였다. 감을 으깨어서 옷이나 천에 염색을 하는 행위나 모습을 ‘갈 들이다, 감 들이다, 감물 들이다’라고 하는 데서 유추가 가능하다. 따라서 ‘갈’이나 ‘감’은 ‘감물’의 다른 이름인 셈이다. ‘갈’이 ‘털 익은 감에서 나오는 짙은 즙’의 의미인 ‘감물’의 의미로 쓰인 것은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 구술 (6)과 남원읍 태흥2리 구술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지역에서는 감물을 들이는 일을 ‘갈 들이다’라고 표현하고, ‘갈⁴⁾’이 옷에 스며드는 것을 ‘갈물’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5) **감물 들어** 봤주. 우리 친정에 큰아버지네 감나무집이엔 행 큰 나무가 있어서. 소문 나났어. 감낭 칩 행. 경 험에 난 어린 때니까 어머니 아버지네가 거 감 강 땅은에 **갈 들이는** 거 봤어.(하천리, 강○순)

(6) **갈 들일 때** 깨끗이 빨아 뒹 들여야주. 경 몸에 입어난 몸심도 들고 그디 구둑도 부르고 헌 걸 그디 **갈 들영** 뒹느냐? 깨끗이 빨아 뒹 **갈 들여사 갈물도** 그 옷에 깨끗이 들영 밍도 곱닥하게 발주.(신흥2리, 김○생)

(7) 여자가 입는 거주. 굴중의. 갈중의는 그거 **갈 들인** 거난 갈중의주게.(태흥2리, 양기화)

(8) 감물 짙은에 그 기지에다가 **감 맥이면** 그냥 색이 안 나는 거. 그걸 이제 펜펜헛 디다가 그걸 날 편헛게 다 널어. 널영 그거를 돌르면 또시 그 옷을 가져강 물을 적저. 물 잇인 디 강 물을 덤박덤박덤 박 적저다가 또 영 널영헛면 빨근 빛이 나와.(북촌리, 백○옥)

‘갈물’이 옷에 잘 들기 위해서는 옷을 깨끗이 빨 후에 ‘갈’을 들여야 한다. 그래야 ‘갈물’이 잘 스며들어 바래면 옷 색깔이 곱다고 한다. 구술 (8)에서 보듯이, ‘감 들이’는 것을 ‘감 맥이다’라고도 한다. 갈옷의 색을 ‘감색’, ‘갈색’이라는 표현에서도 ‘갈’과 ‘감’이 감물의 의미로 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갈: 털 익은 감에서 나는 짙은 즙. 갈물, 감물. 시삽(柿澁)
- 감: 털 익은 감에서 나는 짙은 즙. 감물. 시삽(柿澁)
- 감물: 털 익은 감에서 나는 짙은 즙. 염료나 방부제로 쓴다.≒시삽.(《표준국어대사전》)
- 갈물: 떡갈나무 껍질에서 얻는 검붉은 물감.(《표준국어대사전》)

여기에서 ‘감’은 감물의 재료인 열매인 ‘감(柿)’과는 그 의미가 다르게 쓰인 셈이다.

2.2. 갈옷 종류

4) 필자는 2006년 한림읍 월령리에서 ‘갈’을 조사한 적이 있다. 제보자는 이때 바다에서 고기잡이하는 그물을 ‘갈물’을 이용하여 염색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의 ‘갈물’은 떡갈나무의 뿌리에서 얻은 염료였다고 한다. 제보자는 떡갈나무 뿌리를 끓인 물에 면실을 넣어 끓이면 면실이 뽀뽀해서 그물을 짜면 질겨서 좋다고 하였다.

‘갈옷’과 관련 문화를 구술해준 제보자들은 대부분 80대 이상이다. 이들에게 있어서 ‘갈옷/갈옷/감든옷’은 밭이나 들, 바다에서 일하며 입는 ‘일복’이었다. 시대가 변하면서 갈옷을 입는 장소와 옷의 모양이나 형태도 바뀌고 있다. 이들이 갈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는 밭일을 집중적으로 하는 성년이 되었을 때이거나 결혼 이후다. 어렸을 때 갈옷을 입은 경우도 있었지만 드문 편이다.

제보자들이 기억하는 ‘갈옷/갈옷/감든옷’은 어떤 옷이었으며, 종류는 어떤 옷들이 있을까?

윗옷과 아래옷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윗옷은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 등이고, 아래옷은 ‘갈중의/감중의/감든중의, 갈점벙이/감점벙이/감정벙이, 갈굴중의/감굴중의/감든굴중의’ 등 지역에 따라 이름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2.2.1. 윗옷

2.2.1.1.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 갈독지, 갈등지게, 감저고리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은 감물을 들인 적삼이다. ‘적삼’은 예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가운데 하나인, 윗도리로 입는 여름 홑옷을 말한다.

(9) 우이게, **갈적삼**게. 갈몸빼. 아이고 거 밭디 매일 꽃어 아정 가난에게. 몸빼 이추룩 광목이나 미녕이나 행 만들앙들 저 감 들영 입엄주.(화북2동, 백○성)

(10) 우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자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됴민 **감든적삼** 경헤어나신디, 이거도 할망덜 감든굴중의.(금성리, 이○자)

(11) 우에 거 **갈등지게** 해낫주게. 아고 나 저 옷 드라게, 저 **갈등지게** 경헤어나난. 그냥 나 이 할망 굴 아난 거 들구 굴아점저게. **갈적삼 갈적삼**허는디 **갈등지게**. 저 할망덜 만든 건 **갈적삼** 영 헤여근엿에 흐깁 길게 허영 영 버짝허게 부뜨지 안형 그자 옛날 저고리추룩 그런 식으로 할망덜은 만들어근엿에 해낫주게.(일과1리, 고○자)

(12) 적삼은 만들어나도 나 **감적삼**은 안 입어 뵈어. 감몸빼는 이제도 입주만은. 적삼은 안 입어, 요새. 감몸빼. 그런 건 만들앙 입고 이제 저 복덜 주면은 그걸로도 입고 경허주.(월정리, 현○래)

(13) 남자들이 갈중의 입영 펄락한 거 입고 행 갈중의 저 하르방 보라 갈중의 멋지게 입었져. 또 우리는 몸빼. 우테 입는 건 **갈독지**.(북촌리, 백○옥)

구술 (9)~(13)에서 보듯이, 제주 사람들은 같은 옷 종류라도 제보자나 지역에 따라서 ‘감물을 들인 적삼’을 ‘갈적삼, 감적삼, 감든적삼, 갈독지, 갈등지게’와 같이 다양하게 불렀다. 제주시 화북2동은 ‘갈적삼’, 애월읍 금성리에서는 ‘감든적삼’, 서귀포시 대정읍 일과1리에서는 ‘갈적삼’과 함께 ‘갈등지게’⁵⁾라고 하였다. 구좌읍 월정리에서는 ‘감적삼’, 조천읍 북촌리에서는 ‘갈적삼’과 ‘갈독지’처럼 말하였다.

구술 (11)의 “갈등지게, 할망덜 만든 건 갈적삼 영 헤여근엿에 흐깁 길게 허영 영 버짝허게 부뜨지 안형 그자 옛날 저고리추룩 그런 식으로 할망덜은 만들어근엿에 해낫주게.”에서 알 수 있

5) ‘등지게’는 등거리에 해당하는 방언이다. 그런데 제보자는 적삼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제주시 애월읍 양순자·장태선의 구술에 “옛날엔 적삼에 깃 다 있어. 이걸 적삼이 아니야. 지금 말하자면 등지게라, 등지게. 옛날 말로는 등지게. 지금 그 갈적삼은 깃이 잇었주게. 남자나 여자나 깃이 잇고.”의 구술에서 알 수 있듯이 ‘등지게’는 깃의 유무에 따라 깃이 있는 것은 적삼, 깃이 없는 것은 ‘등지게’로 구분하고 있다.

듯이 ‘갈적삼’은 저고리보다 조금 길게 만들었음을 알 수 있다.

2.2.1.2. 감저고리, 갈저고리

‘감저고리/갈저고리’는 저고리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저고리는 한복의 하나로, 윗도리의 하나다. 적삼이 홑옷인데 비하여 저고리는 겹옷이다. 보통은 ‘적삼’에 물을 들이는데, 사람에 따라서는 저고리에 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14) **감저고리**, 감적삼 경 곱읍니다.(수원리, 김○춘)

(15) **갈저고리** 이추룩 만들어. 없는 사름은 겨울에도 입지.(하천리, 강○순)

한림읍 수원리에서는 ‘감저고리’, 표선면 하천리에서는 ‘갈저고리’가 조사되었다. ‘갈옷’은 주로 여름철에 입는데, 없는 사람들은 저고리에 감물을 들여서 겨울에도 입었다고 한다.

2.2.1.3. 갈쫄개, 감쫄개, 감든쫄개

‘갈쫄개, 감쫄개, 감든쫄개’는 감물을 들인 조끼다. ‘조끼’를 제보자들은 ‘쫄개, 쫄끼, 쫄끼’라고 하였다. 조끼는 윗옷을 입은 위에 덧입는 옷이다. 그러기 때문에 일복으로 입기보다는 일상생활 속에서 많이 입었다. 무명이나 광목으로 만들어 입기도 하였지만 삼베를 이용하여 만들기도 하였다.

(16) 쫄개 남자덜이나 입주. 등거리엔 허주만, 남자덜 **갈쫄개** 입은 사름도 잇주게. 베에들 감 들영 상그랑허게.(화북2동, 백○성)

(17) 감든중의. 감든적삼. **감든쫄개**. 그 하르방덜이난 담배도 낱 텅기는 거. 그냥 어지령씨령헌 거. 그냥 소매 찢른 걸로 이 쫄개?추룩 허진 안 헤도 이런 거 소매 찢른 걸로 헤여근에 베나 미녕으로나 쫄끼 허영 감 들영 입영 텅겨.(금성리, 이○자)

(18) **감쫄끼** 이거 잘도 오랜 거여.(수원리, 김○춘)

(19) 남즈들도 이신 사름은 훈 멧 개 **갈쫄개** 행 입곡. 요즘은 누구나 막 이런 쫄개 입어도 그땐 아무나 그런 쫄개도 못 입었어.(법환리, 현○열)

구술 (16)에서처럼 “베에들 감 들여서 상그랑허게(화북2동)” 입거나, 구술 (17)에서 보듯이 “담배도 낱 텅기”기 위해서 주머니를 달아 입기도 하였다. 주로 남성들이 입었다. 구술 (19)에서 보듯이 ‘갈쫄개’는 아무나 입을 수 있는 옷이 아니라 있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었다.

2.2.1.4. 갈등거리, 베갈등거리

‘갈등거리’는 감물을 들인 등거리다. ‘등거리’는 등에 걸쳐 입는 홑옷의 하나다. 보통 깃과 소매 없이 삼베 따위로 간단하게 만들어 입는 여름옷이다. 따라서 ‘갈등거리’는 등 거리에 감물을 들인 옷인 셈이다. ‘등거리’는 소매 없이 조끼 비슷하게 만들지만 맨살 위에 입는 점이 다르다. 주로 ‘미녕(무명)’이나 삼베 따위로 만들어 입는데 시원하게 입으려고 감물을 들여서 입기도 하였다. 구술 (20)의 ‘베갈등거리’는 베로 만든 등 거리에 감물을 들어거나 감물을 들인 베를 이용하여 만

든 옷이다. ‘베등거리’는 베로 만든 등거리인 셈이다.

(20) 이거 등거리게. 갈등거리. 근데 이것도예 이것도 막 입었거든. 거니까 여름에는 소매가 없지만. 여자는 갈적삼이엔 헛주게. 이거 저기 베갈등거리, 남자덜은 등거리엔 허고 적삼이라고 그랬어. 베등거리라고도 허주만은.(금성리, 이○자)

(21) 등거리가 인제 조끼주게. 이거는 으름 때에 집이 오라근에 그거 감옷 벗어뒤근에 밥 먹을 때. 었은 집이 었어 그거. 미시거 천이 었기 때문에 옷을 멘들 것이 었거든. 이 감든옷은 문딱 미녕이어 난.(용수리, 양○월)

(22) 옛날에 베가 서나서. 베로 이제 저 난닝구 대신 쥬끼 만들앙 입으민 이 몸이 스락해. 뚝이 안 부뜨고 그거 우티다가 갈독지 입는 거라.(북촌리, 백○옥)

(23) 옛날 할망들 일로 영 헤영이, 영헤영 가심만 막아근에 감 들영 쪼끼. 아무것도 안 입영 그냥. (낙천리, 김○평)

구술 (22)와 (23)의 “난닝구 대신 쥬끼 만들앙”, “가심만 막아근에 감 들영 쪼끼. 아무것도 안 입영 그냥”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이때 “쥬끼, 쪼끼”가 앞의 ‘갈등거리’의 의미로 쓰인 셈이다. 제 보자에 따라서는 ‘등거리’를 ‘어깨말이’, ‘땀바데’처럼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깨말이’는 어깨끈만 단 속옷, ‘땀바데’는 땀을 받아 내려고 겹옷 속에 입는 옷인 ‘땀받이’를 말한다. ‘어깨말이’와 ‘땀바데’는 여름철에 베로 만들어서 감물을 들여 입는 경우가 많았다.

(24) 옛날도 쪼끼게 저 베에 들영 입어나수다. 베에. 땀바데 훈 건 대로 짜저근에 훈 거게. 족대나 왕대 겹죽으로 짜진 옷 입어나수다. 하르방들. 영 들러지게 소굽에. 쪼끼?치 생겨. 왕대 겹죽으로 짜진 거, 얇게 허여. 멧쟁이 하르방덜. 것?라 땀바데.(수원리, 김○춘)

한림읍 수원리 김○춘은 구술 (24)에서처럼, 예전에 할아버지들은 ‘족대(이대)’나 왕대 겹대의 대오리를 이용하여 조끼처럼 짜서 옷 안에 입기도 하였다고 구술하였다. ‘땀바데’가 무명이나 삼베가 아니라 ‘족대’를 이용했음도 확인해 주는 대목이다.

이밖에 입다가 현 면이나 마로 된 와이셔츠나 티셔츠에도 감물을 들여서 있었다.

(25) 남자는 저 와이셔츠 식으로 만들안 입어라. 저 우리 할망은 손지 보난 멘들안 줘라. 에리 었이 그냥 영 헤영 허는 거 잊지 아녀나게? 적삼은 적삼 식이라이. 그런 거 허연 허고.(일과1리, 고○자)

2.2.2. 아래옷

2.2.2.1.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

감물을 들인 대표 갈옷은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다.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는 ‘중의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중의’는 예부터 전해오는 우리나라의 전통 의복 가운데 하나인 남자의 여름 훌바지를 말한다. 주로 ‘미녕(무명)’이나 광목을 이용하여 만든다. 지역에 따라 옷 이름도 달리 나타나는데, 애월읍 금성리에서는 ‘감든중의’, 서귀포시 천지동에서는 ‘감중의’, 한경면 낙천리와 구좌읍 덕천리에서는 ‘갈중의’라고 하였다. 구술(26)~(29)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중의’는 남

자들이 밭일을 하는 등 일할 때 입었던 일복이었다.

(26) 영장 밭디 가는 하르방덜은 **감든중의** 입영 가주기. 그땐 문으레 영 혁덜토 날르곡 테역덜토 헤 영 날르곡. 일헐 거난.(금성리, 이○자)

(27) 나도 감웃은 안 입었어. 그 어린 때난. 어머니는 **갈중의**만 입었지. 밭디 갈 때는. 난 우잇 건 안 입어. 아랫 것만 입어. 우잇 건이 뚝 부떠나민 이디 색깔이 변허여.(낙천리, 김○평)

(28) 남저들 **갈중의** 입어. 여자들 거는 갈몸빼, 감몸빼. 옛날 어르신덜은 이디 영 해근에게 이거 저 무시거 정강다리 메는 거 그것 보고 하영 **갈중의엔** 허주게. 허리 해근에게 저 고무 아니 뵙 그냥 허리띠 무고게. 남저 입는 건 **갈중의**. 이건 그자 갈몸빼.(덕천리, 이○숙)

(29) 감웃은 일헐 때만 입는 거난이, **갈중의**. 저 중의 멘들곡 남저들 입는 건 허릴 요만이 허게 행 툃로 부짚다.(천지동, 임○은)

2.2.2.2. 갈굴중의, 갈중의, 감든굴중의

‘갈굴중의, 갈중의, 감든굴중의’는 ‘굴중의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굴중의’는 여성들이 입는 전통 한복의 하나로, 허리에 주름을 잡고 바지통을 넓게 해서 만든 속옷이다. 보통 밑을 터서 만드는데 치마 안에 입는 옷이다. 감물을 들여서 일복으로 입기도 하였다. 구술 (31)과 (32)에서 확인하듯이, ‘굴중의’를 서귀포시 남원읍 신흥2리와 태흥2리에서는 ‘갈중의’라고도 하였다. 반면에 남자들이 입는 바지를 ‘갈정벙이’라고 하여 ‘갈중의’와 구별하여 이름을 붙였다. 여기에서의 ‘갈중의’는 ‘2.2.2.1’의 ‘갈중의’와는 다른 의미로 쓰인 경우다.

(30) 우에 거는 감든적삼. 여자 건 여자대로 그자 감든적삼, 남자도 옷 입게 뒤편 감든적삼 경헤여 나신디, 이거도 할망덜 **감든굴중의**.(금성리, 이○자)

(31) 어머니 굴중의 입었어. 갈 들인 **갈굴중의**. 일헐 때. 경허고 갈적삼. **갈굴중의**는 이디 다리 널른 거. 그거 **갈굴중의난에** 이렇게 영 졸라메는 거. 우엔 갈적삼. 치메 어디 무뚱에 메낭이라고 해서 요만은 헐 걸치는 거 그디 걸쳐당 **갈중의** 적삼 입영 일허당 동네 무신 일이 이시민 확 노류왕 입으멍 들으멍 간다.(신흥2리, 김○생)

(32) 굴중의나 갈중의나 ㄱ틀 건디 여자가 입는 거주. 굴중의. **갈중의**는 그거 갈 들인 거난 **갈중의 주게**. (남자가 입는 건?) 점벙이. 점벙이엔 허는 것도이 그것도 점벙이도이 그것도 몰르는 것도 다른 거추룩 몰르지 안허여. 딱로 몰르는 거라, 남자ㄱ추룩 허는 거.(태흥2리, 양○화)

구술 (31)을 보면, “갈굴중의는 이디 다리 널른 거. 그거 갈굴중의난에 이렇게 영 졸라메는 거. 우엔 갈적삼.”이란 구술 내용에서 보면, ‘갈굴중의’와 ‘갈적삼’을 입고 일을 하는 모습이 연상된다. ‘굴중의’는 중의의 가랑이가 넓어서 중대님을 ‘졸라메’야 일을 할 수 있다. 집밖을 나갈 때는 ‘굴중의’ 위에 치마를 걸쳐 입었다.

2.2.2.3. 갈점벙이/갈정벙이

‘갈점벙이/갈정벙이’는 ‘점벙이/정벙이’에 감물을 들인 옷이다. ‘점벙이·정벙이’는 잠방이에 대응하는 제주어다. 국어사전의 뜻풀이를 빌리면, ‘잠방이’는 ‘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표준국어대사전》)로 제주에서의 ‘점벙이’는 국어사전의 의미와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33) 옛날엔이 여름엔 갈옷벵기 엇엇주게. 남저들은 그저 **갈점벵이**만 여름에 입영만 살앗주. 여자덜은 갈적삼허곡 갈몸빼 입고.(법환리, 현○열)

(34) 감물 들인 옷 **갈정벵이** 갈적삼벵긴 엇다게. 기자 흰옷 헤영 제서 때에 절헐 때 허는 건 정벵이적삼. 저술에는 바지저고리. 훗 거 안 안 부짚 건 정벵이. 여름엔 정벵이적삼. 겨울엔 바지. 바지는 안광 겹데기 사이에 숨 흐썰 놔야.(신흥2리, 김○생)

구술 (33)과 (34)를 보면, ‘점벵이·정벵이’는 짧은 바지라기보다는 2.2.2.1.의 ‘갈중의, 감중의, 감든중의’와 같은 개념의 ‘중의’ 뜻으로 쓰고 있다. ‘갈점벵이’는 서귀포시 법환동, ‘갈정벵이’는 남원을 신흥2리에서 조사되었는데, 남자들이 여름에 적삼과 함께 입었던 옷이다. 반면 이 지역에서 ‘갈중의’는 여자들이 입는 ‘감굴중의’를 말한다. 구술 (31)의 “굴중의나 갈중의는 ㄱ틀 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에서 ‘중의’는 남자들이 입는 ‘점벵이’와 다른 여자 옷인 가랑이가 넓은 ‘굴중의’로 인식하고 있다.

구술 (34)를 보면, “감물 들인 옷 갈정벵이 갈적삼”은 일복으로 평상시에는 입지 않았다. 평상시와 제사 때에는 ‘정벵이적삼’을 입어도 감물 들인 옷이 아니라 흰옷으로 입었다.

2.2.2.4. 갈몸빼, 감몸빼

‘갈몸빼, 감몸빼’는 감물을 들인 ‘몸빼’를 말한다. ‘몸빼’는 여자들이 일할 때 입는 바지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에서 들여온 일바지다. ‘갈몸빼’는 남원을 신흥2리, 구좌읍 덕천리 등에서 조사되었고, ‘감몸빼’는 대정읍 일과1리와 구좌읍 덕천리, 조천읍 북촌리 등지에서 확인되었다.

(35) 저 **감몸빼**는 시집간 후제사 입언. 시집간 후제사 감 들영 우리 입어세. 감옷. **감몸빼**는 시집간 후제사덜 만들언 바디 땡기젠 허민 거 입엇잖아. 그냥 하얀 겉로 입으민 버물영이. 감들 다 잇이난 감들여근에 입엇네.(일과1리, 고○자)

(36) 남자도 갈적삼, 갈정벵이 입곡 여자도 갈적삼, **갈몸빼** 입곡 경행 헛주. 중의엔 험 옷이 또 뜬 식으로 멩그는 것가 잇어. 갈중의가 잇어. 이런 디 흐끔 널르게 험 건 갈중의고 이거 갈몸빼, 알 쫄아진 거.(신흥2리, 김○생)

(37) **감몸빼, 갈몸빼**엔도 허고. 갈옷. 감옷. 이거 이름이 으라 가지라. (덕천리, 이○숙)

(38) 옛날은 남츠는 이디 퍼닥히고 행은에 갈중의. 우리는 **감몸빼**. 그렇게 옛날엔 그렇게 살앗어. 남츠들이 갈중의 입영 펄락한 거 입고 행 갈중의 저 하르방 보라 갈중의 멋지게 입엇져. 또 우리는 몸빼. 우테 입는 건 갈독지.(북촌리, 백○옥)

(39) 이거 다님 치는 굴중의 아냐게. 이만이 헤근에 영 헤근에 딱 졸랑. 이건 막 오랜 거고. **몸빼** 나부난게 **몸빼**만 다 입언. 나 이거 요즘 사름 이거 몰를 거라. 이거 **몸빼**보다 먼저 난 거 아니가. **몸빼** 나 결혼헐 때 그 스리에 난 거라. 그 전인 중의. 이거 치메 소굽에 입는 거 아냐? 감물 들여난 거 확실히 여우내 오랑 살멍 감물을 내가 전문으로 허영 늬도 주곡다.(신흥2리, 김○생)

(40) 옛날엔 굴중의에 감 들영 입언. 그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는 **몸빼**란 거 없어. 우리 육은 후가 저 **몸빼**가 나왓주. 감 들인 굴중의도 입고 감 안 들인 굴중의도 그냥 광목으로 멩글앙 다림 쳐근에 입어. 바디 갈 때도 그 굴중의 입영 가냔주게. 바디 갈 때 치마 우이 입영. 할망덜은 옛날에 치메 죽장

입으난.(일과1리, 이○희)

(41) 옛날엔 저 우리 두릴 때 보면 밧 영 행 입영은에 무시 거 해신디 할망들 보문 굴중의 잇잖아. 굴중의 영 흐민 막 으라 폭 해 불민 이것가 영 영 영 영 행 다님 쳐. 경흐민 풍탕허게 입어근에 망알 망알망알 걸으멍 해신디 그것가 그때 사라졌어. 그루후제 **몸빼**. 옛날엔 물이엔 흐 거 없영 그땐 감물 들이단 이제 검은물 나기 시작흐난 그 검은물 들어근에 **몸빼** 입국 경 헛잖아.(하천리, 강○순)

‘몸빼’가 들어오자 여성들이 일복으로 입었던 ‘굴중의’는 자취를 감추었고, 그 자리에 ‘몸빼’가 대신하였다. 이런 사실은 구술 (39)의 남원을 신흥2리 김○생의 “몸빼 나 결혼할 그 스리에 난 거라. 그 전인 중의”라는 대목에서 확인된다. 제보자 김○생은 1924년생으로 스물셋에 결혼했으나 1946년 전후에야 ‘몸빼’가 나왔다고 기억하고 있다. 그는 “몸빼가 나오니 몸빼만 입었”다고 하였다.

대정읍 일과1리 이○희 구술 (40)의 “우리 어머니네 시대에는 몸빼란 거 없어. 우리 육은 후가 저 몸빼가 나왔주.”와 표선면 하천리 강○순의 구술 (41)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강○순은 “우리 두릴 때 보면 밧 영 행 입영은에 무시 거 해신디 할망들 보문 굴중의 잇잖아. 굴중의 영 흐민 막 으라 폭 해 불민 이것가 영영영영 행 다님 쳐. 경 흐민 풍탕허게 입어근에 망알망알망알 걸으멍 해신디 그것가 그때 사라졌어.”라며 ‘몸빼’가 나오기 전에는 ‘굴중의’를 입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

요즘도 ‘갈몸빼/감몸빼’는 밭일을 하거나 집안일을 할 때 등에 많이 입는다. ‘갈몸빼/감몸빼’를 일상생활 속에서 요즘도 많은 사람들이 감물을 들여 입을 수 있는 것은 제주 고유의 장례 풍습과도 관련이 깊다.

(42) 그거 감둔중의, 몸빼. 어디 영장난 디서 하얀 몸빼 주문 감 들영 밧디 텅길 때 입으문 좋아.(금성리, 이○자)

(43) 흐 멧 년 전이 사름 죽으민 광목몸빼 줘났거든. 그 광목몸빼에 감옷 들어근에 이젠 입어. 그거 종양은에 밧디 텅기는 사름 그거 입어. 땀 안 부떠. 술에 안 부떠.(용수리, 양○월)

(44) 장 나민이 하얀 몸빼 광목몸빼 막 테외징 입나게. 이제도. 그리고 난 세 개나 메왕 이디 잇저. 올히 감 들일 거. (법환동, 현○열)

(45) 어디서 친족이 돌아가민 이 몸빼로 저 복옷을 줘. 경허민 그거 행 왕, 뭐 항상 입을 것도 아니고 이거 감 맥연 일힐 때 입젠 감 맥인 거 이거.(덕천리, 이○숙)

제주에서는 상이 났을 때 상주 쪽에서 가까운 친족들에게 ‘광목몸빼’를 복옷으로 나눠주는 풍습이 있다. 이때 받은 ‘광목몸빼’를 장례식 때 입었다가 나중에 빨아서 감물을 들여 일복 등으로 활용하였다. 구술 (42)~(45)는 그런 사례다.

‘갈몸빼/감몸빼’는 외출복으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46) 우리 몸빼만 입영 큰일밧딘 안 가났어. 치메 걸쳐야. 나 시절엔 장에 가나 무시거 몸빼만 입영 안 가난. 우터레 치메 걸쳐 가나신디 요즘은 치메 시나 엇이나 몸빼보다 더 빠짝헌 쓰봉이 더 유행웨어 놓난.(신흥2리, 김○생)

제보자들 세대에서는 동네 큰일이 있거나 외출을 할 때는 ‘갈중의’와 마찬가지로 ‘몸빼’만 입고는 바깥출입을 하지 않았다. 반드시 위로 치마를 걸쳐서 나갔는데, 지금은 ‘몸빼’를 일상복처럼 입기도 하고 있으니 옷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2.2.2.5. 감치메, 갈치마

치마에 감물을 들여 입는 일은 흔한 경우는 아니었다. 사람에 따라서는 ‘감치메, 감치마’를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은 구술 (48)~(50)에서처럼 “옛날에 할망네 치메에 안 들”었다고 하였다. 서귀포시 천지동 임○은의 구술 (50)의 “갈옷은 치메나 아무거나도 옷이 쌍놈덜만 입는 옷이랴어. 천허게 보느네.”라는 인식을 반영한 탓인지 ‘감치메, 감치마’는 흔하게 물들이는 옷이 아니었다. 설령 치마에 감물을 들여도 구술 (47)에서처럼 “어디 땡길 땐 안 입”었다고 한다. 치마에 감물을 들여 입는 경우는 ‘버뭍(더러움)’이 타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47) 아이고, 우리 할망은 치마에도 감 헤여근영에 저 버뭍 타지 안허게 허연 입어라. 그냥 어디 땡길 땐 안 입고. 경헨에 그자 몸빼에 허어나민 버뭍 거 잇이면은 그냥 그 감 헤난 때 그것에 강 또 감 멧 개만 궂다 낱 뵈앙 허든 또 들여진다게. 경허영 입어난 거 난 알아져. 그거벧기 다른 건 안 헤 뵈. (일과1리, 고○자)

(48) 우리 그냥 춤 어렸을 때부터 그 감물덜은 헨에 입어세게. 그때는이 치마도 만들언 줘났어. 감물 헤여근영에 이런 저 광목 자치덜 잇이면 그런 거 헤여근영에 버물지 아녀곡. 그건 흥뽀 감물 들이면 곤다게. 흑교에 안 입어. 막 어렸을 땐 나 그거 허연 치메 헨 우리 어머니가 주난 입어났어.(일과1리, 고○자)

(49) 옛날에 할망네 치메엔 안 들언. 중간에덜은 그 젊은 사람덜 갈치메 헨덜 입엇젠덜 막 곱으는디 난 안 봐뵈.(일과1리, 이○화)

(50) 갈치메는 안 입영 땡긴다. 갈옷은 치메나 아무거나도 옷이 쌍놈덜만 입는 옷이랴어. 천허게 보느네, 갈옷 입영 땡기는 사름은. 이제난 대통령이라도 갈옷 입영 땡겜주, 큰일나. 상열리 소낭침이엔 허민 막 부제난에 그 어른 논일 허레 갈 때도 흰중의 입영 가메.(천지동, 임○은)

(51) 땐 동네는 몰라도 우리 동네는 감치메 입어 본 사람 그거는 안 봐뵈, 요즘 따라는 가끔 젊은 애들이 패션으로 감치마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 나이든 어른은 그게 감치마를 입은 거는 저는 못 뵈다고 보는데.(북촌리, 이○찬)

대정읍 일과1리 고○자는 할머니가 치마에 감 들여서 입었다고 구술하였다. 그는 또 어렸을 때 광목 자치로 어머니가 만들어준 감물 들인 치마를 입었는데 학교 갈 때는 안 입었다고 하였다. 제보자의 세대와는 달리 요즘에는 ‘갈옷’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세대가 바뀌고 유행의 흐름에 따라서 ‘갈치마’도 만들어 입고 있다. 구술 (49)의 “중간에덜은 그 젊은 사람덜 갈치메 헨덜 입엇젠덜 막 곱으는디 난 안 봐뵈.”와 구술 (51)의 “요즘 따라는 가끔 젊은 애들이 패션으로 감치마도 입고 이렇게 하는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제보자들이 인식하는 ‘갈옷/감옷/감든옷’은 여름에 입는 노동복이다. 윗옷으로는 ‘갈적삼/감적삼’, 아래옷으로는 ‘갈중의, 갈굴중의, 갈점벧이’와 ‘갈몸빼’가 대표적이다. 그러기 때문에 ‘갈치메/감치메’를 입는 경우가 드물었고, ‘갈옷/감옷/감든옷’을 외출복으

로 입거나 제사 때는 의례복으로 입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기도 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갈옷/감옷/감든옷’ 종류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제보자들이 인식하는 갈옷 종류⁶⁾

연번	조사 지점		갈옷 명칭	갈옷 종류	기타
1	제주시	삼도2동	갈옷/감옷	(갈)몸빼, (갈)조끼	조끼
2		화북2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납), 갈굴중의, 갈몸빼, 갈조끼	
3		삼양2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조끼
4		광령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5	애월읍	금성리	갈옷/감옷 /감든옷	감든적삼, 갈적삼, 감든중의, 감든굴중의, 갈중의, 갈몸빼, 감든조끼, 갈등거리, 베갈등거리	
6	한림읍	명월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등거리
7		수원리	갈옷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8	한경면	용수리	감옷/감든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등거리, 췌끼
9		낙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조끼
10	대정읍	일과1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굴중의, 갈치마, 감(갈)몸빼, 갈치마, 갈등지개, (갈)조끼	
11		신평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와이셔츠
12	안덕면	사계리	갈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갈조끼	
13		감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14	서귀포시	법환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반바지
15		천자동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굴중의	똥바테
16	남원읍	신흥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갈굴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췌끼
17		태흥2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18	표선면	가시리	갈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조끼	
19		하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굴중의, 갈몸빼	
20	성산읍	고성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어깨말이
21		오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22		난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점벙이, 갈몸빼	
23	구좌읍	신산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점벙이, (갈)굴중의, 감몸빼, 갈쓰봉	
24		덕천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몸빼, 감몸빼	조끼
25		월정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중의, 갈굴중의, 감몸빼, 갈속곳	
26	조천읍	와산리	갈옷	갈적삼, 갈독지, 갈중의	
27		북촌리	갈옷/감옷	갈적삼, 갈독지, 갈중의, 갈굴중의, 갈몸빼, 감몸빼	

2.3. 갈옷에 대한 인식

제주 사람들에게 있어서 ‘갈옷/감옷/감든옷’은 어떤 옷이었을까? 언제 입었으며, 왜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입고 있을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갈옷/감옷/감든옷’은 여름철에 입는 노동복으로 출발해서 외출복이나 제주 지역을 상징하는 옷으로 그 인식이 바뀌고 있다. 그 이유는 땀이 몸에 배지 않고 시원하기 때문이다. 또한 갈옷 특유의 색감과 제주 풍토에 어우러진 ‘제주 옷’의 상징으로 기능하며 소재와 디자인을 달리하며 새로운 유행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6) 여기에서 ‘갈옷’ 종류 명칭은 제보자들이 제시해 준 대로 작성한 것이다. ‘감적삼’이라고 하면 ‘감적삼’이라고 표기하고, ‘적삼에 감물 들었’이라고 했을 때는 ‘(갈)적삼’처럼 표기하였다. 기타 부분은 감물을 들여 입은 옷 가운데 감(갈)이 들어가지 않은 옷 종류를 제시하였다.

2.3.1. 옷에 대한 생각

제보자 대부분은 ‘갈옷/감옷/감든옷’은 ‘일복’으로 인식하고 있다. 구술 (52)~(59)를 보면, ‘갈옷’은 일할 때만 입던 일복이었다. 그러나 요즘은 평상복이나 외출복, 특별복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다. ‘갈옷’에 대한 인식과 평가는 어떠한가?

첫째 일복이라는 생각이다.

(52) 우리 어무니네 삼춘 시절엔 이 갈옷은 입으면 이제 제사집이도 안 가고양, 노동복이엔 해군에, 우리 매누리가 그 공회당에서 그 투표할 때 그냥 요새 신식 저 갈몸빼 입언에 투표 강 해오난 우리 어머니가 투표하는 큰어른 뽀는디 갈중의 입언 가왓젠 경헌 말을 들었어게. 옛날 어른덜은이 갈중의 입언 함부로 이 제사집이도 안 가고 경사난 디도 안 가곡. 옛날은이 오로지 밧디.”(삼양2동, 강○향, 강○숙)

(53) 갈옷은 이제 보리 수확할 때 여름 조팃디 그때는 계속 입었주. 게난 유월, 칠월, 팔월 더운 때. 겨울엔 아니 입어.(삼양2동, 강○향)

(54) (미녕) 그 흑 부뜨곡 뚝나는 디선 그거 헐 수가 었어. 기냥 미녕에 검은물 들영 입어도 멘드락 허면 막 흑 부뜨고 탁탁허곡 감옷은 노동일을 태우니까게 사락사락사락. 건 비누칠 안 해도 그자 잘 강잘강행 감 들인 건 노로 탁탁 털영 뽀양 널어도 뽀곡.(물에만)발강발강발강해영.(화북2동, 백○성)

(55) 옛날에 보리 헐 때 저 틀로 이렇게 훑아났거든. 그때 이 갈옷이가 꿰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 구마줄로 논 때 이것도 꿰고야. 이건 여름에 땀이 안 부떠. 밧디 강 검질멜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 행 땀을 안 부떠.(삼도2동, 강○자)

(56) 우리 시아버지 허는 말, 그건 천헌 옷이라. 무슨 제삿날에 갈옷 입영 왓서? 경헌 말을 나 딱 들었어. 아멩해도 갈옷은 천헌 옷, 일할 때만 입는 옷이로. 어른덜 예쁘게 행 와도 갈옷은 갈옷이라.(광령리, 박○선)

(57) 감옷 쉼 보레 갈 때, 밧디 갈 땀 그런 거 입영 가근에 슻락하게 헤가지고. 작업복이라도 감옷을 입으면 좋지.(북촌리, 백○옥)

(58) 노동을 할라고 허는 갈중의 입어서. 노동복이지 외출복은 아니라 이겁니다. 요즘은 폐손이라고 헤가지고 이제 그 외출복을 하는데, 그 당시는 말 그대로 갈중의. 이 노동복이예요, 노동복. 그 당시에는 제(祭) 보는 남자의 경우에는 갈중의 입으면은 주변에서 욕을 헤. 어디 그 일허는 작업복을 입어 와서 제를 보겠나.(북촌리, 이○찬)

(59) 감옷 일헐 때만 그거 입거든. 웨 일헐 때만 그거 입냐면은 것이 뚝이 잘 안 부떠게. 솔그랑허여.(용수리, 양○월)

‘갈옷/감옷/감든옷’은 뜨거운 여름철에 보리를 수확하거나 조밭의 ‘검질’을 맬 때, 고구마 줄기를 심을 때, 목장에 소를 보러 다닐 때 등에 입었던 일복이다. 그렇기 때문에 ‘갈옷/감옷/감든옷’은 큰일 때나 외출복, 제사를 지내는 의례복 등 특별한 용도로 입는 것을 경계하였다.

즉, 앞의 구술 (52), (56), (58)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갈옷’은 일할 때 입는 노동복이지 제삿집에서 입거나 외출복으로 입으면 흠이 되었다. 갈옷을 입어서 제삿집에 오거나 투표하러 갈 때 입은 모습을 보고 옛 어른들이 곱지 않은 평가를 내렸다.

둘째, ‘갈옷/감옷/감든옷’이 ‘일복’에서 ‘일상복’, ‘외출복’ 등으로 의식이 바뀌고 있다. 제보자

들은 ‘갈옷’을 여전히 일복으로 선호하고 있긴 하지만 디자인과 모양 등을 새롭게 하면서 갈옷에 대한 인식과 용도도 바뀌고 있다.

(60) 그자 감물 들인 건 그냥 땅에만 입는 거. 이젠 촌 감물 들인 거 알아줘근에 신사?치 입어. 으 대통령도 입고 이제사. 아이고 삼베에 감물 들인 거 얼마나 이쁘나 채고지.(용수리, 양○월)

(61) 아이 땀 안 입곡. 이디 결혼헨 온 후제사 감물 만들언 입언. 그거 요새들은 모양으로 입엄주만 은 입기 실패.(낙천리, 김○평)

(62) 여름에 웨방 갈 때도 중간엔 막 갈옷덜 행 막 입어났어. 이제도 감물 입는 사람덜은 입으메. 이제도 입는 사람은 입는디 나 그때 마흔 넘은 땀 거라. 웨방 갈 때도 그 곱닥허게 맨글아근에 절간에 가는 사름덜도이 입영 가고. 우인 안 입고 아래만 입언. 몸빼만 입고 우인 또 다른 거 입고. 장에 간 때도 입고 어디 먹으레 갈 때도 입고. 젠디 이제는 잘 안 입엄신게.(일과1리, 이○희)

(63) 옛날엔 이제보담 더 많앗주, 옷이 엇이난에. 갈적삼도 행 입곡, 갈몸빼도 행 입곡, 또 요즘도이 막 저 귀헌 걸로이 사치로이 더 요새 감물 빌언 허고 잇어, 감물 들이고 잇어. 요새 사름덜은 그 감물 들언 저디 테레비에 막 나오잖아.(법환리, 현○렬)

(64) 갈몸빼 훈 스물댓부터 입어난 거 닳은디. 어릴 때는 안 입어난. 어른덜 입은 것만 알주. 어른덜은 다 감 들언 입어. 할머니덜.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뭐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헨 치마로 헤영 만들언 입는 거 테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물 안 입어봤어. 일헨 땀 이걸로 입언.(덕천리, 이○숙)

구술 (60)~(64)는 ‘갈옷/감물/감든옷’의 용도가 노동복에서 일상복, 그리고 외출복, 특별복으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땅에만 입는 옷”에서 요새는 “감물 들인 거 알아줘근에 신사?치 입어.”, “요새들은 모양으로 입엄지마는”, “여름에 웨방 갈 때도 중간엔 막 갈옷덜 행 막 입어났어. 젠디 이제는 잘 안 입엄신게.”, “요즘도이 막 저 귀헌 걸로이 사치로이 더 요새 감물 빌언 허고 잇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뭐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헨 치마로 헤영 만들언 입는 거 테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물 안 입어봤어.”에서처럼 기능과 모양,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갈옷’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갈옷’도 재질과 모양, 기법, 디자인 등을 달리하며 새롭게 혁신하고 있는 것이다. 옷은 시대와 장소, 기능, 입는 사람의 기호에 따라 유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노동복으로 입었던 제보자들은 구술 (56)의 “아멩해도 갈옷은 천헌 옷, 일할 때만 입는 옷이로. 어른덜 예쁘게 행 와도 갈옷은 갈옷이라.”, 구술 (61)의 “요새들은 모양으로 입엄주마는 입기 실패.”라는 대목에선 ‘갈옷’을 대했던 태도와 선입견이 바뀌지 않은 경우도 확인할 수 있다.

2.3.2. 선호하는 이유

그럼에도 여름철에 입는 노동복이나 일상복 등으로 ‘갈옷/감물/감든옷’을 선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효용성을 살펴보자.

첫째, 땀이 몸에 붙지 않는다. 땀이 몸에 붙지 않으니 옷도 몸에 붙지 않아 ‘슬그랑하니’ 촉감이 좋기 때문이다.

(65) 땀띠 안 나고, 땀 안 부트곡 허니까 노동복으로 처음에는 탄생헌디 이젠 막 멋쟁이들이 입으면

멋지게 보였주마는 원래는 노동복이에요.(삼양2동, 강○항)

(66) 감든중의 몸빠로 주른 이제 그거 허영 감 들영 허영. 저 감 한 뒹에 보리 한 뒹 그 뒹 헤었주만 우린 이디 이 우녁집이 삼춘이 시난 훈 뒹씩 쥐. 칭은에 저 밧디 땡길 때 입으믄, 밧디 땡길 땐 **뚝 안 부땡** 살그랑헝 종주기게. 치닥치닥 안 혀.(금성리, 이○자)

(67) 감옷 일헝 때만 그거 입거든. 웨 일헝 때만 그거 입냐면은 것이 **뚝이 잘 안 부땡게**. 솔그랑혀여.(용수리, 양○월)

(68) **갈옷 입으면 이 뚝이 안 부트거든**. 몸에 부트질 아녀. 경허니까이 저이 농촌엿 사름은 여름에 갈옷을 입어야.(낙천리, 김○평)

(69) 지금 남저나 여자나이. 입다근에 티샤스 거 하얀 거 이상한 거 잇잖아. 그런 거 허믄 능그랑혀주게. 게민 감물 들이민이 것이 슻락헝 여름에 **뚝 안 부땡근에이**. 여름에 웨 감옷을 주로 입느냐 허민 **뚝이 안 부땡 가지고** 슻락헝에 그 감옷을 입는 거.(법환리, 현○열)

(70) **여름에 뚝나민 피잘피잘 다른 건 모랑헤 부난 몸에 부땡 허주만 갈옷은 슻락허난 몸에 부뜨지 아녀고** 기자 이 무신 검은 거나 아무 거라도 툇허게 검은 점을 찍어져도 그 슻못 흰 것에 찍어진 거 추룩 흰허게 나타나지 안허고 그자 7치 여중거렁 살아가는 거.(신흥2리, 김○생)

(71) 갈중의 입영게 물일도 가고 하간 거 허주게. 작업복으로 옛날은. 밧디 김 메러도 거 입영 가고. 바다에고 뭘 어디고 일 ㅎ레고 갈중의가 좋아. **뚝 안 부땡**.(북촌리, 백○옥)

확대 해석하면, ‘갈옷/감옷/감든옷’은 뚝이 잘 붙지 않아 우비 대용으로 비 날씨에도 입었던 기능성 옷이었다. 그 사례는 구술 (71)에서 찾을 수 있다. 구술 (72)는 ‘감옷’을 ‘비옷’처럼 사용했던 예이다. 실제로 감물을 들여 우산처럼 만든 경우도 있었다.

(72)주로 갈옷이 그냥 **장마에도 슻락허게 입곡** 그때는 장에서 이추룩 오천 원짜리 푸는 게 ㅎ나도 엇엇주게. 게난 주로 갈옷 멘들앙 장마에도 그거 입으민 몸이 슻락헤근에, 칙칙허지 안헤. 게난 계속 만들어 입엇지.(신평리, 이○자)

(73) 우리 저 비 온 날, **비 올 때 아무 거 옛날에 엇인, 그 저 감옷 입영 착헝 가달로 이디 오게 헤 근에 영 행 씨근에 비 오는 날 어디 갈 때 경 행 어디 땡겨났주**. 옛날엔 우산도 엇곡, 아무것도 엇어 놓난.(천지동, 임○은)

둘째, 시원하다.

(74) 갈옷은 뚝 안 부땡 솔강허영 종주기. 그디 솔강허고 그냥 **시원허고** 뚝떼기도 잘 안 나고.(금성리, 이○자)

(75) 이제 우린 감물 들영 우이 뭘 이런 옷도 만들앙도 입고 그냥 와이샤쓰에 물을 들영도 입곡 우알로 감옷을 안 입으민 여름에 일을 못 헤. 땀 옷들은 몸에 부땡 안 뒹. 갈옷은 몸에 부트지 안허고 입을수록 **산도룩헤**.(신평리, 이○자)

(76) 여름엔 갈옷 입으민 막 **컨드럽주게**. 밧디 일헝 땡. 일 안헝 땡 뭘 안 입으난 몰르주만은 일헝 땡 감옷은 뚝 나도 솔에 안 부터. 솔에 안 부르기 때문에 일헝 땡 갈옷이 막 좋아. 여름에 입주만은 가을에도 일헝 땡 입엇주게. 겨울에는 안 입언. 농서지는 사름은 감덜 다 들엇어.(일과1리, 이○희)

(77) 갈옷 입으민이 갈옷이 사락사락헤 부난 몸에 부뜨지 안허난 막 **시원헝** 종나게.(신흥2리, 김○생)

(78) 어떤 사름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헝 땡 그거 버뭇 안 타주게. 게곡 슻락

하고 덥지 안하고. 몸에 잘 부뜨지 안행 막 시원해여. 경허난 영 감을 들연 옛날.(덕천리, 이○숙)

제보자들은 “여름에 갈옷을 입으면 막 건드럽다”, “갈옷은 몸에 부뜨지 안하고 입을수록 산도 록해.”처럼 말한다. 제보자에 따라서 ‘시원하다’는 표현을 ‘건드럽다’, ‘산도록하다’라고도 하였다. 시원하고 땀이 안 붙으니 ‘땀데기(땀띠)’도 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름철에 밭일 할 때 감물 들인 옷을 선호하는 이유다.

셋째, 감물을 들이면 옷감이 질겨지고 코팅 효과가 있다. 이는 옷감에 감물을 들이면 코팅 효과가 있어서 질겨진다. “나일론옷을 땀이 삐적삐적”하는데 ‘감옷’은 땀이 스며들어도 달라붙지 않아 느낌이 좋고 질기다는 것이다.

(79) 나가 입어 보면. 이런 나일론옷은 입으면 이디가 삐적삐적허멍 땀이 어떻 스며들지 안허는디 그 땀은 스며들면서도 이렇게 딱 달라부뜨진 안하고 그것이 뒗엔사 표현허민 몰라도 느낌이 좋은 거. 감옷 입으면은 더우지도 안하고 땀도 덜 난 거 닻고 질겨마씨.(광령리, 박○선)

(80) 옛날 할머니부터 그 갈옷을 입으면 그 갈옷 그거이 질기고 옷에 흑도 잘 안 부뜨곡. 몸에 땀도 안 부뜨곡. 경허난 거 갈옷을 들영.(낙천리, 김○평)

(81) 그 감 들여진 건 질기곡 감 아이 들인디 여러주게, 풀 아녀곡 행 입는 거난에. 그 감은 죽도 풀 아녀근에 그자 허민 감옷은 세탁기 드령 빨아불민 풀 저분다. 거면 뿔 수 시민 손으로 빨곡, 비누 맥이지 말앙이. 비누 맥이지 말앙 기냥 빨아사. 게민 막 땀내 삭삭 나민 그냥 오랑 마께로 다닥다닥 물에도 강 두드리멍 옛날식으로이. 경행 빨민 질기곡, 굵곡, 감물이 그대로 있고(천지동, 임○은)

‘갈옷/감옷/감든옷’ 외에도 바구니나 장판, 그물 따위에 감물을 먹이는 이유도 감물을 들이며 본래보다 더욱 질겨지기 때문이다. 구술 (82)는 장판에 감물을 먹이는 이유가 잘 설명되어 있는데, 제보자는 감물을 먹인 장판은 “뽏뽏하고 오래 가더라.”고 하였다.

(82) 옛날에는 흙땅인데 장판 영 흐면은 종이로 브르잖아. 경흐면 그 거를 감 맥이면은 뽏뽏헤지거든. 그든 그걸 질기라고 싹싹싹 막 영 싹멍 맥여 가. 게든 그 장판이 막 오래 가더라고 경 행 허는 거 봐서.(북촌리, 백○옥)

넷째, ‘갈옷/감옷/감든옷’은 더러움이 잘 타지 않고 흙이 잘 안 붙는다. 그래서 여름에 밭일을 할 때 즐겨 입는 것이다. 흰옷을 입고 밭일을 하면 금방 더러움을 타지만 갈색 옷을 입으면 더러움을 타는 줄 모르고, 실제로 ‘감물’로 코팅이 되어 있어서 흙이나 먼지 등이 잘 붙지 않은 이점이 있다. ‘더러움’을 제보자들은 ‘버뭍’이라고 표현하였다.

(83) 옛날 할머니부터 그 갈옷을 입으면 그 갈옷 그거이 질기고 옷에 흑도 잘 안 부뜨곡. 몸에 땀도 안 부뜨곡. 경허난 거 갈옷을 들영.(낙천리, 김○평)

(84) 갈옷 입으면 버뭍도 덜 타고, 시원하고. 원칙으론 시원해. 빨래허기도 좋고.(신평리,

이○자)

(85) 옛날 이런 티 입다근에 이거 들어주게. 게민이 일헐 때 막 이거이 하애 가지고 저 추접허잖아. 이추록 감물 들어민이 흠뾰 더럽혀도 이시네, 더러운 것이 안 나와. 갱 또시 이거 일허민 막 땀 부떠. 요추록 감물 들어민 스락해정이 땀 안 부떠. 스락해근에이 막 입구정만 해여. 으름에. 스락해근에. 감물 들어민 이시네, 일헐 때 무진장 좋거든. 이거 미시거 낫전도 안 입언 버물어. 이 **갈옷은 이를 입어도 안 버물어.**(법환동, 현○열)

(86) 어떤 사람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헐 땀 그거 **버물 안 타주게.** 게꼭 스락하고 덥지 안허고. 몸에 잘 부뜨지 안헐 막 시원헤여. 경허난 영 감을 들연 옛날.(덕천리, 이○숙)

다섯째, 다림질이 필요 없다. ‘갈옷/감옷/감든옷’은 말릴 때 손질을 하면 별도의 다림질이 필요 없다.

(87) **갈옷 다리미질 아년다.** 영영영 해근에 툭툭툭툭 두드려근에이 곱게 나오주.(법환동, 현○열)

구술 (87)의 ‘영영영 해근에 툭툭툭툭 두드려근에이’는 갈옷을 빨아서 널 때 손으로 두들기는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이렇게 한 후에 펴서 널면 말라서도 편평해 다림질이 필요하지 않는다. 게다가 ‘갈옷’은 노동복이기 때문에 다려야 할 이유도 없다.

여섯 째, 재활용이 가능하다. ‘갈옷/감옷/감든옷’은 질기고 재활용이 가능하여 경제성이 뛰어나다. 구술 (88)~(91)을 보면, 입다 헌 옷에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고, 감물을 들였던 옷이 풀이 죽으며 다시 감물을 들여 입는 등 재활용이 가능하였다. 처음 감물을 들일 때보다 색깔이 곱지 않은 단점은 있지만 갈옷의 용도가 노동복인 만큼 입는 데는 문제가 크게 되지 않는다.

(88) 입어난 옷은 들여지는데 감 들영 입어난 건 안 고와. **처음에 헌 번 들였던 옷은 막 헐어가민 또 살릴라고 들어진 허영 입영.**(낙천리, 김○평)

(89) **입단 거 남방 이상헌 거 이시민 감물 들어민 스락헐 막 헐 입어.** 이제 올히도 이제 여름 나민 아들 옷이영 나 옷이영 하영 감 들일 거주. 거 입단이 들랑헌 거 이상헌 티샤스도이 이시민 감물 들어민 색깔 막 이쁘고 입을 때 막 좋아.(법환동, 현○열)

(90) **입었던 옷에도 감 들영은에 입으면은 풀이 죽지 안허냐? 입어가민 자꾸 빨아 가고 무시 거 허민, 또 그거 흠뾰 미치민 버지락허잖아.** 뼈닥헐게. 그추록 헐 입는 사람은 입었어.(하천리, 강○순)

(91) **어떤 사람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헐 땀 그거 버물 안 타주게.** 게꼭 스락하고 덥지 안허고. 몸에 잘 부뜨지 안헐 막 시원헤여. 경허난 영 감을 들연 옛날.(덕천리, 이○숙)

이뿐만이 아니다. ‘갈옷’은 헐어서 옷으로 못 입게 되어도 그냥 버리는 법이 없었다. 물자가 풍부하지 않았을 때에 아이를 눕히는 ‘아기구덕’의 깔개로 활용하였고, 기저귀가 없을 때는 기저귀 대용으로 헌 ‘갈옷’을 이용하였다. 입다가 헌 옷 가운데 쓸 만한 부분은 ‘구덕’을 바르는 용도로 썼고, 헌옷을 가늘게 찢어서 명석이나 바를 꼬는 데도 활용하였다. 쓸모가 없을 때는 걸레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갈옷의 쓰임새는 다양하게 재활용되었다.

(92) **아기구덕에 보릿낭 담고 그 입어난 갈중의 헌 거 턱 디리청 더깁 왕이자랑, 왕이자랑. 그걸 무**

사 버려. 아기 또고망에 똥 기저귀로 써야지.(명월리, 강○자, 장○선)

(93) 그 기저귀가 그땀 었으난에 저 보릿낭, 구덕에 보릿낭 깔아난 다음에 이제 이 갈옷
헌 걸로 해 가지고 그레 영 뇌근에 이제 한 번 오줌 싼 건 내불고. 똥 싸민 흐뎡 영 막 굿
이민 버리고 경허영 막 그 감옷을 었으민 안 뉼 거주기게. 경헨 살았어.(광령리, 박복선)

(94) 갈옷 헐은 이걸루 이제 아기 지성귀 해놔주게. 조름 대영.(수원리, 김○춘)

(95) 아기를 막 이디 오줌 싸카부덴 헌 옷으로 샅바. 이제는 샅바가 잇어 가지고 그땀 샅바가 없어.
갈중의 헌 걸로도 우리는 그렇게 행 키웠어. 아기는 하영 나난 그렇게 행 키웠어.(북촌리, 백○옥)

(96) 옛날 이시네 갈옷 헐은 이시네 그걸 브려근에 또 따른 옷 주원 입곡. 헌 거 던져 불지 안해서
걸로 걸레도 하고. 그걸로 먼 방 다끄곡, 발 다끄곡 걸로이 먼 경헨어.(법환동, 현○열)

(97) 브른구덕은 거 갈적삼이나 갈정병이나 입어근에 막 또고망도 터진 거 입을 나위 었
인 거. 굿인 디로 둘라근에 풀 맥여근에 구덕에라도 불랑 쓰젠. 옛날엔 천도 었이난 경허근
에 갈주력으로 그 구덕을 불르난에 거 데껴 부는 생으로 구덕 불르는 거주.(신흥2리, 김○
생)

이상과 같이 ‘갈옷/감옷/감든옷’은 땀이 붙지 않아 시원하고, 질기고, 감물이 들어 옷감이 뽀뽀
해 비 날씨에나 장마 때도 입을 수 있는 옷이다. 또한 더러움이 덜 타고, 손질이 쉬운 이점이 있
는 옷이다. 또한 입었던 옷에 감물을 들여서 입을 수 있을 뿐 만 아니라 감물을 들였던 옷에 다시
감물을 들여서 입을 수도 있어 그 효용성이 뛰어나다. 뿐만 아니라 헌 옷은 아이들의 기저귀로,
걸레로, 바를 꿀 때, 바구니를 바르는 용도로 쓰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갈옷/감옷/감든옷’이 이렇게 대를 이어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뜨거운 여름에 시원하
게 입을 수 있는 기능성과 실용성이 뛰어난 옷이라는 점과 활용의 폭이 매우 넓다는 것이다.

2.3.3. 옷에 대한 느낌과 표현

‘갈옷/감옷/감든옷’의 특성과 효용성은 갈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과 감촉의 다양한 표현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건드럽다’, ‘바지락하다’, ‘뽀뽀하다’, ‘사락하다’, ‘스락하다’, ‘슬그랑하다’, ‘슬
캉하다’와 같은 느낌과 감촉의 표현들은 표준어로는 대역할 수 없는, 희귀하고 독특한 제주어다.
이렇듯, ‘갈옷/감옷/감든옷’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은 제주 갈옷을 만들고 입었던 제주 사람들, 특
히 여성들이 만들어낸 또다른 무형의 자산이다. <표 4>는 제보자들의 구술 속에 나타난 느낌이나
감촉과 관련한 표현들이다.

<표 4> ‘감옷’ 느낌 및 감촉 표현

연번	표현	구술 내용	지역
1	건드럽다	여름엔 갈옷 입으민 막 건드럽주게.	일파1리
		일허레 가젠 허민 갈옷 입으민 막 건드럽주게.	일파1리
		시렁목이엔 들이난 그땀 바드락헨 곱곡 건드럽곡 잘도 좋안게이.	천지동
2	바드락하다	시렁목이엔 들이난 그땀 바드락헨 곱곡 건드럽곡 잘도 좋안게이.	천지동
3	바지락하다	감옷 탁탁 털영만 행 바짝헨 양 입어가민 수그러져. 처음은 바짝해도 나중 에라 가민 수그러져. 바지락헨 게 좋지. 너무 바짝하면 굿고게. 굿어정.	낙천리
4	바짝하다	감옷 탁탁 털영만 행 바짝헨 양 입어가민 수그러져.	낙천리
5	뽀뽀하다	감 들이민 뽀뽀허주게. 물 적지명 물류와 가민.	화북2동
6	뽀작하다	감들이면은 좀 뽀작허주게. 경허민 슬드레 안 부트니깐 이 감옷을 입기 시 작해 가지고	오조리

7	사락사락사락	감옷은 노동일을 태우니까게 사락사락사락.	화북2동
8	사락사락허다	감옷은 막 사락사락허주게. 땀 안 부떠.	삼양2동
		갈옷 입으민이 갈옷이 사락사락헤 부난 몸에 부뜨지 안허난 막 시원행 좋나게.	신흥2리
9	사락허다	(갈몸빼) 막 사락허여근에 살 부뜨지 아녀니깐 그것만 입어.	용수리
10	산도룩허다	갈옷은 몸에 부뜨지 안하고 입을수록 산도룩헤, 여름에도 완전 좋아.	신평리
11	살그랑허다	저 밧디 텅길 때 입으민, 밧디 텅길 땐 땀 안 부땡 살그랑행 좋주게.	금성리
12	술각술각허다	새 갈옷 입을 때 그것만 입으민 술각술각행 ㄹ려운 거 굵어진 거뿐이주.	천지동
13	스락지다	갈옷은 입으민 스락저	와산리
14	스락허다	땀 부뜨지 말앙 스락허게 입젠	삼양2동
15		갈옷 멘들앙 장마에도 그거 입으민 몸이 스락헤근에, 칙칙허지 안	신평리
16		헤. 게난 계속 만들어 입엇지.	
17		여름에 웨 감옷을 주로 입느냐 허민 땀이 안 부떠 가지고 스락헨에 그 감 옷을 입는 거.	법환리
18		일허명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서 땀도 안 부땡 스락허고 경헌다게.	신흥2리
		어떤 사름덜은 와이샤쓰에도 감 들연 입고 일헨 땀 그거 버땀 안 타주게. 게꼭 스락허고 텅지 안하고. 몸에 잘 부뜨지 안행 막 시원헤여. 경헌난 영 감을 들연, 옻날.	덕천리
19	술그락허다	게민 감물 들이민 술그락헌다 이거라. 술그락허영 땀 안 부떠. 게민 일헨 때 입꼭.	법환리
20	술그랑허다	갈옷 땀 안베어근에 술그랑헤영 좋주게.(사계리)	사계리
		갈옷을 웨 일헨 때만 그거 입냐면은 것이 땀이 잘 안 부떠게. 술그랑허여.	용수리
21	술크랑허다	감물 들영은 그것이 스퀴랑행. 감이 흐슬 풀이 뻗뻗행 썩는 생이라.	금성리

〈표 4〉의 표현 가운데 ‘건드럽다’와 ‘산도룩허다’는 옷을 입었을 때의 느낌을 표현한 말이고, ‘바드락허다’, ‘바지락허다’, ‘바짝허다’, ‘뻗뻗허다’, ‘뻗작허다’는 감물을 들인 옷감을 만졌을 때의 느낌, 그리고 ‘사락사락허다’, ‘사락허다’, ‘상그랑허다’, ‘술각술각허다’, ‘스락지다’, ‘스락허다’, ‘술그랑허다’ 따위는 ‘감옷’을 입었을 때 몸에 닿는 감촉과 느낌을 표현한 말이다. 이처럼 갈옷과 관련한 다양한 표현과 어휘들은 언어와 문화의 다양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기도 하다.

2.4. 착용 환경

2.4.1. 일터

‘갈옷/감옷/감든옷’은 앞의 ‘2.3 갈옷에 대한 인식’ ‘2.3.1. 옷에 대한 생각’에서 다뤘듯이 밭일, 목장일 등 일터에서 주로 일복으로 입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이미 다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생략한다.

2.4.2. 첫 착용 시기

제주에서 ‘갈옷/감옷/감든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는 언제일까? 문헌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

는 것은 조선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주의 ‘갈옷/감옷/감든옷’은 화산섬 제주 환경이 만들어 낸 제주 특유의 옷으로 누대에 걸쳐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제보자들이 ‘갈옷/감옷/감든옷’을 처음 입었던 때는 언제였을까? 구술 (98)의 “아이 들사 무신 갈옷을 입어게.”, 구술 (99)의 “저 갈중의 ㄱ튼 건 그냥 일헐 때만 입어.”, 구술 (102)의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뒷산디 모르고 씨집오란에 촌에 오란 일허멍 살젠 허난”이라는 구술에서처럼 제보자 대부분은 어렸을 때는 ‘갈옷/감옷/감든옷’을 입지 않고 시집와 서 일하면서 자연스럽게 일복으로 입었다는 것이다.

(98) 아이들사 무신 갈옷을 입어게. 어려와도 광목옷이 미녕이나들 그냥 것들.(화북2동, 백○성)

(99) 저 갈중의 ㄱ튼 건 그냥 일헐 때만 입어. 애기 옷도 출려진 사람 물들여근에 뚝나지 못허게. 뚝 나민 그 두드레기 낭은에 못 헌덴 경헝 입영 땡겇주게. 이제도 뭘 방법으로 입지. 여름 때에.(용수리, 양○월)

(100) 갈옷은 하여튼 아인 땡 안 입고 결혼헝 오란에 혼 서른 넘어서 입어저실 거라. 서른 넘어서. 겐디 우리 어린 때도 어머니네 감옷 헝 입엇주게. 어머니넌 아버지넌 갈옷 헝 입엇주. 일헐 때 갈옷을 헝 입으니가. 인제는 갈옷덜 중간에 그냥 일 안 허는 사람도 막 입엇는디 그 당시에는 일복이라고 일 헐 때만 입엇주게.(일과1리, 이○희)

(101) 우리 그냥 춤 어렸을 때부터 그 감물덜은 헝에 입어세게. 경허난. 저 그때는이 치마도 만들언 줘났어. 감물 헤여근영에 이런 저 광목 자치덜 잇이면 그런 거 헤여근영에 버물지 아녀곡. 그건 헝곰 감물 들이면 곤다게. 빨강허영이. 경헝에 그거 입어났저만은.(일과1리, 고○자)

(102) 어린 때 친정에선 막 잘살아 부난 갈옷이 뒷산디 모르고 씨집오란에 촌에 오란 일 허멍 살젠 허난 갈옷을 입어서 뚝도 안 부땡 스락허고 경헌다게. 경헝 그자 갈옷 입영. 다 늙도 다 갈옷 입언.(신흥2리, 김○생)

그러나 대정읍 일과1리 고○자는 어렸을 때도 갈옷을 입었다고 구술하여 집안 형편이나 사람에 따라서는 감물 들인 옷을 처음 입었던 시기가 다를 수 있다. 구술 (99)의 용수리 양○월은 “두드레기 나지 못하게” 방법으로 여름 때에 감물을 들인 옷을 입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제보자들이 ‘갈옷/감옷/감든옷’을 본격적으로 입기 시작한 것은 밭일 등 일할 나이가 되는 성년 때이거나 결혼한 이후라고 응답하였다. ‘갈옷·감옷·감든옷’이 일복이었기 때문이다.

2.4.3. 계절

‘갈옷/감옷/감든옷’은 주로 여름에 입는 옷이다. 감물을 들일 수 있는 ‘풀감’이 나오는 시기도 여름이고, 물을 들일 수 있는 옷감이 얇아야 하니 여름철이 제격이다. ‘갈옷/감옷/감든옷’은 주로 ‘미녕’이나 광목을 이용하여 ‘갈중의’와 ‘갈적삼’을 만들어 입었다. 더위를 쫓기 위하여 베로 만든 적삼이나 등거리에 감물을 들여 입기도 하였다.

(103) 옛날에 보리 헐 때 이 갈옷이 꿰고고. 또 고구마 팔 때 고구마줄로 논 때 이것도 꿰고야. 이 건 여름에 땀이 안 부땡. 밭디 강 검질멜 때, 검질 멜 때도 이 옷을 입으면 시원헝 땀을 안 부땡.(삼도2동, 강○자)

(104) 게난 일헐 때는 무조건 입지게. 그냥 여름에 일헐 때. 봄?을에도 입고. 여름에도 입고. 겨울엔 안 입곡게. 겨울엔 갈옷 입으면 뽀뽀헐, 돗지도 안허고.(일과1리, 이○희)

(105) 감물은 들인 건 얼어. 저 딱딱해근에 천에 고망이 나고 이건 여름에 입는 거난. 감물은 사락사락하게 들이는 거난. 거난 겨울엔 복삭해살 거난 겨울옷은 감옷이 엇고 감옷은 여름에. 여름에 뚝날 때 영허고 입으면 실그랑허주. 경허민 뚝도 썰어지곡 뻗디 강 일허고 허는 것가 감옷이주.(신흥2리, 김○생)

(103)의 예처럼 여름철 ‘보리 헐 때, 고구마 줄기 놓을 때, 검질멜 때’ 입으면 좋은 옷이다. 제보자들이 젊었을 때는 옷이 그다지 흔하지 않을 때여서 구술 (104)에서처럼 여름철은 물론이고 봄가을에도 발일을 할 때는 ‘갈옷/감옷/감든옷’을 입었다. 구술 (105)의 “감물을 들인 건 얼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감물을 들인 옷을 입으며 춥다. ‘감줍’이 찬 성질을 지니고 있어 여름철 일복에 감물을 들이면 몸에 땀이 차지 않고 시원해서 즐겨 입은 것이다. 일종의 기능성 옷인 셈이다.

2.4.4. 차이

2.4.4.1. 여자}남자

‘갈옷/감옷/감든옷’ 가운데 일복으로 주로 입는 옷은 ‘갈중의’와 ‘갈굴중의’, ‘갈몸빼’다. ‘갈옷/감옷/감든옷’은 주로 남자보다 여자들이 더 많이 입었다. 제보자들이 일할 때 입는 옷 가운데 남자는 ‘갈중의’, 여자는 ‘갈몸빼’를 주로 입었다.

(106) 남자가 많이 입긴 헌디 남잔 큰일을 많이 허잖아. 뻗 갈 때 조 불릴 때, 이제 수확헐 때, 그런 때 남자가 허고 이 앓앙 허는 일은 여자가 대부분 많이 헐어. (겨난 여자가 감옷을 더 하영 입엇저.) 예.(삼양2동, 강○향)

(107) 갈옷 주로 여자가 많이 입엇지. 검질 멜 때. 남자덜은 뻗 갈 때, 출 벨 때. 우에 거는 에리 엇인 거 갈적삼으로 허고 아래는 남자들 갈중의 이렇게 묶으는 거 그거 입고.(애월리, 양○자, 양○자)

(108) 남자도 여자도 남자가 하영 입젠 허지만은 여자도 하영 입엇지. 옛날 할망덜은. 난 우잇 건 안 입어. 아랫 것만 입어.(낙천리, 김○평)

(109) 갈몸빼 헐 스물댓부터 입어난 거 다했디. 어릴 때는 안 입어난. 어른덜 입은 것만 알주. 어른덜은 다 감 들연 입어. 할머니덜. 아이 때는 안 입어. 요새 아이덜은 그 멋쟁이도 치마도 허곡 뭐 저 무신 저 드레스처럼. 영헐 치마로 해영 만들안 입는 거 텔레비엔 봐도 옛날엔 우린 감옷 안 입어봤어. 일헐 땀 이걸로 입언.(덕천리, 이○숙)

(110) 나가 어릴 때게 저 시흥리서 많이 입엇주. 커낭은 이제도 감몸빼는 입주만은 남저 어른은 농서도 안 지고 그냥 땡기는 사람이라 부난 감옷을 잘 안 입엇주. 여저 입는 것이 감몸빼난 여자가 많이 입는 거 다했아.(월정리, 현○래)

(111) 장 나민이 하얀 몸빼 광목몸빼 막 테와징 입나게. 이제도. 그리고 난 세 개나 메왕 이디 잇저. 오히 감 들일 거. (법환동, 현○열)

‘갈옷/감옷/감든옷’은 여름철 발일 등에 주로 입었던 옷으로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입었으나 남자보다 여자들이 많이 입었다. 이는 여자들이 ‘앓아서’ 하는 일이 많기 때문이다. 지금도 여성들은 일복으로 ‘갈몸빼/감몸빼’를 많이 입는다. 또한 제주의 장례 풍속 중에 상주들이 여성 친족들에게 복으로 나눠주는 ‘광목몸빼’가 ‘갈몸빼/감몸빼’를 많이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구술

(111)에서처럼 이 ‘괭목뽀뽀’를 장례 이후에 일복 등으로 입기 위하여 감물을 들이는 사람들이 많은 것이 이를 입증한다.

2.4.4.2. 중산간 마을>해안 마을

중산간 마을과 해안 마을은 어떤가? 중산간 마을 해안에서 바라볼 때 ‘웃드르’ 마을에 해당한다. ‘웃드르 마을’은 해안 마을보다 감나무를 많이 심었다. 또한 ‘웃드르’마을은 해안 마을보다 밭 일이나 목장일 등 궂은일을 하는 경우가 많으니 자연스럽게 ‘감옷’을 많이 입을 수밖에 없었다. 울안이 넓은 집은 감나무를 거의 심었고, 감이 없는 지역이나 사람들은 이웃에게 감을 빌려 쓰거나 다른 지역에 가서 감을 사다 감물을 들였다.

(112) 저 웃드리레 그레가 감이 많이 나고, 감낭도 많고게. 웃드리가. 이디도 웃동네광 알동네 차이 잇는다.(금성리, 양○자)

(113) 어디 나갈 때엔 쏘곱에 뽀뽀 입곡 치마를 이렇게 입어이. 이렇게 입영 이 앞이 이레 무경 경허면 탕건게. 고산은 경 안 해신디. 아메도 웃드르라. 이디 하영 입지. 남자도 여자도. 남자가 하영 입젠 허지만은 여자가 하영 입었지.(낙천리, 김○평)

(114)감물 들이는 건 훈 장 웃었지. 그땐 웃영 못 입었지. 감물 들이는 건 이제도 그거 입어, 이제도 우리 어무니 친정엔, 한원리 동네가 옛날엔 웃드르라. 그디만 가몬 감이고 뵈이고 막 들어, 그딘. 이딘 어류와.<용수리, 양○월>

(115) 우리 웃드르라부난 게난 감옷만 입영 살았어. 신산이에서는이 감옷을 그때는 우리 결혼할 고지에, 그 삼십 세까지 많이 안 헛어. 거기는 아메도 개춘이라고 고성은 양춘이주. 거난 조금 웃드르 식으로 허난 수산이나 감옷을 많이 입는디 신산 이짜드레 그 감옷을 막 심허게 입진 안헛어.(고성리, 이○자)

(116) 나 어릴 때 나 수산리라 부난 입어봤저. 웃드르허고 해변허고 입은 그 의상 차이가 좀 잇었주게. 그땐 이런 해변인 예를 들면은 막 원피스 같은 거 막 입었주만은 웃드르 사람덜은 이 옛날 옷을 늦게까지 입었어. 우리 웃드르라부난 감옷만 입영 살았어.(고성리, 강○춘)

이런 평가는 해안 마을에 살다가 중산간 마을로 시집을 가거나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시집간 제보자들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구술 (112)는 한 마을 안에서 바다 쪽과 산 쪽이 감나무 환경이 다른 경우이고, 구술 (113)~(116)은 생활 터전이 해안 마을에서 중산간 마을로, 중산간 마을에서 해안 마을로 바뀐 제보자들의 구술이다. 이들의 구술을 통해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에서보다 ‘갈옷/감옷/감든옷’을 더 많이 입었음을 알 수 있다.

2.4.4.3. 아래웃>윗웃

제보자들은 남자는 ‘갈중의’나 ‘갈정뱅이’, 여자는 ‘갈굴중의’와 ‘갈뽀뽀’를 주로 만들어 입었다. 제보자들의 부모 세대에서는 ‘뽀뽀’보다는 ‘굴중의’에 물을 들여 입었다. 윗웃으로는 적삼이나 입던 셔츠 등에 감물을 들여서 입기도 하였다. 웃감의 소재는 주로 ‘미녕’이나 괭목이었다. 일복이 아닌 경우에는 ‘베’나 ‘모시’, 소창 등에 물을 들인 후에 옷을 만들어 입기도 하였다. ‘감옷’은 윗웃보다 아래웃에 더 많이 물들여 입었다.

2.5. 유의할 점

‘갈옷/감옷/감든옷’은 보관과 관리에 주의해야 한다. 감이 물에 약하고 잘 썩는 성질이 있어 감 물을 들일 때도 유의해야 하지만 물들인 이후에도 세탁이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감물을 들인 옷은 불그스름한 갈색을 띤다. 감물을 들인 후 햇볕에 잘 말리면서 바래야 색깔이 곱다. 그러나 물들여서 말리는 과정에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갈색을 띠어야 할 옷이 거무스레하게 변한다. 갈옷을 입고 땀이 났을 채 오래 두면 곰팡이가 생겨 거메지는 것도 갈옷이 습기에 약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젖었을 때는 빨리 말려주는 게 상책이다.

(117) 그 갈옷은게 그 일복으로 나온 거난 일헤 나민이 막 고왓당이라도 일헤근에 뚝 나나민 거멍헤 불어. 거멍헝 곱지 안허여. 게난 그냥 일허지 안허영 그냥 고양 입는 딘 곱는디 일 강 흐루이틀 헤 나민 뚝 나국 헤 나민 뽀민 더 거멍헤 분다. 저 감옷 입어근에 비 맞아근에 어디 흐썰 싯당 자게 안 뽀앙 내 불민 것도 거멍헤 불고. 게난 감옷은 그냥 비 안 맞아 그냥 고양 입는 거민 그 색이 7만 잇주만은 일헤낭 뚝 나고 경 뽀아 가민 곱지 안헸다게.(일과1리, 이○희)

(118) 갈중의 이추룩 거뭇거뭇헤지지. 잘 아니 감 들어질 경우에 그추룩 허주게. 이 감옷이 썩어 비영. 그 잘 발레지 아녀면 썩어 비어. 무레 비영. 감이 들어민, 성헌 때 헤영 자꾸 발레고, 자꾸 널어 사 뽀개지지. 이거 자꾸 안 발레민 이축 썩어 비어근에이 무레 비어 게난 뱃 안 날 땀 허지 말아사. (법환동, 현○열)

세탁 과정에서도 신경을 써야 한다. 구술 (119)를 보면, 예전에는 갈옷은 쌀뜨물이나 오줌으로 빨고 그늘에 말렸다고 한다. 쌀뜨물과 오줌으로 빠는 것은 옷의 색깔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비누로 빨아서 별이 나는 데 널면 색깔이 검어진다고 하였다.

(119) 갈옷 비누로 뽀앙은 안 뛴어. 그냥 옛날엔 그 쌀튼물로 이렇게 담가서, 또 옛날은 막 못사난 오줌으로 뽀았어. 우리가 싯 오줌으로 요걸 뽀았어. 워나면은 색을 안 변하게. 이거 그냥 (물에) 담가다가 비누로 뽀아서 이렇게 뽀 난 디 널면 새카맣헤 불어. 이게 그렇게 까다론 옷이야. 처음 헤근에 감물 헤연 발렐 때는 뽀디 널어야 뛴어.(삼도2동, 강○자)

(120) 마께로 탁탁 두드렁은에 그냥 비누칠도 안 헤여. 비누 경 서서게. 무슨 양젯물 비누여 벌경헌 것덜 나오국 거세기난 그냥 마께로 탁탁 큰이물에 강은에 물 찰찰허는 디 영 영 헤왕 잘강잘강허당 마께로 팡팡 두드렁 헤와당은에 그냥 또 웃디 탁탁 걸쳐당 몰르민 슬강허게 입국 허주.(금성리, 이○자)

(121) 처음에 감들여근에 영 바래여 가민 벌경헤 불어. 경헤 세제 놓 세탁기에 돌려 불민 검영헤 불어. 세제 때문에 검영헤지는 거. 경헌디 그놈의 세제가 나쁘긴 나빠. 그 잘 곱게 입는 사람들은 그 세제로 안 뽀앙 그냥 저 울삼푸 같은 걸로 뽀주게. 곱게 입젠 허면. 옛날엔 그냥 저 비누로만 뽀나 손으로만 영. 거고 감옷은 막 그 하얀색이나 무슨 색이 아니난 손으로만 주물러 뽀아도, 뚝만 시쳐도 입엇어.(신평리, 이○자)

(122) 감옷은 흐끔 이 저 뵈고, 스파크엔 막 헤여 불면 자게 벗어. 나 헤여 보난 안 뛴크라라. 물에 헤여근에 비누 헤영 살살 그자 비누로. 세탁기에 헤 불은 허영허여 분다.(일과1리, 고○자)

(123) 갈옷은 간단하게 그냥 뽀아서 입을 수 잇는 옷이고, 비누고 뵈고 막 헤서 그렇게 안 헤도 뛴니까. 물로만 싯 뽀아서 이렇게 말려도 뛴는 옷이니까.(감산리, 김○한)

(124) 그 감 들어진 건 질기곡. 감 아이 들인디 여러주게, 풀 아녀곡 행 입는 거난에. 그 감은 죽도 풀 아녀근에 그자 허민 감옷은 세탁기 들영 빨아불민 풀 저분다. 거면 텔 수 시민 손으로 빨곡, 비누 맥이지 말앙이. 비누 맥이지 말앙 기냥 빨아샤. 게민 막 뚝내 삭삭 나민 그냥 오랑 마께로 다닥다닥 물에도 강 두드리멍 옛날식으로이. 경헝 빨민 질기곡, 곱곡, 감물이 그대로 잇고(천지동, 임○은)

(125) 감옷 처음에 빨기 전에 처음엔 곱게 입어야 돼어. 경 때 정 세제 낵 빨앙 입으민 안 돼어. 곱게 입엇당 멧 번 빨아낵 흐꼼 풀 죽은 다음에 댄 거영 놔도 허주. 그냥 그것만 아무겔 허여도 그것만 허영 손빨래로 헤사 돼어.(덕천리, 이○숙)

구술 (120)과 (123), (125)에서 보듯이 ‘갈옷/감옷/감든옷’을 빨 때는 “마께로 닥닥 두드령은에 비누칠도 안 헤여”, “물로만 싹 빨아서 이렇게 말려도 되는 옷이니까.”, “세제 낵 빨앙 입으민 안 돼어”에서 알 수 있듯이 ‘갈옷’은 맹물에 빨아서 마르면 입었다. 또한 감물을 들인 옷이기에 세탁기를 이용하거나 세제를 이용하여 빨면 색깔이 빨리 벗는가 하면 거메진다고 하였다. 곱게 입는 옷은 중성세제를 이용해서 빨고 있다.

3. 시사점

이상에서와 같이 ‘갈옷/감옷/감든옷’이 예로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갈옷’이 제주의 독특한 문화유산이라는 점에 있다. 특히 ‘갈옷/감옷/감든옷’은 생활환경과 인문·사회환경의 변화로 말미암아 노동복에서 일상복, 외출복, 특별복(무대 의상)으로 계승, 발전하고 있다. 이는 ‘갈옷’ 전승이 제주의 자연 환경과 인문 환경, 사회 환경이 밀거름이 되어 주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복으로 시작된 감물 염색이 시대 변화와 유행에 따라 다양한 옷가지로 개발되고 ‘감물 염색’ 제품이 제주를 대표하는 문화상품으로 새롭게 개발되면서 갈옷의 가치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다. 따라서 ‘갈옷’의 효용성 등은 감물을 들일 재료인 감만 있으면 작은 노력으로도 다양하게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이점을 지니고 있어 ‘갈옷’과 ‘감물염색’이 제주의 미래 자원으로 활용할 가치가 크다.

이제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갈옷’의 명칭은 지역과 구술자에 따라서 ‘갈옷’이 ‘감옷’과 ‘감든옷’으로도 다양하게 불린다. 이들 명칭 가운데 제보자들은 ‘감옷’ 명칭을 더 많이 쓰고 있다. 또한 ‘갈옷/감옷/감든옷’의 옷의 명칭을 통해 ‘갈, 감’의 의미도 파악할 수 있었다. ‘갈’과 ‘감’은 옷의 재료인 열매의 의미가 아니라 염료인 ‘감물’의 의미로 쓰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감 들인다’, ‘갈 들인다’, ‘감 맥인다’는 표현 속에서 확인된다.

둘째, 제주의 갈옷 종류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게 불리고 있다. 남자들이 주로 입는 ‘갈중의’를 남원읍 지역에서는 ‘갈점벙이/갈점벙이’로 불리고, 이 지역의 ‘갈중의’는 ‘갈굴중의’ 의미로 사용하고 있어서 지역차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갈옷에 대한 생각, 선호하는 이유, 갈옷의 효용성 등 갈옷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다. 특히 ‘갈옷’의 느낌과 촉감에 따른 어휘를 구분하여 소개하였다. ‘산도룩허다’, ‘슬그랑허

다, ‘사락사락하다’는 다양한 표현은 갈옷 문화가 만들어낸 또 다른 제주의 무형자산이다.

넷째, 갈옷의 첫 착용 시기와 성별과 지역에 따른 갈옷 착용 상황과 차이점도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갈옷의 첫 착용 시점은 발일 등을 할 수 있는 성년기나 결혼 이후가 대부분이었다. 갈옷은 중산간 마을이 해안 마을 사람들보다 더 많이 입었고, 남자보다 여자들이 갈옷을 더 많이 입고 있었다.

다섯째, 갈옷을 관리하거나 세탁할 때의 유의점도 살펴보았다. 갈옷은 쉽게 변하는 성질이 있어서 젖었을 때는 빨리 말려 주어야 하고, 세제를 사용해서 빨거나 젖으면 거메지는 경향이 있다.

이상과 같이 제주 갈옷 문화는 제주 여성들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제주 전통 문화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유산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따라서 갈옷의 가치와 효용성을 다른 분야까지 확장하여, 제주의 감물 염색이 제주를 대표할 수 있는 미래 자원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주 사회가 지혜와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허 북 구 ((재)나주시천연염색문화재단 국장)

I. 서언

섬유 패션 산업은 2조 5천억 달러 이상의 가치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중요한 경제 부문이다. 세계 무역 시장에서 섬유 산업은 두 번째로 큰 부문으로, 시장 규모는 2018년 9,200억 달러에서 2024년에는 1조 2,3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수십년간 눈부신 성장을 보인 섬유 패션 산업의 이면에는 옷의 구입은 더 많아졌으나 입거나 보유 기간은 더욱 짧아진 것과 관련이 많다(McKinsey & Company, 2016) .

패션 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한편에서는 패션산업의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논란으로 되고 있다. 현재, 패션 산업은 인류 탄소 배출량의 10%를 차지하며 수원을 건조시키고 강과 하천을 오염시킨다. 게다가 모든 직물의 85%가 매년 쓰레기장으로 가고(UNECE, 2018) 일부 유형의 옷을 세탁하면 상당한 양의 미세플라스틱이 바다로 흘러간다.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현재 물 부족으로 이어지는 수질 오염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직물은 습식 처리 중에 많은 양의 화석 연료를 소비하는데, 이것에는 많은 양의 탄소가 함유되어 있으며 산소와 반응하여 이산화탄소를 형성한다. 이는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의 원인인 탄소의 양을 증가시키고 동시에 천연자원의 고갈을 촉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대의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측면에서 섬유 패션 산업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것과 함께 정책, 환경단체의 불매 운동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패션업계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이 우수한 제주 갈옷은 부각이 될 수 있는 환경인데, 시대적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측면에서 갈옷에 접근하려는 시도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원고는 이와 같은 배경에서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개념과 연계해서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알아봄으로써 현대적 전승 방안을 강구하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II. 본론

1.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의 뜻 및 의의

1) 지속가능성

섬유패션 주변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 변화하고 있는 패션산업 환경 중에서 최근 부쩍 자주 듣게 되는 단어가 SDGs다. SDGs는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약자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 또는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라는 뜻이다.

SDGs는 2015년 유엔(UN)에서 193개 회원국이 합의해 채택된 의제로 2016년부터 2030년까지 새로 시행되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최대 공동목표다. “아무도 뒤에 남지 않을 것”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으며, 인류의 보편적 문제(빈곤, 질병, 교육, 성평등, 난민, 분쟁 등)와 지구 환경 문제(기후변화, 에너지, 환경오염, 물, 생물다양성 등), 경제사회 문제(기술, 주거, 노사, 고용, 생산 소비, 사회구조, 법, 대내외 경제)를 2030년까지 17가지 주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해결하고자 이행하는 국제사회 최대 공동목표다.

SDGs의 세상을 변화시키는 17가지 목표는 ①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 ② 기아 해소와 지속 가능한 농업, ③ 건강과 웰빙, ④ 양질의 교육, ⑤ 양성평등, ⑥ 물과 위생, ⑦ 에너지, ⑧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 ⑨ 혁신과 인프라, ⑩ 불평등 완화, ⑪ 지속 가능한 도시, ⑫ 평화와 정의 제도, ⑬ 파트너십이다.

SDGs의 이와 같은 목표는 섬유 패션산업 및 천연염색과 떼어 놓을 수 없다. 섬유 패션 산업은 전 세계적으로 7,500만 명 이상의 직원을 고용하므로 직업 창출과 고용을 통해 ①의 모든 형태의 빈곤 퇴치에 기여한다. 천연염색 옷과 패션 치유 등은 ③의 건강과 웰빙에 기여하며, 천연염색과 천연섬유의 사용은 합성염료와 합성섬유의 사용에 비해 ⑥의 물과 위생에 기여하며, 감물염색처럼 상온에서 염색하는 것은 ⑦의 에너지 절약과 관련이 깊다. ⑧의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은 섬유패션 산업을 통한 고용과 관련성이 깊다. ⑫의 지속 가능한 소비와 생산, ⑬의 기후변화와 대응, ⑭의 해양 생태계, ⑮의 육상 생태계는 패션산업의 악영향이 심한 부분이다. 천연염색 등을 통해서 개선의 여지가 많은 부분이기도 하다.

섬유 패션 산업은 이처럼 SDGs와 관련성이 많고, 사회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많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SDGs와 관련된 홍보 등에 대해서는 아직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반면 기업에서는 비즈니스에서 SDGs와 관련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홍보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언론에서도 SDGs와 관련된 업종과 이를 실행하고 있는 관공서, 회사 등을 자주 소개하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SDGs를 실천하는 상품의 구매가 늘어나는 등 SDGs에 대한 참여가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섬유 패션은 태생적으로 SDGs와 연관성이 많기에 그것을 기준으로 한 뒤 SDGs에 부응하도록 해 시대적 흐름에 동참하도록 해야 한다. 동시에 감물염색이 잘못처럼 SDGs 효과가 좋은 부문은 이를 구체적으로 알리고 홍보해 SDGs를 실천하려는 소비자들의 지지를 받는 것은 물론 차별화로 인한 소득증대에도 활용해야 한다.

2) 온실가스와 탄소 중립

지구온난화의 원인 물질인 온실가스(GHGs: greenhouse gases)가 섬유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키고 있다. 온실가스는 지표에서 방사된 적외선의 일부를 흡수해 대기권에서 온실 효과를 만드는 기체다.

온실가스 종류에는 수증기, 이산화탄소(CO), 메탄(CH), 아산화질소(N₂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₆)다. 수증기는 온실 효과를 만드는 동시에 증발과 강우를 통해 열을 우주 공간으로 운반하는 작용도 한다. 하지만 인위적인 수증기 발생량만으로는 기후변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기에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6대 온실가스라고 한다.

온실가스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약 14℃ 전후가 되도록 유지하는데 만약 온실가스가 없다면 지구의 표면온도는 -20℃ 정도가 될 것이다. 온실가스는 지구를 따뜻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가 점점 높아지자 열 흡수가 증가해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지구온난화(Global Warming)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는 지구 평균 지표면의 기온이 장기간에 걸쳐 상승하는 것을 의미하지만 일반적인 표현에서는 산업혁명 이후 지구 지표면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것을 뜻한다.

지구의 지표 기온은 1850년 이후 꾸준히 상승해 2017년 말에는 산업혁명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했다. 2001년에 발표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의 제3차 보고서에 의하면 1901년부터 2000년까지의 100년 동안 지표 온도는 0.6℃ 상승했다.

지구온난화는 온실가스의 배출 증가로 인해 과거보다 더욱 빠른 속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5차 보고서에서는 현재와 같이 지속적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감축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2100년에는 지표 온도는 지금보다 최대 4.8℃가 상승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구온난화가 심해질수록 집중호우, 강수 패턴의 변화, 가뭄과 폭염, 산불, 태풍, 해수면 상승과 산성화 등 기상이변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는데 그렇게 되면 생태계 역시 파괴될 가능성이 높아져 인류 생존의 위기가 될 것이다.

국제사회에서는 지구온난화에 대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대응하기 위해 1992년에 국제조약인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을 채택했다. 1997년 일본 교토에서 열린 제3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는 이른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는데 이것은 온실가스 감축이 주된 목적이었으며 2005년부터 발효되었다.

2015년 12월 파리에서 열린 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본회의에서는 195개 당사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Paris Climate Change Accord)을 채택했다. 파리기후변화협약에서는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 상승 폭을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2021년 영국 글래스고에서 개최된 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파리기후변화협약 세부 이행 규칙을 완성했다. 제26차 당사국총회에서는 글래스고 기후합의(Glasgow Climate Pact)를 대표 결정문으로 선언하고 적응 재원, 감축, 협력 등의 분야에서 각국의 행동을 촉구했다.

COP26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당사국의 구체적인 역할과 목표의 합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섬유 패션 산업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동시에 온실가스 감축과 상쇄시키는 기술, 탄소 패션의 인증과 차별화,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마케팅 및 비즈니스라는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갖게 되었다. 온실가스로 인한 섬유 패션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는 이처럼 과제와 기회를 동시에 안겨 주고 있다.

이 변화를 발전의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섬유 패션 산업 측면에서 온실가스와 지구온난화에 대해 공부하고 시대적 요구에 따른 적극적이고도 능동적인 대응과 활용이 필요하다.

2. 섬유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관계

1) 섬유 패션 산업의 지속가능성 문제

(1) 재료 선택

지속 가능한 직물은 지속 가능한 소재에서 시작된다. 천연소재는 훨씬 더 지속 가능한 경향이 있다. 의류 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천연소재 중 일부는 면, 양모, 리넨, 대마, 뽕나무 및 모시 등이다. 천연소재 직물은 재활용과 생분해가 가능하다.

(2) 에코 디자인

에코 디자인 접근 방식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생태학적, 재활용 가능, 인체 공학, 환경 친화성과 같은 모든 가능한 요소를 고려한다.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고 제품의 미적, 기능적 특성을 높이는 제품 디자인을 말한다. 최근 패션 산업에서 에코 디자인 접근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3) 전통적인 생산 방식에 대한 친환경적 대안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섬유 회사에서 사용하는 환경친화적인 대안이 뒤따르고 있다. 그 대안 중에는 절수형 공기 염색, 디지털 인쇄 기술, 전기화학 셀 머서화(Mercerization), 낭비 없는 패션 디자인, 대체 습식 공정 방법의 개선(무염소 표백, 저온 또는 저온 염색 공정, 염색조 재사용, 친환경 표백제, 잉크젯 인쇄, 식물성 무두질, 폐수 재활용)의 노력이 뒤따르고 있다.

(4) 포장

지속 가능한 포장은 지속가능성 감소-재사용-재활용의 세 가지 원칙을 통합하는 포장을 의미한다. 지속 가능한 포장의 주요 목표는 가능한 한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다. 이것은 재활용 재료를 사용하거나 특수 포장 기능을 만들어서 달성할 수 있다.

(5) 공급망과 운송 수단

회사의 필수적인 부분은 회사의 성공과 고객 만족에 필요한 공급망 관리이다. 동시에 효율적인 공급망과 유통 관리는 재고 상품을 줄인다. 섬유 패션의 산업의 운송은 비행기, 보트 및 통신 장비를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여 항공 여행, 수상, 선박, 철도, 도로, 파이프라인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운송 과정에서 에너지가 소모되어 천연자원이 고갈되고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어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6) 섬유 패션 산업에서 문제가 되는 지속가능성

섬유 패션 산업은 위와 같이 원료 단계, 이용 그리고 최종적으로 사용되고 나서 폐기되는 과정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아래와 같이 현재 다양한 측면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많다.

- 옷을 가득 실은 쓰레기 수거차 한 대가 1초마다 불에 타거나 매립지에 버려진다(UNEP, 2018).
- 패션 산업에서 사용되는 모든 재료의 약 60%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다(UNEP, 2019).
- 매년 빨래를 통해 500,000톤의 마이크로 섬유가 바다로 배출된다. 이는 500억 개의 플라스틱 병에 해당한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 패션 산업은 인류 탄소 배출량의 8~10%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국제선과 해상 운송을 합친 것보다 많은 양이다(UNEP, 2018). 패션 부문이 현재 궤도를 계속 유지한다면 탄소 예산의 해당 비율은 2050년까지 26%로 증가할 수 있다(Ellen MacArthur Foundation, 2017).
- 약 930억 입방미터의 물(500만 명이 필요로 하는 양)이 매년 패션 산업에서 사용되며 일부 지역의 물 부족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UNCTAD, 2020).
- 전 세계 산업 폐수 오염의 약 20%는 패션 산업에서 발생한다(WRI, 2017).

2) 수질 오염의 문제

식수 오염과 부족은 UN에서 ‘세계 물의 날’을 제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인데, 섬유 패션 산업은 그 주범의 하나로 꼽힌다. 엘렌 맥아더재단(Ellen MacArthur Foundation)에 의하면 섬유 제품 생산에는 연간 약 930억 m³의 물이 사용된다고 한다. 이는 올림픽 수영장 3,700만 개분에 달한다. 면 T셔츠 1장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은 무려 2,720리터 정도이다. 이는 한 사람이 3년에 걸쳐 마실 정도의 물이다.

섬유 패션 산업은 물의 대량 소비뿐만 아니라 수질 오염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2012년에 발표된 연구(<https://www.scirp.org/journal/paperinformation.aspx?paperid=17027>)에 의하면 의류 염색 및 마무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는 세계 폐수의 약 20%를 차지한다.

섬유 패션 산업은 화학물질이 가장 많이 사용되는 산업이기도 하다. 합성염료(화학염료)에는 약 72가지의 독성물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 30가지는 제거가 어렵다. 물을 통해 방출된 염료의 약 40%는 수질과 환경을 심각하게 손상시킨다(<https://e-info.org.tw/node/217783>). 오염된 수질은 다시 토지와 수질을 오염시켜서 사람이 이용할 수 없을 정도로 된다.

3) 섬유의 플라스틱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폴리에스터, 나일론 등 합성 섬유의 발달은 패션 산업을 변화시켰다. 1940년 수천 톤에 불과했던 합성 섬유의 전 세계 소비량은 2018년 6천만 톤 이상으로 증가했다. 1990년대 후반부터 폴리에스터는 직물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섬유이다. 오늘날 약 60%의 의류와 70%의 가정용 직물이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다.

이러한 플라스틱 기반 섬유는 온실가스 및 오염 물질 배출로 인해 수명 주기 전반에 걸쳐 환경과 기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섬유 부문은 합성 섬유 생산에 사용되는 원유 생산량의 약 1%로 기후 위기에 점점 더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 부문은 또한 플라스틱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매년 200,000~500,000톤의 섬유에서 나오는 미세 플라스틱이 해양 환경에 유입되며, 섬유 산업은 해양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35%를 차지한다.

따라서 섬유 부문에 대한 고려는 진행 중인 플라스틱 위기를 해결하는 데 중요하다. 플라스틱 오염은 우리 시대의 주요 환경 위기 중 하나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주체들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는 2022년 3월 UN 환경 총회에서 채택된 결의안에서 시작된 플라스틱 오염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 협약을 위한 협상이 포함된다.

3.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과 천연염색

1) 지속 가능한 패션과 천연염색의 관계

지속가능한 패션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H&M, 라바이스 등 유명 브랜드 조차 천연염색 제품을 출시하고 홍보 중이다.

대형 패션 업체들이 천연염색 등 친환경제품을 한정판으로 출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배경에는 지속 가능한 패션에 대한 시대적, 사회적 압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속 가능한(sustainable)’은 장기적으로 자연을 손상시키거나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섬유 패션업체들이 ‘지속 가능한’에 민감한 이유는 “섬유패션산업이 ‘지속 가능한’을 위협하는 주범이다”라는 많은 보고서와 무관하지 않다. ‘McKinsey & Company’와 ‘The Business of Fashion, BOF’의 ‘2020년 패션 산업 동향’에는 “섬유 패션 산업이 온실가스의 6%, 살충제 사용의 10-20%, 제조 시의 습식 염색은 수질오염 원인의 20%, 바다에 방출되는 마이크로 플라스틱의 25-35%를 차지한다”라고 되어 있다.

Quantis and Climate Works 재단의 ‘Measuring Fashion Report’에서는 “세계 의류와 신발 산업은 모두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EPRS’의 섬유패션 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서는 “유럽의 의류산업 소비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2-10%를 차지한다”라고 했다.

의류의 1인당 소비 상승과 폐기도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문제되고 있다. 환경 NGO 그린피스

의 보고서 'Time Out For Fast Fashion'에 따르면, “2000년의 패스트 패션 출현 이후, 사람들은 2배의 옷을 구입하고, 이전의 절반 기간만 입고 버린다고 했다.” 취히리 대학교 도로시바우만 포리(Dorothee Baumann-Pauly) 교수는 'Business and Human Rights'에서 “의류 폐기는 세계적인 문제로 버려지는 옷의 5분의 4는 폐기되고, 이 중 57%는 매립되며, 나머지는 대부분 소각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라고 했다.

섬유패션은 이처럼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눈총을 받자 2018년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24)에서 제정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패션산업 헌장(Fashion Industry Charter for Climate Action)'에 H&M, 인디텍스, 타겟, 아디다스, 버버리, 휴고, 보스 등 총 43개 업체가 참여했다. 목표는 2030년까지 총 온실가스 배출량을 30%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수 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것이다.

2019년 8월 G7 정상회담에서 발표된 섬유 패션기업으로 구성된 '패션 서약(The Fashion Pact)'에도 아르마니, 까르푸, 샤넬, 인디텍스 팬그룹 H&M, 나이키, 푸마, 프라다 등 많은 패션 기업이 참여해 지구 온난화 방지, 생물 다양성의 복원, 해양 보호 3개 분야의 환경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세계적인 흐름은 이제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립서비스가 통용되지 않게 되자 패션업계는 지속 가능한 측면에서 문제가 되는 온실가스, 유해화학물질과 살충제 사용, 수질오염, 마이크로 플라스틱, 과잉생산과 폐기 문제 개선을 위해 실질적으로 나서고 있다.

현재, '지속 가능한 패션'을 내세우고 있는 패션업체들의 실천내용은 저탄소, 유기농과 생분해 소재의 사용, 염색시 욕비의 최소화, 천연소재의 사용 증가, 재고 및 폐기물의 재활용, 재생섬유의 활용 등이다. 이와 관련해서 천연염색은 유해화학물질, 수질오염, 마이크로 플라스틱, 저탄소와 관련이 깊다.

천연염색에 사용되는 염료는 천연물질로 유해화학물질 사용에 의한 폐해와 수질오염 방지에 도움이 된다. 천연염색은 주로 천연소재에 염색이 됨에 따라 근본적으로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발생시키는 재질의 사용이 어렵다. 천연염색 중 감물염색과 전통적인 쪽염색은 가열염색을 하지 않으므로 저탄소와 관련이 있다. 결과적으로 천연염색은 지속한 가능한 패션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는 것이다.

2) 천연 염색별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의 수준

수질오염 등의 폐단을 줄이려면 목화의 재배 단계에서부터 유기농의 선택, 물의 사용량을 줄인 염색과 후처리 방법의 적용, 제조 및 관리 과정에서부터 세탁할 때까지 수많은 마이크로플라스틱을 배출하는 폴리에스테르 재질 제품의 사용 제한, 화학물질이 많이 사용되는 가죽의 사용 축소

와 환경 부하가 적은 가족의 사용, 세탁 횟수를 줄이는 것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섬유의 염색과 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대해 역삼투막과 이온 교환 수지를 이용한 처리 방법 등의 활용으로 오염수를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다.

근본적으로 수질오염을 방지하려면 합성염료를 비롯한 화학물질의 사용을 줄이는 것이다. 특히 합성염료는 저렴하며, 색의 재현성이 높아 안정적이고, 다양한 색깔을 진하게 염색하는 것이 가능하면서도 견뢰도가 강한 장점이 있다. 그러나 수질 측면에서는 치명적으로 제거가 어려운 독성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다.

천연염료는 합성염료에 비해 염료가 다소 비싸며, 색의 재현성과 견뢰도가 낮고, 염색 과정에서도 비용이 다소 많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으나 안전성(安全性)이 높고, 친환경적이며, 자연스러운 색상을 지닌 장점이 있다. 합성염료의 사용 시 문제가 되는 독성물질의 배출이 거의 없고, 수질 오염도가 매우 낮은 수준이거나 없어 수자원 보호에 우수한 것이 천연염료이다.

천연염색은 수자원 보호 등에 우수한 것은 틀림이 없으나 천연염색 부문에서 가장 큰 장점으로 내세우는 친환경에 대한 연구 자료는 거의 없고, 염료가 친환경적이나 나머지 공정도 다 친환경적일 거라고 단정하거나 곡해하는 사람들만 많은 편이다.

그런데 천연염색과 합성염료 염색 공정을 몇 가지 측면에서 비교해보면 천연염료는 그 자체는 천연이라고 하지만 염료를 열수로 추출하면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고, 농축하면 에너지 소비는 더욱더 늘어난다.

염색 시 욕비는 천연염색 산업 현장의 경우 1:30 정도로 하며, 공방에서는 1:50 정도로 맞춰서 한다. 합성염료를 이용한 염색 시 욕비는 1:10 이하로 하며, 최근에는 물 없이 염색하는 초임계 염색 시스템(Supercritical Dyeing System)도 적용되고 있다.

염색 시 물 사용량은 폐수 배출뿐만 아니라 염색 온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 소모와도 관련성이 있다. 천연염색 시 염색 온도와 시간은 60℃에서 30분간 염색하면 수세 시 색소가 많이 빠져 물을 오염시킨다. 90℃에서 30분간 염색하면 온도를 높이는 데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지만 염착률이 좋아 수세 시 염료가 물을 오염시키는 양이 적어진다.

합성염료 염색은 저온 타입의 경우 40~50℃에서 1시간 정도 한다. 이것은 천연염색보다 저온에서 염색을 하나 염색하는 시간이 길고, 그만큼 에너지 소모가 많아진다. 고온 타입은 90℃에서 1시간 염색하는데, 천연염색보다 염색하는 시간이 길고, 그에 따른 에너지 소모량이 많게 된다.

천연염색에는 염색 과정에서 약품을 투입하지 않으나 화학염색에서는 알칼리제를 투입하는데,

이것이 물을 오염시킨다. 염색한 뒤 수세에는 천연염색보다 화학염색에서 물이 많이 소모된다. 소핑(soaping) 과정에서 천연염색은 상온에서 10분간 실시해도 충분하나 화학염색은 98℃에서 10분간 실시해야 한다. 염색 과정에서 투입한 알칼리제를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감물염색이나 발효 쪽물을 상온에서 염색하므로 같은 천연염색이라도 차이가 있다. 천연염색은 이처럼 염재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고, 합성염료 염색 과정과도 차이가 있다. 또 천연염색의 각 공정이 모두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며, 일부 공정은 합성염료 염색이 더 친환경적인 부분도 있다.

그러므로 천연염색이 친환경적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단위 공정별 자원과 에너지 사용, 대기·수계 배출물과 폐기물(지구 온난화, 인체 건강, 고갈성 자원 소비, 부영양화, 오존층 파괴, 산성화) 등을 정량화하는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전 과정 평가로 환경 비용을 더 절감하는 염료 추출 방법, 염색 과정 등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4.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에 좋은 갈옷

1) 갈옷의 지속가능성

천연자원을 고갈시키지 않거나 자연을 손상하지 않고 지속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 지속가능성(Sustainable)이 각 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세계적인 패스트패션 수요 확대로 대량제조, 대량 소비, 대량 폐기가 반복되어 환경에 대한 부하가 지극히 큰 섬유 패션 산업에서도 지속 가능한 패션(Sustainable fashion)이 특히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

패션 산업에서 사용되는 많은 섬유는 석유 유래로 그 자체의 탄소뿐만 아니라 정제 과정에서 면직물 대비 3배 정도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다. 제조 단계에서는 방직, 염색, 재단 등 다양한 공정이 포함되는데, 환경에 해로운 약품이 사용되며, 환경부하가 걸린다.

염색 등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은 약 8,000종류에 이르고, 그 대부분은 자연스럽게 분해되지 않고, 환경 중에 잔류해 문제가 되고 있다.

판매 과정에서 재고 상품은 다음 해에 이월하기도 하나 많은 옷이 폐기된다. 옷의 이용과정에서 폴리에스테르계의 플리스 1장은 1회의 세탁으로 수백만 개의 섬유가 빠진다. 6kg의 아크릴 천을 세탁하면 70만 개 이상의 섬유가 방출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의류를 태우는 방법으로 폐기하게 되면 다이옥신과 같은 유해 가스가 발생하고, 매립할 경우 석유 유래의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의류는 부패되지 않으므로 흙에 대한 오염이 크다. 패션산업은 위와 같이 의류 생산 과정에서 폐기까지 많은 양의 이산화탄소 배출, 다량의 물 사용, 심지어 화학물질에 의한 수질오염과 토양오염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 갈옷은 옷의 재료로 면직물, 마직물 등 천연섬유를 사용했다. 염료는 천연 재료인 미숙감 즙만을 이용해 최저의 욕비(浴比)로 사용해 물의 소비와 물의 오염도를 최소화했다.

염색한 옷을 어느 정도 착용하고 난 다음에서 다시 감물로 염색하고, 또 색이 바래거나 푸새한 것과 같은 질감이 없어지고 부드러워지면 다시 염색하기를 반복했다. 이는 감물염색을 통해서 푸새한 것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과 함께 옷의 수명을 연장해 자원을 아끼고, 탄소배출을 최소화 했다.

감물염색을 통해 옷의 수명을 최대한 연장해서 입음으로써 착용 주기를 늘였다. 재염색해서 수명을 최대한 늘린 갈옷의 수명이 다되면 다른 용도로 새롭게 사용되었다. 새로운 용도에는 주로 아이를 업을 때나 애기구덕을 땔 때 쓰는 것으로 너비가 좁고 긴 형질인 걸랭이, 제주어로 귀저기를 뜻하는 지성귀, 짐을 질 때 사용하는 끈인 배(짐배) 및 질빵, 소달구지에 사용되는 쉼잇배, 제주도에서 아기를 눕혀 재우는 요람인 애기구덕의 깔개, 걸레인 폴레로 이용 등 다양했다.

헐어서 못 입게 된 갈옷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게 된 것은 천이 귀했던 것과 함께 감물염색 천의 방수, 항균, 통풍, 질긴 물성 등 기능성을 활용하기 위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지속 가능성에 매우 충실한 것이었다.

2) 탄소중립이 우수한 제주 갈옷

제주도 갈옷은 입는 것만으로도 탄소중립을 실천하게 된다. 합성 섬유로 된 옷, 합성염료로 염색된 옷들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는 많은 탄소를 배출하나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 옷은 염색에 이르기까지 탄소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의 피염물에는 식물성 섬유가 사용된다. 식물성 섬유의 재료 식물은 대마, 모시, 목화가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들 식물은 광합성에 의해 만들어진 에너지에 의해 식물이 자라며, 성장한 식물체로 만들어진 것이 섬유이다.

광합성은 녹색식물이 빛 에너지를 이용하여 이산화탄소와 수분으로 유기물을 합성하는 과정으로 공기 중의 탄소를 제거해서 섬유 등으로 만든다. 광합성 작용으로 만들어진 식물성 섬유에는 탄소를 함유하고 있으므로 감물염색의 피염물은 공기 중의 탄소를 격리해 놓은 것이다.

제주도 감물염색 옷에 사용된 염료인 감 또한 섬유와 마찬가지로 감나무 열매는 공기 중의 탄소와 물을 흡수해서 만든 것의 결정체이고, 염색과정에서 일부가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지만 처음부터 공기 중에 함유된 탄소를 이용한 것이므로 대기 중의 탄소가 증가되지는 않는다.

이에 비해 화학 섬유와 합성염료는 대부분 석유로 만들어진다. 현재의 석유와 천연가스는 태고의 수중 플랑크톤 등이 토사와 함께 얽은 바다나 호수에 퇴적된 다음 미생물에 의해 케로젠(Kerogen)이라는 유기물로 변했고, 그 위에 진흙이나 모래가 쌓여, 화학 반응이 진행된 후 지열에 의해 오랜 시간에 걸쳐 분해된 결과 액상이 된 것이 석유이며, 기체상으로 된 것이 천연가스인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유기물 유래의 석유는 탄소(C)와 수소(H)로 이루어진 화합물, '탄화수소'가 주성분이다. 석유에 포함된 탄화수소는 분자량과 구조가 다양하다. 석유는 다양한 탄화수소의 혼합물로 탄소(83-87%), 수소(11-14%), 유황(0.1-3%), 질소(0.1-1%), 산소(0.1-1%), 금속(0.001-0.1%)을 포함하고 있다.

석유는 오늘날 가솔린, 경유, 제트연료, 중유 등의 수송 연료와 발전용 연료 외에 타이어 등의 고무 제품, 플라스틱제품, 의류에 사용되는 화학섬유, 합성염료, 세제 및 샴푸 등의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지금 우리의 생활은 석유와 떼어 놓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이다. 석유가 다양한 분야에서 연료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하에서 꺼낸 석유에 83-87%의 탄소가 있다는 점이다. 석유에 함유된 탄소는 석유가 가공, 유통 및 폐기되는 과정에 대기 중으로 배출되고 이것은 지구 온난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고 있다.

석유로 만들어진 화학 섬유와 합성염료는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해서 만들어진 감물염색의 원료가 사용되어 순환되는 것과는 달리 지하에서 매장된 탄소를 이용하는 것이므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대기 중의 탄소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것은 화학 섬유와 합성염료를 만드는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감물염색 과정에서는 생략되는 염액의 가열에 의한 염색 그리고 합성염료로 염색한 후 세정 과정 등에 소요되는 에너지 원료로 소비되면서 탄소 발생을 증가시킨다.

화학 섬유와 합성염료의 사용은 탄소 발생 증가뿐만 아니라 이미 많이 알려진 것처럼 화학 섬유의 사용에 의한 미세플라스틱 발생, 합성염료의 사용에 의한 수질오염 등 환경문제의 야기도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대기 중의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을뿐더러 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는 제주 감물염색과 감물염색 옷을 입는 것은 탄소중립을 실천하는 행위이다. 탄소중립은 거창하고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감물염색 옷을 입는 것만으로도 이해할 수 있고 실천할 수 있으며, 탄소중립을 전파할 수 있다.

3) 물발자국이 적은 제주 갈옷

물은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인 존재이다. 그 물이 위협받고 있다. 유엔은 물 사용량이 인구 증가의 2배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이 상태가 2025년까지 지속되면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 부족의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물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오염시키는 산업 중의 하나는 섬유 패션 산업이다. 섬유산업은 표백, 정련, 염색, 수세와 특수 화학 마감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에서 물이 많이 사용되며, 또 오염을 시킨다.

물이 문제시 되는 섬유 패션 산업의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물이 소비되고 얼마나 많은 폐수가 발생하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섬유 패션산업에서는 물발자국(Water footprint) 개념이 도입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물발자국은 2002년 네덜란드 트벤테(Twente) 대학의 아르헨 호스트라(Arjen Hoekstra) 교수가 만든 것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과정에서 사용된 물의 양 개념을 나타낸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1kg의 쇠고기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약 15,000L의 물이 소요된다는 수치처럼 입고, 사고, 팔고, 먹는 행위 모든 과정에서 물이 사용되고 있다.

물발자국은 위와 같이 제한된 담수 자원이 어떤 목적으로 소비되고 오염되는지를 이해하고 반추에 하는 것에 의해 올바른 물의 사용 방법이나 절수 등으로 이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활용된다.

물발자국은 크게 녹색 물발자국(Green water footprint), 청색 물발자국(Blue water footprint), 회색 물발자국(Gray water footprint)으로 분류되고 계산된다. 녹색 물발자국은 비 등에 의해 토양에 저장된 물이 농작물 생산에 이용되거나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물로 농산물, 원예산물, 임산물과 관계가 깊다.

청색 물발자국은 지표수 또는 지하수 자원으로부터 공급되고, 증발하거나 제품에 이용되는 물, 한 수역에서 다른 수역에 되돌려지는 수량, 관개 농업, 산업 및 가정용수로 산업 전반과 관련이 있다. 회색 물발자국은 특정 수질 기준을 충족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담수의 양이다. 계산은 생산량 1t당, 경작지의 ha당, 통화의 단위당 및 다른 기능 단위당의 입방미터로 측정된다.

위 세 종류의 물발자국 중 섬유 자원인 목화, 대마 등을 재배하는데 소요되는 물의 양은 녹색 물발자국이며, 염색과 관련이 있는 것은 청색 물발자국과 회색 물발자국이다. 섬유산업에서 물발자국의 종류별 비율은 방글라데시의 경우 62.85%가 염색과 수세 등 마무리 단계(청색 물발자국)에서 발생하나 총 물발자국의 86.15%가 회색 물발자국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Laila Hossain & Mohidus Samad Khan. 2017. 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 Engineering).

방글라데시 섬유산업의 물발자국 연구 결과를 해석하면 물의 직접적 사용량 측면에서는 염색과 수세 과정(청색 물발자국)에서 많이 소요되나 오염물질을 정화하는 데 필요한 물의 양이 더 많아 총 물발자국에서는 회색 물발자국의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이는 합성염료에 의한 염색의 특징이 잘 나타나 있다.

합성염료에 의한 염색은 이처럼 총 물발자국 중 회색 물발자국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천연염색은 합성염료에 의한 염색과 마찬가지로 청색 물발자국의 비율이 높으나 회색 물발자국의 양은 매우 미미하다.

천연염색 중에서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은 회색 물발자국은 물론 청색 물발자국도 아예 없을 정도다. 물이 부족했던 제주도에서는 과거에 감을 으갠 즙을 옷에 흡수시킨 다음 지붕 등지에 올려 놓고 이슬에 의해 수분 처리와 발색을 시켰다. 염색 과정에서 물을 사용하지 않았고, 염색 후 수세 과정이 없고, 발색 과정에서 인위적인 수분 처리 과정이 없는 것이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이었다.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의 이러한 특징은 합성염료를 이용한 염색은 물론 일반적인 천연염색과 차별화되는 염색법으로 세계에서조차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가 힘들다.

4) 바틱에 비해 우수한 갈옷의 탄소 발자국

패션산업은 석유 산업에 이어 세계 2위의 환경오염산업이라고 불리는 패션업계에서는 환경오염 산업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해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려는 움직임을 가속화하고 있다. 패션산업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원재료 조달과 제조 등의 상류 공정뿐만 아니라 사용 후 폐기 단계에서도 대량으로 배출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데, 제품의 생산에서 재활용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에서 배출되는 CO2의 총량을 탄소발자국(Carbon footprint, 이하 CFP)이라고 한다.

패션업계에서는 환경문제에 영향을 주는 탄소 배출량을 CFP로 가시화하는 것에 의해 소비자들도 CFP가 낮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브랜드 '올버즈(Allbirds)'는 2021년 4월에 'CFP산출 키트'를 공개했다. 일본의 패션 브랜드 '카폭 노트(KAPOK KNOT)'에서는 올버즈가 발표한 라이프사이클 평가(LCA) 틀을

참고로 전 제품의 CFP를 산출해 제품에 표시하고 있다. 상품의 CFP를 산출하여 표기하는 것은 CFP자체가 상품의 가치가 되기 때문이다.

패션 상품의 새로운 가치를 나타내는 CFP를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에 적용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낮고 우수해, 이것 자체가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의 우수성과 가치를 세계적으로 알리는 데 큰 자산이 된다. 더욱이 제주도 감물염색을 2009년 10월 9일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세계적인 인지도가 높은 인도네시아 바틱과 비교해 보아도 월등하게 우수하다.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과 인도네시아 천연염색 바틱의 CFP를 비교 분석하려면 단위 공정별 자원과 에너지 사용, 대기·수계 배출물과 폐기물(지구 온난화, 인체 건강, 고갈성 자원 소비, 부영양화, 오존층 파괴, 산성화) 등을 정량화하는 전 과정 평가(LCA: Life Cycle Assessment)와 함께 전문적인 방식에 의해 CFP산출이 되어야 한다.

전문적인 CFP산출은 과제로 남겨 놓고 몇 가지 과정을 단순하게 비교해 보아도 제주도 전통 감물 염색의 CFP가 매우 낮음을 알 수가 있다. 인도네시아 바틱은 염색하기 전에 왁스 등으로 문양을 만들기 위해 방염처리하는 한다. 이 과정에서 앙로(anglo)라 불리는 화로 위에 입구가 넓은 와잔(wajan)을 올려놓고, 그 위에 왁스를 녹이면서 찬팅(Canting)이라는 도구로 그림을 그린다.

면직물(90 × 250cm) 1장에 왁스로 그림을 그리는 데는 수일에서 1주일 가량 소요되는데, 불을 피워야 하고 노동력이 소요된다. 염색을 위해서 염료식물을 물에 넣고 끓여서 추출하며, 염색 시 욕비는 1/50-1/100 정도로 조정함에 따라 물이 다량 소모된다. 염색은 ‘침염(15분) → 탈수(염액 통 위에 걸어두고 자연 탈수) → 건조’과정을 10회 반복한다. 염색 이후에는 물을 끓인 후 그 물에 염색한 천을 담가서 왁스를 녹여 낸다.

제주도 전통 감물은 미숙감을 분쇄 후 즙액을 내고, 옷을 이 즙액에 치대서 감물이 천에 스며들도록 한 다음 지붕에 올려놓거나 돌담 위에 두고 건조 및 발색을 시키는 매우 간단한 방법이 적용되었다. 염색 과정에는 끓는 물에 염료를 넣어 추출할 필요가 없고, 불을 지피거나 물을 끓일 필요가 없으므로 CFP가 매우 적게 된다. CFP산출식에 적용하지 않아도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은 이처럼 그 과정이 매우 친환경적임을 알 수 있다.

5) 서량 염색에 비해 우수산 갈옷의 탄소 발자국

온도 상승은 기상이변과 생태계 파괴의 위험도를 높여 인류 생존의 위기가 될 수 있음에 따라 탄소중립은 인류의 생존이라는 측면에서 지구 차원의 문제이다. 탄소중립의 이유가 명확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탄소가 경제적인 부문에도 영향을 미치므로 섬유 패션업계에서도 경쟁하듯 탄소중립에 나서고 있으며, 그것을 마케팅에도 활용하고 있다.

섬유패션 산업에서 천연염색은 합성섬유에 합성염료로 염색한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탄소중립적이며, 사람이 활동하거나 상품을 생산·소비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의 총량인 탄소 발자국이 적게 된다.

그런데 친환경적인 천연염색이라도 피염물의 재료, 염료 및 염색 방법에 따라 탄소발자국의 차이가 매우 크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제주도 감물 염색과 서랑(薯蕷, *Dioscorea cirrhosa*) 염색이다. 감물과 서랑은 대표적인 타닌계 염료이다. 감물은 우리나라와 일본에서 많이 사용하며, 서랑은 중국 남부지역,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일본 오키나와 등지에서 염료로 사용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 바틱과 함께 세계적으로 인지도가 높다.

감물 염색은 미숙감 추출물을 상온에서 염색하는데, 특히 제주도 전통 감물염색에서는 욕비(浴比)가 매우 낮고, 수세 등의 과정이 없으므로 탄소 발자국이 매우 낮다. 서랑(薯蕷)은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오래전부터 괴근이 염료용으로 이용된 마과 식물로 대만에서는 서랑(薯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꾸루(クール, 紅露), 베트남에서는 쿠나우(Cu nau)로 불리는 비중이 큰 염료식물이다.

중국에서 서랑을 이용한 염색은 중국 광둥성 순더(順德)가 유명하며, 염색 천은 향운사(香雲紗)로 우리나라에서는 진흙염색 천으로도 알려져 있다. 중국에서 서랑 염료를 이용한 전통적인 염색에서 염료 추출은 네 번에 걸쳐 반복 추출한다.

그리고 첫 번째 추출물은 원단을 처음 염색할 때 사용한다. 두 번째 추출물은 염색한 천을 햇볕에 말리면서 뿌려 주는 데 사용한다. 세 번째 추출물은 두 번째 과정을 마친 원단을 삶을 때 사용한다. 네 번째 추출물은 반복해서 염색 원단에 서랑 추출물을 뿌리고, 삶을 때에 사용한다. 추출과 염색 횟수가 많고 염액을 끓여야 하므로 탄소 발자국이 매우 많아진다.

베트남의 전통적인 의복은 갈색 계통이 많은데, 그것은 주로 서랑으로 염색한 것이다. 서랑 염색은 서랑 괴근을 수세 후 잘게 잘라서 열수 추출한 다음 추출액을 천으로 걸러 염색에 이용한다. 염색은 100회 정도 반복하는데, 15일 정도 소요된다. 이것을 다시 햇볕에서 발색시킨다.

중국이나 베트남에서 서랑으로 염색한 천을 검은색으로 하기 위해서는 상기 염색 과정이 끝난 것에 대해 중국에서는 강의 진흙을, 베트남에서는 구아바 잎이 떨어진 장소의 진흙으로 매염을 한다. 매염 과정을 제외하더라도 제주도 감물염색은 서랑염색에 비해 탄소 발자국이 매우 적고 친환경적이다.

5.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 측면에서 갈옷의 전승 방안

1) 전통적인 전승 배경의 소실에 대한 대안

제주도 감물염색과 갈옷은 특정 지역을 배경으로 발전했고, 그 염색문화가 지금까지도 풍부하게 전해지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 감물염색은 중국 절강성 온주의 쪽 염색문화 및 전남 나주의 쪽 염색문화가 전승된 배경으로 작용한 염색 천의 혼수품으로 사용된 풍습처럼 관습, 혼례 등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았음에도 그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또한 합성염료의 도입과 보급에 따른 염색 혁명기를 거치고도 살아남았다.

그 배경은 무엇일까? 답을 구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각도에서 조사 분석이 필요하나 우선적으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은 착용감과 기능성이라 할 수가 있다. 제주도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서 어르신들은 착용감에 대해 “감물로 염색한 옷은 처음에는 몹시 뻣뻣해서 부드러운 부분의 피부가 아프기도 했지만 조금 입고 나면 뻣뻣한 풀기도 좀 부드러워지면서 까칠한 느낌이 오히려 푸새한 것같이 좋았고, 땀을 흘리거나 비를 맞아도 몸에 잘 달라붙지 않아서 좋았다. 또 여름철에 감물로 염색한 옷을 입으면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좋았다”라는 응답 내용이 많았다.

작업을 할 때는 “산에서 풀을 베면 가시나 덩굴에 찢리고, 역새 앞에 살을 베는 경우가 많은데 감물로 염색한 옷을 입으면 가시에 잘 찢리지 않아 좋았다. 이슬이 맺힌 풀밭에서 일하면 이슬이 스며들어 적셔지지 않고 물방울이 떨어지기 때문에 좋았다.”라는 응답이 많았다. 또 “옷이 몸에 달라붙지 않고, 때도 잘 안 타서 밭일 할 때 좋았다.”라는 응답과 함께 “땀 묻은 옷을 그냥 두어도 썩지 않았다”라고 해서 방수 및 방부 효과에 관한 응답 내용도 많았다.

“감물로 염색한 옷을 여름철에 며칠 동안 입어도 땀 냄새가 잘 안 나고, 더러워지는 줄을 모른다. 일을 할 때 먼지나 보릿가스랭이 등이 붙어도 옷을 털면 잘 떨어졌다. 빨래할 때는 비누를 사용하지 않아도 때가 잘 씻겨졌다는 응답 내용에서처럼 소취(消臭) 효과와 더불어 청결(淸潔)한 효과가 있었다.”라는 응답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중국 절강성 온주 지방이나 전남 나주에서 쪽 염색 문화가 관습이나 풍습에 의해 다른 지역보다 늦게 소실되거나 전승의 바탕이 된 것과는 달리 감물염색한 제주도 갈옷은 그 자체의 기능성과 작업의 용이성 등 우수한 특성이 작용했다.

그런데 이들 특성 중 일부 특성은 화학 섬유로 대체가 쉽고, 노동 환경의 변화, 선택의 범위 확대 등에 의해 갈옷의 착용 필요성이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특성의 강조와 이것들을 배경으로 전승에 매달리는 데 집중하기 보다는 시대적 화두이자 갈옷의 우수한 지속가능성 및 탄소중립의 특성을 전승 방안과 연계시켜 자산화하고, 가치화하는 것에 의해 전승에 활용한 필요성이 있다.

2) 제주도의 상황과 연계하여 상징적으로 활용

제주도 감물염색의 탄소중립 상징성은 제주도 감물염색 제품의 홍보와 마케팅뿐만 아니라 제주의 정체성과 탄소중립의 실천의지에 까지 확대하여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제주도는 한정된 면적에 인구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며, 연간 관광객이 제주 상주인구의 약 15배인 1,000만 명 이상이 됨에 따라 그 어느 지역보다 탄소 발자국을 줄여야 되는 처지에 있다. 또한 제주도는 현재 세대만의 땅이 아니라 현재의 세대가 미래세대로부터 빌려 쓰고 있으므로 깨끗하게 쓰고 되돌려 주어야 하는데도 쓰레기는 늘어나고 땅과 물의 오염은 증가되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는 그 어느 곳 보다 제도적이나 의식적으로 탄소중립에 앞장 서야 하는 곳이다. 그런 점에서 천연염색 업계뿐만 아니라 제주도 차원에서 대표적인 탄소중립의 상징물인 제주 갈옷을 입거나 내세우면 제주도의 탄소중립 의지를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을 갈옷의 전승에도 동력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

3) 갈옷의 친환경성의 의식 확대

천연염색은 자연환경을 계속 아름답게 하고, 인간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여 모든 것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게 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데도 도입은 잘되지 않고 있다. 그 이유는 비용 때문이다.

천연염색은 화학 염색에 비해 비용이 많이 든다. 제조 과정에서 손실이 많이 발생하고, 기술적 위험이 크므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 차원에서는 망설일수 밖에 없다. 그런데도 대만의 섬유기업 휘맹국제고빈유한공사(輝盟國際股份有限公司)의 브랜드 중의 하나인 'FREE'에서는 지구와 건강을 생각하는 소비자들을 믿고, 2014년에 천연염색 의류를 출시했다.

규모가 크고 40년 이상 백화점 의류 업계에서 호평을 받아온 'FREE'로서는 큰 모험이었으나 결과는 나쁘지 않았다. 천연염색 의류를 처음 출시한 2014년에는 천연염색 의류가 전체 매출액의 10%를 차지했다. 2017년에는 15%, 2018년에는 30%, 2019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했다. 'FREE'에서는 천연염색 의류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일부를 환경단체 등에 기부하고 있다.

'FREE'에서는 현재 천연염색 의류의 비중을 더욱 늘리고 있다. 그 이면에는 생태환경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천연염색 의류를 구입하겠다는 대만의 소비자들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합성염료의 사용에 의한 환경 피해를 줄이기 위한 천연염색이 성장하려면 소비자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천연염색 업계뿐만 아니라 천연염색 제품을 출시하는 업체에서도 천연염색의 성장은 소비자에게 달려있다는 점을 잊지 말고, 합성염료의 사용에 의한 환경 피해와

천연염색이 갖는 친환경적인 효과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나 환경 친화적인 제주도 갈옷도 마찬가지이다.

4) 갈옷 체험과 착용,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 교육에 활용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가 되면서 교육 현장에서도 탄소중립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탄소중립은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 중에서 감축되는 온실가스가 제로로 되는 것이다.

탄소중립이 시대적 화두가 된 것은 지구온난화 때문이다.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것으로 그 주요 원인은 온실가스 때문이다. 온실가스는 대기권으로 올라가서 마치 하우스의 비닐처럼 지구를 둘러싸 더워진 복사열이 대기권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갇히게 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것이 온실효과이다.

온실효과에 의해 상승된 지표 기온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산업혁명 이전 대비 1℃ 이상 상승했다. 온실효과가 산업혁명 이후에 급격하게 발생한 이유는 자연계에 있는 탄소의 배치 불균형 때문이다. 2020년 세계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는 413.2ppm으로 1750년 이전의 평균값으로 예상하는 278ppm에 비해 67.3%가 증가한 수치이다. 이것은 자연 상태 계에서 증가한 것이 아니라 석탄, 석유 등의 형태로 지하에 매장되어 있는 탄소를 지상으로 파 올려서 인간이 이용하고, 대기 중으로 발생시킨 결과물이다.

지하의 탄소를 대기 중으로 이동시킨 사례는 많고 많은데 그중에서 누구에게나 쉽게 설명하고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섬유 패션이다. 화학섬유와 합성염료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인류는 식물이나 동물 유래의 자원을 활용했다. 식물은 공기 중의 물과 탄소를 흡수해서 에너지를 만들어서 자라며 그 부산물이 섬유와 염료가 된다. 식물이 자라면서 대기 중의 탄소를 흡수하고 죽어서 부패하게 되면 다시 탄소를 방출하므로 대기 중의 탄소를 증가시키지 않고 탄소중립이 된다.

그런데 합성 섬유와 합성염료는 지하에 있는 석유로 만들어진다는 사실은 탄소가 83-87% 정도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하에 있는 탄소를 지상으로 재배치시킨 것이며, 사용하고 난 옷이나 염료가 폐기되는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해서 대기 중의 온실가스를 증가시키게 된다.

섬유 패션은 이처럼 온실가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누구나가 옷을 입고 있으므로 탄소중립 교육과 체험에 활용하기 좋은 분야이다. 현재 옷의 재질은 대부분 천연섬유와 화학섬유로 구별되는데, 이것은 온실가스와 탄소중립을 설명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된다.

옷의 색깔과 염색을 화제 삼아 온실가스와 탄소중립을 설명할 수가 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은 99% 이상이 합성염료로 염색되어 있다는 점에서 천연염색과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온실가스와 탄소중립을 쉽게 이해시킬 수가 있다.

천연 염색은 화학 섬유에는 잘 안 되고 천연섬유에만 잘 되는 특성이 있으므로 천연염색 체험 시는 옷의 재료인 섬유의 특성 설명을 통해 탄소중립의 적절한 교육을 할 수가 있다.

교육과 체험 현장에서 옷은 누구나가 입는다는 점에서 입고 있는 옷을 사례 삼고, 천연염색 체험을 하면 탄소중립 교육이 매우 효과적으로 된다. 아울러 섬유와 염료의 종류 및 친환경적인 천연염색에 대해 알고 나서 직접 천연염색을 해 보는 것은 탄소중립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지름길이 된다. 기껏은 갈옷처럼 탄소중립이 우수한 것의 전승과 보급에 큰 도움이 된다.

5) 입고 싶은 옷, 사고 싶은 옷 그리고 입어서 좋은 옷

옷은 보건 위생학적인 측면에서 ① 체온 조절의 보조, ② 신체의 보호, ③ 생활 활동의 적합, 사회학적 기능으로는 ① 직업이나 소속 집단의 표시, ② 사회관습에의 순응, ③ 자기의 표현 등 입는 목적이 다양하다.

최근에는 시대와 함께 변화하는 의상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으로서 비중이 커지고 있다. 사회에 사는 우리는 만난 상대가 착용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그 사람의 내면을 상상한다. 첫 단계에서 패션을 잘 활용하면 서로를 더욱 원활하게 이해할 수 있다. 패션은 커뮤니케이션이라고도 할 수가 있다.

프랑스의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한때 "입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패션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방식을 표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갈옷이 아무리 전통성이 좋고,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에 좋더라도 소비자들이 입고 싶지 않은 옷, 사고 싶지 않은 옷, 입어서 불편한 옷은 사랑받지 못하고 전승도 되기 어려우므로 보기 좋고, 입고 싶고, 입어서 좋은 옷을 만들어야 전승이 용이하게 된다.

III. 결론

제주도 갈옷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대적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매우 우수한 모델이다. 이 모델이 소비자나 섬유패션의 세계 시장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고, 활용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활용하려면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 측면에서도 다양한 접근 필요성이 필요하다. 동시에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내적으로 계량화하고 논리를 만들어 내발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의 계량화된 자료와 전통적 가치라는 자산을 소비자와 세계적으로 발신하여 이슈화시키고, 이것에 대한 지지층이나 기업을 모아 동력으로 삼아야 한다. 그리고

이것에 의해 외발적 발전을 자극하는 방법 및 보기 좋고, 입고 싶고, 입어서 좋은 옷을 만들어 공급하는 것에 의해 전통 갈옷을 현대적으로 전승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참고문헌

- 허복구. 2007. 신비한 발효감물 색깔있는 감물염색 쉽게 배우기. 중앙생활사.
- 허복구. 2013. 감물염색의 이론과 실제. 세오와 이재.
- 허복구. 2013. 근대 제주도의 감 문화와 감물염색. 세오와 이재.
- 허복구. 2014. 타이완의 감물염색. 세오와 이재.
- 허복구. 2016. 근대 전남의 천연염색 문화와 전통기술. 세오와 이재.
- 허복구. 2017. 근대 전남 진도의 감물염색 기술과 문화. 세오와 이재.
- 허복구. 2022. 미래를 바꾸는 천연염색. 중앙생활사.
- 허복구. 2022. 미래를 바꾸는 탄소농업. 중앙생활사.
- 許北九. 2015. 柿染色의理論與實際, 臺中市政府文化局葫蘆墩文化中心.
- [https://www.genevaenvironmentnetwork.org/resources/updates/sustainable-fashion/\(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Fashion Industry\).](https://www.genevaenvironmentnetwork.org/resources/updates/sustainable-fashion/(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 the Fashion Industry).)
- [https://textilevaluechain.in/news-insights/sustainability-in-the-textile-industry\(SUSTAINABILITY IN THE TEXTILE INDUSTRY\).](https://textilevaluechain.in/news-insights/sustainability-in-the-textile-industry(SUSTAINABILITY IN THE TEXTILE INDUSTRY).)
- <https://www.fibre2fashion.com/industry-article/7269/sustainability-the-future-of-fashion>
- <https://www.sutlejtextiles.com/blogs/blog-post.php?id=D35>
- <https://www.textileworld.com/textile-world/features/2022/02/significance-of-sustainability-in-textiles/>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

-평상복과 노동복을 구분하였던 배경-

고광민

1. 제주도 복식의 전통

제주도의 옷은 남녀에 따라 달랐다. 남자 평상복은 바지와 저고리인데, 계절에 따라 옷감과 그것을 대는 법이 여자 평상복과 조금 달랐다. 봄과 가을에는 무명으로 만든 겹옷, 여름에는 삼베나 무명으로 만든 홑옷, 그리고 겨울에는 무명 겹옷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옷을 입었다.

저고리를 예로 들어보면, 겹으로 만든 것을 ‘접저고리’, 홑으로 만든 것을 ‘홑적삼’ 또는 ‘홑저고리’, 그리고 솜을 넣은 것을 ‘소개저고리’라고 하였다. 홑옷에는 감물을 들어 만든 갈옷을 입는 수가 많았다. 다만 두루마기와 버선은 방한(防寒) 목적으로 착용하였을 뿐, 여름에 착용하는 일은 없었다. ‘웃드르’ 사람들은 개가죽으로 만든 두루마기를 입는 수도 있었다. 이런 옷을 ‘가죽두루마기’라고 하였다[사진 1].



〈사진 1〉 가죽두루마기(1912년, 구좌읍 김녕리)

여자 평상복은 치마저고리 ‘소중의’ 등이었다. 계절에 따라 남자 옷과 같이 봄과 가을에는 무명

으로 만든 겹옷, 여름에는 삼베나 무명으로 만든 홑옷, 그리고 겨울에는 무명의 겹옷 사이에 솜을 넣어 만든 옷을 입었다. 홑옷에 감물을 들인 갈옷을 입는 수도 있었다. 해녀들은 잠수할 때 ‘물소 중의’라는 옷을 입었다.

제주도에서 전승되는 남녀의 전통 복식 중에서 갈옷은 노동복이나 다름없었다. 제주도 갈옷의 전통은 오래되었다.

베갯방이에 푸른 감의 감물을 들이면 그 색이 검붉은데 비록 열흘이나 한 달을 빨지 못해도 땀으로 더러워진 줄을 모르니 농가에서 더욱 즐겨 입는다(以短褐嘗染青柿水 其色赤黑 雖旬月不濯 曾不汗汙 農家尤爲好着).

조선조 영조 41년(1765)에 편집된 『증보 탐라지(增補耽羅誌)』(김영길 번역본)에서 위와 같이 갈옷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2. 제주도 사람들의 평상복은 백의(白衣)다

1912년, 일본인 문화 인류학자 토리이루우조오(鳥居龍藏)는 제주도에서 유리건판 사진을 남겼다. 토리이루우조오의 요청에 따라 제주도에서는 관덕정에서 입춘굿을 연출하였다. 입춘굿을 구경하고 있는 제주도 사람 중에는 갈옷을 입은 사람은 보이지 않는다[사진 2, 3].



〈사진 2〉 입춘굿(1912년, 제주시 관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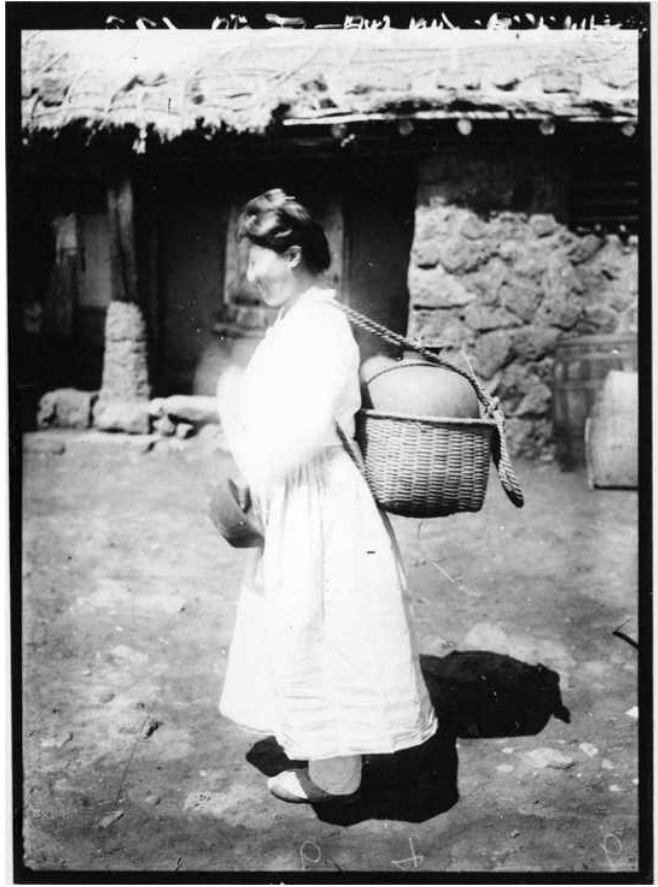


〈사진 3〉 입춘굿(1912년, 제주시 관덕정)

제주도 여자들의 평상복은 관덕정 오일장의 모습에서 잘 드러난다. 오일장에 나온 제주도 여인들은 갈옷을 입고 있지 않았대도⁴⁾. 그리고 ‘허벅’이라는 물동이를 등에 지고 있는 여인도 하얀 옷을 입고 있다(사진 5).



〈사진 4〉 관덕정 오일장(1912년)



〈사진 5〉 허벅을 지고 있는 여인(1912년, 김녕리)

제주도 사람들의 평상복인 백의(白衣)는 한반도의 경우와 같다[사진 6].



〈사진 6〉 오일장(1940년대, 경상남도 함양군 마천면)

3. 백의 노동복과 갈옷 노동복

1940년 11월 16일, 타카하시노보루(高橋昇)는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보리농사를 짓는 사진을 남겼대사진 7. 그리고 1940년 6월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진도 남겼대사진 8. 제주도 이외 육지부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모두 백의를 입고 밭농사와 논농사를 짓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 7〉 한반도 보리농사(1940년 11월 16일)



〈사진 8〉 논농사(1940년 6월 21일, 평안북도)

제주도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산야에서, 밭에서 바다에서 일할 때, 노동복인 갈옷을 입었다. 산야에서 ‘테우리’ 한 사람이 머리에는 ‘삿갓’을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고 ‘세미양오름’(575m) 북쪽 들판에서 여러 마리의 소를 가꾸고 있다[사진 9].



〈사진 9〉 테우리(1960년대, 제주시 아라동, 홍정표 촬영)

‘테우리’는 말이나 소를 들에 놓아 돌보며 가꾸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삿갓’은 대오리로 엮어서 만든 ‘△’ 모양의 모자이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갈적삼’은 매듭단추 대신 단추를 채웠다는 점이 돋보이고, ‘갈중의’에는 대님을 땀다. 제주시 아라동 사람들은 청명(4월 5일경)부터 소서(7월 7일경)까지, 이웃끼리 번갈아 가면서 암소와 숫소를 따로따로 가꾸었다. 이렇게 가꾸는 소를 ‘번쉐’라고 하였다. ‘번쉐’는 소를 기르는 사람끼리 여러 마리 소를 한데 모아 주인들이 차례를 정하여 들에 몰고 나가 먹이는 소라는 말이다. 그리고 암소만 모아놓고 가꾸는 ‘번쉐’를 ‘암쉐번’, 숫소만 모아놓고 가꾸는 ‘번쉐’를 ‘부랭이번’이라고 하였다. ‘테우리’는 ‘부랭이번’을 가꾸고 있는 모양이다.

윗도리에 런닝셔츠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은 남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다[사진 10].



〈사진 10〉 밭일 하는 남자 노동복(1960년대, 홍정표 촬영)

농부 세 사람이 말에 ‘낭테’를 채우고 조의 씨앗을 뿌린 땅거죽을 다지고 있다. ‘낭테’는 둥근 나무토막에 굵은 나뭇가지를 돌아가며 수없이 박아 붙여 만들어 조의 씨앗을 뿌린 다음에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땅거죽을 다지는 도구라는 말이다. 이런 일을 ‘블린다’고 한다. ‘블린다’의 ‘블르다’는 밭로 밟게 한다는 말이다. 비교적 젊은 농부 두 사람은 윗도리에 런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신식 바지를 입고 있지만, 비교적 나이든 농부 한 사람은 윗도리에 런닝셔츠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를 입고 있다.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훌바지이다. ‘갈중의’에는 대님을 묶지 않았다. 제주도 사람들은 장마가 겹친 소서 무렵에 밭에 조의 씨앗을 뿌리고 나서 땅거죽을 마소의 밭이나, ‘낭테’의 밭이나, ‘돌테’의 밭로 밟아주었는데, 이는 수분 증발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이었다. ‘돌테’는 조나 밭벼 씨앗을 뿌리고 나서 돌멩이로 토양을 다지는 도구라는 말이다. 조나 밭벼의 씨앗을 밭에 뿌리고 나서 ‘낭테’나 ‘돌테’로 땅거죽을 다지는 일은 제주도 동부 지역에서 전승되는 수가 많았다.

밭에서 윗도리에 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은 여자가 밭에서 일하고 있다[사진 11].



〈사진 11〉 밭일 하는 여자 노동복(1960년대, 홍정표 촬영)

저 멀리 비교적 나이 든 아낙네는 하얀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고 ‘곰베’로 흙덩이를 바수고 있고, 가까이 비교적 나이 어린 아낙네는 검은 물 들인 무명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몸빼’ 입고 ‘꼬슬퀴’를 끌며 땅거죽을 펴고 있다. 적삼은 윗도리에 입는 홑옷이고, ‘갈몸빼’는 감물을 들인 여자들이 쉽게 통으로 입을 수 있는 고무줄 홀바지이다. ‘곰베’는 흙덩이를 깨뜨리거나 씨앗을 뿌린 뒤에 흙을 덮는 데 쓰는 도구인 곰방메라는 말이다. ‘꼬슬퀴’는 길쭉길쭉한 잎나뭇잎을 수없이 함께 엮어 부채 모양으로 만들어, 뿌린 씨를 묻고 밭이랑을 고르는 데 쓰는 도구라는 말이다.

바다에서 머리에 ‘박세기모자’ 쓰고, 윗도리에 ‘갈적삼’ 입고, 아랫도리에 ‘갈중의’ 입은 남자가 자리돔을 잡고 있다[사진 12].



〈사진 12〉 자리돔 잡는 남자 노동복(1960년대, 홍정표 촬영)

‘박세기모자’는 해방 이후 미군이 제주도에 진주하면서 쓰고 왔던 모자이다. 미군들이 제주도 농가에서 생산된 달걀과 바퀴 먹게 되면서 제주도 사람들에게 유행하기에 이르렀다. ‘갈적삼’은 감물을 들인 윗도리로 입는 홑옷이고, ‘갈중의’는 감물을 들인 남자의 여름 홑바지이다. ‘터우’는 삼나무 여러 개로 평평하게 만든 배라는 말이다. ‘국자사들’은 국자의 형태로 생긴 자리돔잡이 그물이다. ‘국자사들’로 자리돔 잡는 일은 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수가 많았다. 일정한 자리돔 어장으로 가서 닻을 드리워 ‘터우’를 세워놓고 ‘국자사들’을 배의 이물 쪽으로 드리운다. 바로 이 이물 중간쯤에 ‘국자사들’ 손잡이를 걸쳐 두는, 나무로 만들어 고정한 갈퀴 비슷한 고리가 장치되어 있다. 이를 ‘버텅’이라 한다. ‘버텅’에 끼워 놓고는 한 손으로 ‘국자사들’ 손잡이를 잡아 준다. 그래야 ‘국자사들’ 손잡이가 조류에 쓸리지 않는다. 나머지 한 손으로는 물안경을 잡고 물속으로 들여다보며 자리돔 떼가 그물 위에 물려든 것을 확인한다. 자리돔 떼들이 확인되면, 배의 이물에 ‘국자사들’ 손잡이를 받치고 약 60도 각도로 비스듬히 눕혀 잡아당긴다. 그물을 거의 수면 위로 올려놓고 그릇으로 자리돔을 뜨면서 잡는다.

4.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

경상북도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김부근(1942년생, 남) 어르신의 가르침에서 제주도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을 가늠할 수 있다. 이곳 사람들은 천둥지기를 ‘천봉답’이라고 한다. 이 마을 동쪽에 ‘태곡지’라는 저수지가 있다. 그 아래쪽 논들 이름이 ‘송내봉답’이다. 모두 100마지(1마지기 200평)이다. 김 씨 어르신은 이곳에 5마지기를 소유했다. 물이 귀했다. ‘송내봉답’은 질흙으로 된 땅이다. 그러니 ‘봉답’이 가능하였다. 이곳 토양 특성에 따른 이야기도 전승되었다. “‘송내봉답’의 흙물이 옷에 묻으면 아기 셋 낳을 때까지 씻기지 않는다.”고 말이다.

제주도 이외 육지부 지역에서 평상복과 노동복은 백의(白衣)였다. 백의를 입고 논밭에서 노동하였을 때, “흙물이 옷에 묻으면 아기 셋 낳을 때까지 씻기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전승될 수 있었다. 그러나 제주도 사람들은 평상복은 백의, 노동복은 갈옷을 구별하는 일상적 삶 속에서, 갈옷을 입고 노동하였을 때 흙물의 염려는 있을 수 없었다.

제주도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은 제주도의 화산회토(火山灰土) 때문이다. 제주도 화산섬 땅의 흙물은 백의에 스며들면 씻기지 않음은 경상북도 질흙으로 된 땅의 천둥지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 이것이 제주도 사람들의 의생활, 곧 평상복을 백의, 노동복은 갈옷 전통의 탄생 배경이 아닐까 한다. 그러나 제주도 갈옷은 화산섬 제주도 풍토에서 살아온 제주도 사람들의 문화유산이다.

■ 종합토론

제2부 종합토론 토론문

(좌장: 현진숙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위원장)

- 토론 1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황경숙 (부경대학교 외래교수)
- 토론 2 갈옷은 제주인의 삶
이애순 (제주천연염색협회장)
- 토론 3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박지혜 (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장)
- 토론 4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제주 갈옷
조정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목 수정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황 경 숙 (부경대학교 외래교수)

학술대회의 주제는 ‘제주 갈옷의 전승양상과 문화유산적 가치’로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홍희숙], ‘제주 갈옷의 종류와 제작 방법에 담긴 제주인의 전승지식’[김순자],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방안’[허복구],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문화재 지정 방향’[고광민] 등 네 편의 연구 성과물로 꾸러졌다. 이들 연구 성과물들은 제주 갈옷의 역사와 전승양상 그리고 그 문화유산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드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에 여기서는 각 연구 성과물에 대한 각론적 접근을 넘어 ‘제주 갈옷’의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나아가 지역 무형문화재로서의 잠재적 가치를 규명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위한 포괄적 접근에 중점을 두고 몇 가지 질문과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1. 먼저, 궁금한 점은 과거 민간에서 행해졌던 갈옷의 감물들이기 과정과 관리 방식[쌀뜨물·소변으로 세탁] 등을 재현한 사례와 관련 현장 조사 보고서가 확보되어 있는가? 이다. 무형 유산의 보존 여부는 관련 제도에서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전승 담당층들의 체험적 지식 체계는 물론 관련 생활문화를 가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발표에서 갈옷은 이미 지어진 옷[일상복]에 감물을 들여 노동복으로 착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분의 발표에서 갈옷의 역사 및 형성 배경, 감물의 기능성, 갈옷의 시대적 변화 사례 등과 연계되어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갈옷에 대한 기록의 역사와 기억의 역사가 집성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감물 들이기 과정에 대한 논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다. 예컨대, 발표에서 감물들이기 도구로 ‘남도구리’ ‘덩드렁막개’가 언급되어 있는데, 이들의 형태와 실제 용도를 파악할 수 없으며, 감물을 먹인 후 멍석·지붕 위·평평한 돌·잔디에서 햇볕에 말리기[바래기]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발색을 고르게 하기 위해 현재 빨랫줄에 걸어 바래기를 하는 과정과 차별되는 것이다. 옷을 뒤집어 바래기를 했다하나 그 결과 값은 일정 정도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설령 발색의 결과에 차이가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굳이 옷의 한 면씩 바래기를 하는 방식을 취했던 것은 다른 생활문화[빨래말리기]등과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 또한 감물 들일 때 감의 껍질을 섞기도 하고, 물을 섞었다 하기도 하는데, 그 작업 과정과 감물만 사용했을 때와의 차별성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갈옷의 관리 방식의 하나로 쌀뜨물과 소변으로 세탁했다고 했는데, 이러한 사례가 다른 염색에서도 나타나는 것인지 실제 그 효능의 원인이 무엇인지, 쌀뜨물과 소변은 어떻게 관리 활용되었던 것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쉽다. 이는 감물 들이기에 내재되어 있는 전통 지

식[전승 지식]을 보다 구체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다음은 전체 논의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이다. 전반적으로 논의의 방향성이 감물 들이기와 갈옷[여름철 노동복]의 전승양상과 발전적 계승방안에 치우쳐 있지 않는가 한다. ‘제주 갈옷’의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가치 나아가 지역 무형문화재로서의 가치를 규명, 공유하기 위해서는 이를 넘어 제주 갈옷 문화의 지역적 고유성에 대한 해석적 논의가 보다 다각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1) 제주도의 감물들이기는 전라남도 진도의 감물 들이기와 그 방식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이미 선행연구를 통해 널리 알려져 있고, 이에 대한 언급이 발표에서도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차이점이 나타나게 된 연유 또는 이러한 차이점을 통해 가름해 볼 수 있는 지역문화에 대한 논의는 다소 배제되어 있었다. 갈옷이 제주도의 자연 환경과 이를 활용하는 지식 및 노동문화와의 관계성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감물들이기 역시 맥을 같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한 차례 감물을 고루 묻혀 오랜 기간[직사광선 10일 가량] 물을 적셔 햇볕으로 말리기를 반복했던 제주 감물 들이기와 자연환경과의 관계성은 없는지, 척박했던 제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제주민의 정서와 관계성은 없는지 그 여부에 대한 해석적 논의도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 1차 감물들이기와 이에 머물지 않고 행하는 2차 감물들이기를 행하는 경우 감물 소요량에서 차이가 나고, 매염제[畵]를 사용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감물의 순수한 색을 선호했던 단선성과 매염제를 통해 색을 전환시키는 복합성과 결부 지을 수 있고, 적시기와 말리기의 반복은 염색제로서의 감물의 속성을 최대한 발현시키는 것으로 생활의 지혜이자 노동의 지향성과 결부 지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질문의 요지는 역사적, 현상적 사실을 넘어 제주 공간성에 배태되어 있는 사회문화적 맥락과 인문학적 상상력을 연계한 논의로 확장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다.

2) 발표 중 개인적으로 흥미롭게 다가왔던 내용은 낡은 갈옷의 재활용과 상례의 ‘복옷’이다. 갈옷 관련 생활문화의 일면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자의 경우는 감물 염색의 기능성 확장이라 생각되나 후자의 경우는 갈옷이 유용한 노동복으로 공유되면서 그에 따른 ‘복옷’ 문화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그 형성 시기는 조사 보고된 시기보다 앞섰지 싶다. 이와 관련해 노동복[갈옷] 일상복의 차별성을 함께 고려하면, 과거 제주민의 의복문화에 나타나는 질서와 경계 등으로 논의를 확장 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즉, 노동복과 일상복을 구분 짓는 문화, 의례적 의복을 노동복으로 전환시켰던 문화 등이 여타 지역에서도 나타나는지에 대한 대비적 고찰도 병행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3) 발표에 따르면 과거 제주도에서는 각 지역 민가에서 풋감이 날 때 소유하고 있던 일상복에 감물을 들여 여름철 노동복[갈옷]으로 활용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각 가정에서 매해 정례적으로 행하는 일은 아닐 것이나, 민간의 한 해 노동 주기적 관점에서 여름철 제주민의 노동문화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나아가 공동체 삶 속에 갈옷이 갖는 사회문화적 맥락을 풀어내는 작업도 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 2)와 3)의 문제의식을 연계하면 ‘미래 무형유산으로서의 제주도 갈옷’은 그 명칭을 ‘제주 갈옷 문화’ 범주를 포괄적으로 명시화할 수 있는 ‘제주 갈옷 생활’ 이 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발표문에서는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개진되지 않았으나 발표 시 이에 대한 논의가 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를 포괄할 수 있는 명칭을 환기해 보는 논의를 보다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3. 발표에서 향후 과제로 ‘제주도 갈옷은 시대적 화두인 지속가능성과 탄소중립을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매우 우수한 모델로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내적으로 계량화하고 논리를 만들어 내발적 발전을 꾀할 필요가 있다. ‘제주 갈옷 문화는 제주 전통 문화이자 지속 가능한 미래 자원으로 갈옷의 가치와 효용성을 다른 분야까지 확대해야 한다.’등이 제기되었다. 모두 미래 산업자원으로서의 갈옷의 가치와 효용성을 어떻게 구현할 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주 갈옷은 미래 산업 자원을 넘어 제주민의 삶과 문화 그리고 제주의 역사가 담겨져 있는 문화적 자원이기도 하다. 이러한 자원을 올바르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청도군의 경우 2002년 여성 사회교육으로 감물염색을 지역사회에 소개한 것을 계기로 현재는 감물염색(천연염색)의 중심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짧은 시간에 나타난 이러한 변화는 청도군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었기 때문으로 청도군에서는 2005년 지역 감물염색 공동 브랜드인 ‘시설패’를 만드는 한편 이 시기부터 2010년까지 ‘신 활력 사업비 지원’정책으로 감물염색 사업을 독려했으며, 2010년부터는 전국 감물염색 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고 지역 축제[‘청도반시축제’·‘청도 소싸움’] 와 연계해 ‘청도 감물염색 디자인 패션쇼’를 개최하고, 판매처를 확장하는 등 감물염색을 지역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와 대비해 볼 때 감물염색과 갈옷의 근원지이자 원천 소스의 보고라 할 수 있는 제주의 경우는 아쉬운 점이 많다. 미래 산업자원으로서, 지역문화콘텐츠 자원으로서의 가치를 공유하고 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전략적 대응 방안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발표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대응 방안 모색의 행보가 있다면 어떠한지 궁금하다.

갈옷은 제주인의 삶

이 애 순 (제주천연염색협회 회장)

네 분의 발표를 들으면서 갈옷 염색에 대한 깊은 연구와 가치 발견을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염색업체 입장에서 그간 갈옷에 대한 자료가 거의 없어서 답답했는데 학술 연구를 잘해주셔서 앞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감염색과 갈옷은 제주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제주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집마다 빨랫줄에 갈옷이 널어져 있던 풍경, 새벽에 어머니가 남방아에 풋감을 찧으면 하얀 풋감 씨를 찾아 먹거나, 풋감을 찧은 남방아에 옷을 넣고 주물러서 감 찌꺼기를 대충 털고 널었던 옷들이 새삼스럽게 떠오릅니다.

이런 풍경이 익숙하고 흔해서 300년 이상 제주에서 전승되어온 향토 문화를 우리가 너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여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게을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무형의 문화재를 좀 더 연구하고, 육성, 발전시켜야 할 것입니다. 예전에는 육지에서 제주로 벤치마킹하러 왔었는데 이제는 반대로 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20~30년 전만 해도 제주도 사람들은 갈옷을 노동복으로 생각하여 중요 자리에는 입을 수 없고 지금도 나이가 드신 분 중에는 더러 노동복이라는 인식을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천연염색을 시작한 199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 염색하는 업체가 100군데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노력으로 갈옷이 노동복이라는 인식에서 이제는 패셔너블한 멋진 외출복으로 시장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업체가 워낙 영세하여 디자인에 한계가 있고 코로나 이후 감물 들이는 인구가 줄어들어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업체 노력도 필요하지만, 관련 기관에서 약간의 도움을 준다면 예전의 천연염색 붐이 일던 시절이 돌아오지 않을까 합니다. 예를 들어 교육 현장에서 제주 향토 문화 체험으로 전교생이 티셔츠 감물들이기 체험하는 학교도 있습니다만 일부 학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에게 체험 기회가 있어야 문화가 다음 세대로 이어져 나가고, 어른들에게까지 전파가 될 것입니다. 전도 학교 학생, 학부모 대상으로 감물 들이는 날, 아니면 감물 들인 티셔츠를 입어보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본인이 체험을 해봐야 갈옷이 얼마나 몸에 이로운지 알 수 있습니다. 감 염색을 접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지속적이고 미래가치가 있는 갈옷과 감염색을 좀 더 많은 사람이 접할 수 있는 체험 기회가 주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제목 수정 “제주 갈옷 전승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표에 대한 토론

박 지 혜 (제주전통문화감물염색보존회장)

1.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

1) 감물염색 전래설

심도 있는 연구로 제주도 갈옷의 역사를 재조명해 주셔서 제주도 갈옷의 역사와 발전 방향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발표하신 내용 중 제주도 감물의 기원설 중 운남국의 왕족과 그 일가를 고려시대에 제주로 이주시켰다는 내용이 있으며, 운남성(雲南省) 지역의 묘족(苗族)을 비롯하여 현재까지 전통문화와 전통복식을 잘 이어오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민속복식을 연구한 의류학자들의 논문들에서도 감물염색이 언급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고 하셨는데,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운남성(雲南省) 지역의 묘족(苗族)의 전통문화 및 염색문화를 조사해 보면 감물염색은 나타나지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운남국에서 전래되었다는 설은 재생산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추론을 통해 기원이 재정립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갈궁중이의 감물염색과 외출복

자료에 의하면 제주도 전통 의상인 갈궁중이는 일종의 속옷으로 치마 속에 입고 다니다가 집에서 일하거나 밭에서 일할 때는 치마를 벗어 놓고 일을 하다가 외출 등을 할 때는 흰색이나 검정색 치마를 입는 것이 예의였던 같습니다. 그런데 점차 감물염색을 한 갈궁중이를 외출복으로 입고 다니게 된 듯 합니다. 그래서 이즈미 세이치의 『제주도(濟州島)』 문헌에는 해촌 여자들이 감물염색한 갈궁중이를 입고 다니는 것에 대해 예의에 어긋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해석하면 감물염색에 의해 속옷이 외출복이 된 것이고, 여성들이 바지를 입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최초의 외출복 바지라는 관점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3) 감물염색 횟수

감물염색은 1회만 했다고 밝혔는데, 제주학 연구센터에서 발간한 ‘시집을 때 입어난 장옷 죽영 가명도 입곡: 제주어와 제주 전통문화 전승 보전 사업3- 제주 전통 옷 구술 자료집’에는 전남 진도에서 염색했던 것처럼 2회 염색했다는 채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와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

구술자료를 통한 과거에 사용한 용어에 대한 접근은 과거의 갈옷을 알고,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쉬운 부분은 용어도 시대에 따라 변하는데 구분이 안되어 있어 조금 아쉽습니다.

갈옷의 용어에 대해 해석을 해주셨는데 중국어 사전에서 갈의(襦衣)는 거친 옷, 벼슬하지 않은 농부들이 입는 옷 등으로 해석되어 있는데, 이는 맹자와 그의 제자들의 어록을 엮은 경전인 맹자(孟子)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일본에서 갈의(襦衣)는 고대부터 중세에 걸쳐 계급이 낮은 무관이 착용했던 복식입니다. 이 갈의(襦衣)에서 의(衣)자를 옷으로 사용하면 갈옷이 되는데, 제주도 갈옷은 이 갈의(襦衣)와 관련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3.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을 현대적으로 전승하려면 산업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화했을 때도 다른 염색에 비해 탄소 발자국이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이 우수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4. 제주 갈옷의 문화 유산적 가치

1) 제주 사람들의 평상복

‘제주도 사람들의 평상복은 백의(白衣)다’라는 주장에 대한 관련 근거로 타카하시노보루(高橋昇)가 촬영한 1912년 입춘굿(1912년, 제주시 관덕정) 사진, 관덕정 오일장(1912년) 사진, 허벅을 지고 있는 여인(1912년, 김녕리) 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백의 노동복과 갈옷 노동복’에 대해서는 타카하시노보루(高橋昇)가 촬영한 1940년대의 경상남도 거제도에서 보리농사를 짓는 사진과 그리고 1940년 6월 21일, 평안북도 철산군 철산면에서 논농사를 짓는 사진을 제시하며 육지의 백의노동복을 제시했습니다.

갈옷 노동복에 대해서는 1960년대, 1960년대 홍정표가 촬영한 제주도의 갈옷 노동복 사진을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1910년대와 1960년대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특히 일제 강점기 때 일제의 강제적인 색복 착용 정책은 어떤 형태로든 갈옷 착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 예로 1936년 5월 30일자 조선신문(朝鮮新聞)의 ‘천연염료’ 조사라는 제목의 기사에는 “염색의 착용을 장려한 결과 충청북도 지역에서는 80% 이상의 보급성적을 나타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한 제가 2012년에 조사했을 때 감물로 염색한 옷은 “잘사는 사람들도 입고, 못사는 사람들도 입었던 옷이다.”¹⁾ “순경이나 사무 보는 사람들만 안 입고, 다 입고 다녔다”, “밭에 다니는 사람은 다 입었다.”²⁾ “동네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입었다.”³⁾ 라는 응답이 있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때는 시장에서 흰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먹물을 뿌려가면서 색복을 장려했고, 그것은 당시의 많은 신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일제의 색복 착용 강요가 갈옷 착용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

제주도 화산섬 흙물도 백의에 스며들면 씻기지 않음은 경상북도 질흙으로 된 땅의 천둥지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다. 이것이 제주도 갈옷의 탄생 배경이다. 제주도 갈옷은 화산섬 제주도 풍토가 만들어놓은 문화유산이다. / 흙만을 놓고 갈옷 노동복의 탄생 배경을 제시하기에는 논리를 너무 비약한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이0례(1921). 2012년 2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동북리 노인복지회관에서 인터뷰를 함.

2) 송0수(1925). 2012년 7월 30일 제주시 삼양동 자택에서 인터뷰를 함.

3) 이0연(1936). 2012년 7월 26일 서귀포시 남원읍 위미초등학교 앞에서 인터뷰를 함.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는 제주 갈옷

조 정 현 (제주학연구센터 전문연구위원)

제주 갈옷은 제주도와 제주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의 환경문제에 대한 로컬리티적 대안이자 지속가능성의 상징적 모델, 그리고 고부가가치의 문화산업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전통문화이자 미래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담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4개의 주제 역시 이러한 제주 갈옷의 역사적 전개와 변천, 현재적 전승 양상을 살피는 가운데 문화유산적 가치를 발굴하고 현대인의 일상생활 속에서 전승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공동연구원으로서 토론에 참여하고 있기에, 지난 2022년부터 현재까지 추진해온 조사 연구의 전개와 성과를 돌아보면서 네 분의 발표와 견주어가며 토론에 임하고자 한다. 실상 제주 갈옷의 무형유산적 가치는 여러 학문 분야 별로 다른 시각과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연과학적 접근에서는 갈옷에 담긴 염색 기술의 작동 프로세스와 기능성 등에 주목할 것이고, 사회과학적 입장에서는 갈옷의 유행이나 트렌드의 변천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고자 할 것이며, 인문과학적 입장에서는 제주 갈옷이 담지해온 역사적 맥락과 전승자의 인식, 언어 전승과 주변문화 등에 관심을 가질 것이다. 이번에 발표되는 4개의 주제 역시 자연과학적 실용과학적 접근, 사회과학적 접근과 해석, 인문과학적 조사연구 성과 속에서 전승지식을 이끌어내는 방법 등이 망라되어 있어 제주 갈옷에 대한 총체적인 접근이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홍희숙 교수님의 ‘제주 갈옷의 역사와 변천 양상’에서는 방대한 기록자료를 바탕으로 역사시대로부터 이어져온 제주 갈옷의 전승 양상과 현대적 변화 양상까지 세밀하게 짚어보았다. 고 문헌 자료뿐만 아니라 일제강점기부터 2000년까지 기록된 신문기사, 단행본, 논문 등을 총망라하는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향후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 가치를 규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기존 자료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은 것 역시 제주 갈옷에 관한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갈옷의 ‘갈’ 자에 대한 여러 가지 오해들을 꼼꼼한 문헌 검토를 통해 해소한 점은 단연 돋보인다.

김순자 센터장님의 ‘제주 갈옷의 전통과 전승 지식-구술 자료를 중심으로’ 발표 역시 이번 사업에서 역점을 두고 수행한 제주 갈옷 현지조사의 성과를 잘 담아내고 있어 주목된다. 제주도내 동지역과 읍면지역 마을 27곳에서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제주 갈옷과 관련한 전승 지식을 조사하고 구술채록으로 정리한 성과를 잘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갈옷 관련 명칭과 종류 등에 대한 제주도내 보편성과 지역별 변별성을 일목요연하게 밝히고 있어 향후 제주 갈옷의 깊이 풍부한 전통과 문화유산적 가치를 도출하는 데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후 방대한 구술채록 자료를 활용하여 갈옷 제작 과정과 이에 수반되는 전승 지식까지 확대하여 정리해나갈 것으로 더욱

기대된다.

허복구 선생님의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한 생태적 특성과 현대적 전승 방안’ 발표는 인문학적 바탕에서 출발한 갈옷 관련 논의를 섬유 과학과 패션 산업, 친환경 탄소 중립 등까지 확장하는 성과로 주목된다. 특히 국내에만 머무르지 않고 세계적인 섬유 산업의 흐름 속에서 제주 갈옷이 차지할 수 있는 위상에 대해 다양한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풀어간 부분은 향후 제주 갈옷 논의의 방향성을 잘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주 갈옷의 전승에 있어서 전승자나 업체, 네트워크 등도 중요하지만 이를 소비하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의 인식 전환 사업을 함께 추진할 필요성을 제기함으로써 제주 갈옷의 가치 발굴에 이은 전승 기반 구축 및 활성화의 방법을 제시한 점은 더욱 돋보인다. 다만 섬유산업의 문제점과 폐해,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는 수량적 지표들을 포함한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가 제시되는 데 비해서 제주 갈옷의 지속가능성과 탄소 중립의 친환경성에 대해서는 자료의 형식이나 구체화된 데이터가 적은 것으로 보여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어 보인다. 물론 제주 갈옷에 대한 조사 연구와 실험 등이 아직까지 광범위하게 양적 질적 도약을 이루지 못한 탓이겠지만 이러한 자연과학적 사회과학적 접근 방법에 대한 균형을 고민해 볼 때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고광민 선생님의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평상복과 노동복을 구분하였던 배경’ 발표는 풍부한 사진과 함께 일상복으로서 백의와 노동복으로서 갈옷의 구분 양상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외적 평상복으로서 백의와 언제든지 노동 현장에 갈 수 있는 갈옷을 입는 제주의 의생활 전통을 밝히고 있다. 특히 육지부의 노동복으로서 백의가 제주에서는 왜 노동복으로서 갈옷이 되었는지에 대한 견해는 노동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의복의 변화를 규명하고 있어 주목된다. 향후 제주 화산토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토양 지대에서의 갈옷 제작과 착용 양상, 제주의 노동환경이 가지고 있는 토양 이외의 다양한 특성 등에 대한 풍부한 자료 수집과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주어진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적응과 극복의 문화로서 제주 갈옷의 문화유산적 가치를 밝혀나가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 갈옷 미래무형유산 발굴 육성 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제주 갈옷에 대한 조사 연구를 통한 가치 발굴을 목표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해왔다. 역사적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고문헌 25건, 근현대 신문기사 113건 등 300여건의 자료를 수집했고, 제주 전역 27개 마을 42명의 제보자를 대상으로 200자 원고지 6,500여매 분량의 구술채록을 했다. 또한 갈옷 업체를 포함한 제주도민 464명을 대상으로 제주 갈옷 인식도 설문조사를 수행하였고, 도내 17개 박물관 미술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갈옷 관련 자료를 조사하여 촬영하고 실측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무형유산 제주 갈옷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있으며 사업이 종료되는 8월 말에 최종보고서를 간행할 예정이다.

문화재청 미래무형유산 발굴·육성사업 제주 갈옷 학술대회 자료집

제주 갈옷 전승 양상과 문화유산 가치

발행일 2023. 7. 10.

발행처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선교로 569-36

제주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임항로 278 (064-726-5623)

제 작 도서출판 각(064-725-4410)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밝혀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으나 무단 전재나 복제는 금합니다.

비매품